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1 7 Vol. 235



자연주의 피아노음악의 거장\_조지 윈스턴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Richard Strauss*



Program

주폐 「시인과 농부」 서곡  
프로코피에프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R.슈트라우스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011. 7. 8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바이올린 - 김재원

주 최 부산광역시 후 원 metro  
문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자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셔틀버스 운행(무료)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지휘 리 신차오  
Li Xincao 李心草



# 평양예술단: 초청공연



Art is a Dream for Korea!  
PYONGYANG  
ART TROUPE  
SPECIAL PERFORMANCE

2011년 7월 16일(토) 오후 5시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대공연장)

입장료 : VIP30,000원 R석(1층)20,000원 A석(2층)10,000원  
 할인정보 : 누림회원·초·중·고(20%), 단체·20명이상(3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50%)  
 예매처 : 인터파크 AUCTION 옥션 YES24.COM 에스24 팝부산 팝부산

주최 Sun&Fun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평양예술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특권위원회

해운대문화회관 QR코드  
문의 : 749-7651



Concert  
Musical

# 피크를 향하여

Sun&Fun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극단 PEAK

2011년 7.21(목) ~ 7.31(일)

평일-19:30/토-15,19시/일-17시  
25(월) 공연없음

- ▶ 장 소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대공연장)
- ▶ 입장료 : 1층-40,000원/ 2층-30,000원  
- 할인적용 : 누림회원초중고 단체20명이상 3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50%
- ▶ 예매처 : 인터파크 AUCTION 팝부산 YES24.COM
- ▶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 ▶ 주 최 : 해운대문화회관 / 주 관 : 극단 PEAK



Rock, Rap, R&B, 발라드에 아카펠라...  
그리고 트로트까지

저음 이 폭발하는  
라이브 뮤지컬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검색해 보세요.

최상의 음질과 섬세한 디자인의 조화  
야마하 대표 콘솔형 피아노

**M2**  
**M3**

**M** SERIES  
*Furniture Piano Series of Upright Pianos*



M3 SM Satin Mahogany



M2 SBW Satin Black Walnut



M2 SM Satin Mahogany

야마하 그랜드, 업라이트 피아노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진양사거리 롯데키즈마트(2층)에서도 부산야마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대여.조율.운반



야마하 관악기 염가판매  
도매문의 환영

야마하 색소폰 5~10% DC

- 플루트
- 오보에
- 클라리넷
- 색소폰
- 트럼펫



YDP-V240

디지털 피아노 구매 고객께  
USB 메모리를 드립니다.

USB 메모리(4GB)



DGX-640C

포터블 키보드 구매고객께  
야마하 머그컵을  
드립니다.

야마하 머그컵





## C/O/N/T/E/N/T/S

### 08 커버스토리

조지 윈스턴 내한공연 'Love Will Come'

### 10 프리뷰

### 16 반갑습니다

정년 퇴임하는 부산시립극단 창단멤버 박찬영

### 18 은현리 풍경에서 시를 읽다 ㉑

상선약수(上善若水)의 가르침을 따라 | 정일근

### 20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우크라이나 자포리지에 시민축제 | 김영근

### 24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㉑

브래스트 오프 | 이동신

### 26 불멸의 거장, 리스트 ㉑

로마시절 이후 좌절·상심·슬픔 그리고 평화 | 황윤하

### 28 그림, 풍류를 만나다 ㉑

물오른 수양버들 아래서 피꼬리 소리를 듣다 | 변광석

### 30 그곳에 가면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과학관

### 32 우리는 문화가족

하모니카동호회 화음정(和音情)

### 34 리뷰

소노리테 목관 5중주 연주를 듣고 | 신설령

'Now Here'는 'noWhere'! | 박해란

### 36 프로그램 가이드

### 54 나의 애청음반

정명화 恨·꿈·그리움... After a dream | 김희성

### 56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 58 부산문화회관 소식

### 64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1년 7월호 통권 235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1년 6월 25일  
인쇄처 | 소문출판인쇄사 Tel. 051-256-2301~3 / Fax. 051-248-7960



July  
07

##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SUN  
7/31

MON

TUE

3

4

5

**대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지 윈스턴 내한공연  
'Love Will Come' 19:30  
8만8천원 · 6만6천원 · 5만5천원 · 4만4천원  
/부산문화회관(607-6058), 라임기획(1600-1602)

**중 |** 제 20회 부산무용제 19:30  
1만원 · 5만원/부산무용협회(632-5116)

10

11

12

**중 |** 이성주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음악교육신문(02-549-4133, 1131)

**소 |** 부산시립무용단 2011 풍류(風流) 3기-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19:30  
균일 3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17

18

19

**대 |** 2011 IYF월드캠프 기념 아티스트 콘서트  
15:00, 19:30  
정진술(010-4143-9191)

**중 |** 제 7회 부산아마추어클라리넷앙상블 with  
부산클라리넷콰이어 18:00  
무료/이원기(010-8280-4646)

**소 |** Jazz동호회 RM(Round Midnight)  
제 50회 정기 음악감상회 14:00  
손명균(010-7134-1789)

24

25

26

**대 |**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제 9회 연주회  
19:30  
무료/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010-5502-3093)

### 전시실

색채의 물결, 미술의 바다  
2011 부산국제아트페어  
**대, 중전시실**  
7월 1일(금)~10일(일)  
※오픈식 7월 1일(금) 17:00  
입장료: 일반 5,000원 · 학생 3,000원  
문의: 부산국제아트페어 사무국  
(806-1004)

제 17회 부산서예대전  
**대, 중전시실**  
7월 12일(화)~16일(토)  
※시상식 7월 16일 14:00 국제회의장  
문의: (사)한국서예협회 부산지회  
(247-6042, 010-7599-6044)

중교소통미술대축제  
**대전시실**  
7월 17일(일)~22일(금)  
문의: (사)세계미술연맹(02-733-4770~1)

제 37회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전'  
**대전시실**  
7월 25일(월)~30일(토)  
※오픈식 7월 26일(화) 18:00  
문의: 부산미술협회(632-2400)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 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 바랍니다.

WED

THU

FRI

SAT

**중**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10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소** |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7:3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6

**대** | 2011년 한·미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류음악회 19:30  
3만원·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중** | 제 20회 부산무용제 19:30  
1만원·5만원/부산무용협회(632-5116)

7

**대** | 부산예술고등학교 제 24회 무용정기공연  
19:00 무료/부산예술고등학교(514-1229)

**중** | 이성은 피아노 독주회 19:30  
무료/이은철(010-4879-5321, 010-8516-8183)

**소** | 제 4회 뮤즈 칸타빌레 19:00  
무료/강다은(010-4542-3135)

8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1회 정기연주회  
2011 부산연주인시리즈 I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중**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하는  
듀오콘체르토 Season2 19:30  
균일 2만원/우리아트(010-5555-3825), 최성규(010-3564-3439)

**소** | 11 Brass 19:30  
균일 1천원/서인철(010-3659-1493)

9

**대** | 해외 개척교회 설립을 위한  
제 4회 선교찬양제 18:00  
초대/김수복(011-9610-3930)

**소** |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17:3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13

**중**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8회 정기연  
주회 부산의 다섯 명인과 함께 하는 '푸른  
달을 나란히 걷다'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21~2)

14

**대**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장애우 초청 '사랑의 음악회' 18:00  
초대/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중** | 제 28회 부산음악콩쿠르 시상식 및 축하  
연주회 19:00 무료/부산MBC(760-1127)

15

**중**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영원한 DJ  
도병찬과 함께하는 2011 POP합창'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소**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큰  
서트Vol.21 '엘로우 몬스터즈'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16

**중** | 제 7회 한국 청소년 합창 콩쿠르 11:00  
시상식 19:00  
무료/(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소** | 토요일상설무대-일파가야금합주단 17:3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20

**대** |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  
제 21회 자선음악회 19:30  
균일 1만원/소년의 집(256-3901, 010-9758-6838)

21

**야외** | 부산시립무용단 2011 여름마당출판  
춤으로 피어나는 '효녀 심청' 20:0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우천시 대극장

22

**야외** | 부산시립무용단 2011여름마당출판  
춤으로 피어나는 '효녀 심청' 20:0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우천시 대극장

**소** | 부산물라디클라리넷컴퍼니 Clarinet  
Sotry II-Harmony 19:00 1만원·5천원/  
부산물라디클라리넷컴퍼니(010-9388-8727)

23

**소** | 토요일상설무대-버습새예술단 17:3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27

**소** | 2011년 춤패 배김새 정기공연 19:30  
균일 2만원/춤패 배김새(010-2704-2552)

28

**대**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오페라 '투란도트' 19:30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2만원/  
부산문화(1600-1803)

**소** | 2011년 춤패 배김새 정기공연 19:30  
균일 2만원/춤패 배김새(010-2704-2552)

29

**대**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오페라 '투란도트' 19:30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2만원/  
부산문화(1600-1803)

30

**대**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오페라 '투란도트' 15:00, 19:30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2만원/  
부산문화(1600-1803)



조지 윈스턴

## 자연주의 피아노 음악의 거장

# 조지 윈스턴 내한공연 'Love Will Come'

7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따뜻한 영혼의 소유자

평화를 노래하는 자연주의 피아니스트,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가!

맑고 순수한 서정성, 장르의 구분 없는 다양한 음악!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이 7월 5일 감미로운 사랑의 선율로 부산 음악팬들을 찾아온다. 앨범 'December'로 국내 최고의 판매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조지 윈스턴은 계절의 변화와 공기, 바람, 물과 같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와 깊고 따뜻한 울림을 가진 피아노 연주로 깊은 감동을 선사해왔다.

민요, 블루스, 재즈 음악의 전통은 물론, 동시대 음악인들의 재능을 동시에 흡수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펼쳐온 조지 윈스턴은 몬타나, 미시시피, 플로리다 등지에서 유년기를 보내며 플로이드 클레이머(Floyd Cramer), 더 벤처스(The Ventures), 부커 티 앤 더 엠지스(Booker T&The MGs), 킹 커티스(King Curtis) 등과 같은 팝 연주곡들에 심취하면서 음악의 깊이를 더했다. 한 폭의 풍경화 같은 그의 레코드 자켓 처럼 조지 윈스턴의 음악은 맑고 깨끗하며 투명하다. 그는 특히 고향 몬타나의 대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평화로운 음울을 선율로 담아내면서 음악팬들로 부터 '자연주의 피아니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1970년대에 미국 전통음악(포크, 랙타임, 블루스 등)에 대한 관심을 음악으로 표현했던 조지 윈스턴은 1980년부터 Autumn(1980)-Winter Into Spring(1982)-December(1982) 등의 계절 시리즈를 연달아 발표하며 음악적, 상업적인 성공을 동시에 거두었다.



‘Autumn’ 과 ‘December’ 는 평론가들의 찬사와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누렸던 조지 윈스턴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계절 연작시리즈는 1991년 ‘Summer’ 를 발표하면서 마감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조지 윈스턴은 1994년 ‘Forest’ 를 발표하며 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고, 1996년에는 그가 평소에 존경해 왔던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빈스 과랄디(Vince Guaraldi)에 대한 오마주 ‘Linus & Lucy’, ‘The Velveteen Rabbit’, ‘Sadako와 천마리의 종이학’, ‘Pumpkin Circle’, ‘This is America, Charlie Brown’ 등의 영화음악을 선보이기도 했다. ‘Forest’ 앨범으로 그래미賞(Grammy Awards) ‘최우수 뉴에이지 앨범(Best New Age Album)’ 상을 수상한 조지 윈스턴은 ‘Summer(1991)’, ‘Forest(1994)’, ‘Plains(1999)’ 를 비롯하여 ‘Montana-A Love Story(2004)’ 등 6개의 앨범이 미국 빌보드차트 뉴에이지 부문 1위에 올랐다.

조지 윈스턴은 한국 팬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1998년 내한 당시 IMF로 실직한 수많은 한국 국민들을 위해 공연 개런티 전액을 ‘실직자들을 위한 기금’ 으로 기탁한 바 있는 조지 윈스턴은 1999년 앨범 ‘Plains’ 보너스 트랙에는 한국 팬들을 위해 ‘아리랑’ 을 수록하기도 했다.

4년 만에 애니메이션 ‘피너츠(Peanuts)’ 의 음악을 만든 재즈 피아니스트 빈스 과랄디에게 헌정한 두 번째 음반 ‘러브 윌 컴(Love Will Come)’ 을 발표한 조지 윈스턴은 재즈를 흡수, 조금은 번잡할 수 있는 재즈의 피아니즘을 정결하고 맑은 타건(打鍵)으로 소화해 냈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Thanksgiving’ 과 같은 자연과 추억을 담은 작품들과 자신의 음악에 영향을 준 도어스, 빈스 과랄디, 재즈 피아니스트 제임스 부커, 헨리 버틀러, 그의 하모니커 스승인 샘 힌튼 등에게 영감을 받은 다양한 작품들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Baby Let Me Hold Your Hand

Colors/Tamarack Pines

Time For Love/Be My Valentine Charlie Brown/Love Will Come

Moon, Dog And Cat

Variations On The Kanon By Pachelbel

Hawaiian Slack Key Guitar Piece-Kane's Tune

Medley: Carol Of The Bells/Cloudbu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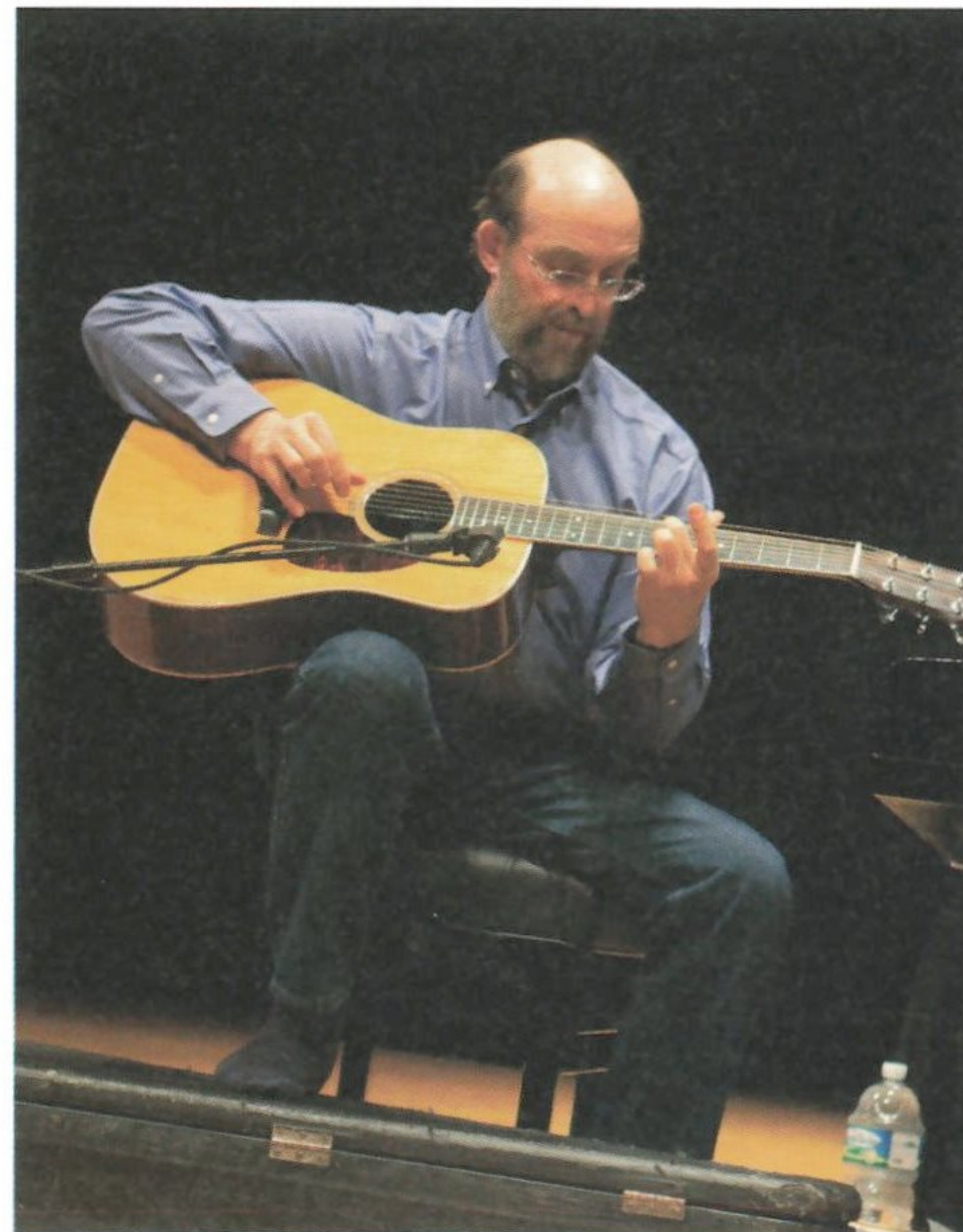
The Cradle

Urban Lullaby In E Flat#2

Pixie #6(Gobajie)

I Looked At You, Thanksgiving 등 수곡

(이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입장권 | VIP석 88,000원 ·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 A석 44,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라임기획(1600-1602)



# 제 20회 부산무용제

7월 4일-6일 월-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무용제에 출연할 부산 대표팀을 선출하는 제 20회 부산무용제가 7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부산지역 무용단들의 의욕적인 신작을 만날 수 있는 부산 최고의 무용축제로 전통을 이어온 부산무용제 2011년 무대는 LOM 무용단, 허경미 무용단, 손영일 무용단, 부산발레연구회 4팀이 한국전통무용, 창작무용, 발레 등 다양한 장르에서 열정 넘치는 창작 무대를 선보인다.

4일 국립부산국악원의 개막 축하무대에 이어 경연 첫무대를 장식하는 LOM 무용단은 삶이 치른 대가에 대한 찰나(刹那)의 돌봄을 진솔하게 그려본 '儼(안무/조지현)'을, 둘째날에는 말로 인해 놓쳐버린 우리의 참 뜻과 말로 인해 다 전달되지 못한 말들을 춤으로 표현한 허경미 무용단의 '외치다(안무/허경미)', 음악이라는 큰 매개체에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다양한 모습을 춤 언어로 담아낸 손영일 무용단의 'Crazy music and street(미친 음악 그리고 거리)(안무/손영일)', 6일에는 고인듯 흐르고 흘러 더 넓은 바다가 되는 삶을 발레로 담아낸 부산발레연구회의 '비밀의 강(안무/임계영)'이 2011년 부산무용제의 마지막 경연작으로 무대에 오른다. LOM 무용단의 '儼'을 안무한 조지현은 전국생활대축전 상임안무가로 활동한 바 있다.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허경미는 통영 승전무 이수자로 우리춤의 맥을 이어왔다. 손영일은 제 18회 부산무용제에서 '미친 개미들'로 대상과 안무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96년 '섬'으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부산발레연구회는 8회 때부터 매년 부산무용제에 참가, 신작을 발표해온 열성 춤 단체이다.

부산무용제는 경연작품 외 축하공연 열기도 뜨겁다. 모든 장르가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운 춤 한마당을 위해 4일 국립부산국악원의 개막공연 '박접무'를 비롯해 6일 2010년 대상팀인 박성호 무용단의 축하공연, 부산시립무용단의 '꼭두상모' 무대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 대상팀은 10월 20일부터~10월 29일까지 15개 시, 도 대표무용단이 참가하는 전국무용제 부산대표로 참가한다.

- 입장권 |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 부산무용협회(632-5116)



LOM 무용단



허경미 무용단



손영일 무용단



부산발레연구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1회 정기연주회(2011 부산연주인시리즈 I)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7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교향곡, 오페라, 발레 등 폭넓은 레퍼토리에 대한 탁월한 해석은 물론, 천재적인 감각과 신선한 열정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대서사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1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출신의 우수한 음악인을 선발, 협연기회를 제공하는 2011년 부산연주인시리즈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이 협연한다.

대구방송콩쿠르 1위, 음악춘추콩쿠르 1위, 글로벌 전국음악콩쿠르 대상을 수상하고 금호영재콘서트 오디션에 합격하기도 한 김재원은 독일 Kloster Schöntal 국제 바이올린콩쿠르 3위 입상 및 'Virtuoso 특별상'을 수상해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Bomberg Orchestra와 스페인 3개 도시 순회연주회를 갖기도 한 김재원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 영재 입학하여 예술사 1년에 재학 중이다.

이번 무대를 위해 김재원이 협연할 레퍼토리는 프로코피에프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 이 곡은 로맨티스트의 협주곡처럼 서정적이고 선율적인 성격이 강한 곡으로 1935년 바이올린 소나타로 작곡된 곡이다. 프로코피에프가 겪은 격변의 시대가 반영되어 있지만 그와 달리 대단히 열정적이고 로맨틱하다. 제 1악장과 제 2악장은 발레 음악인 '로미오와 줄리엣' 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번 연주회의 메인 레퍼토리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R. 슈트라우스가 철학자 니체의 동명의 원작에서 감명을 받아 작곡한 작품이다. 서른 두 살의 나이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쓰고 있었던 1896년 당시 슈트라우스의 명성과 창작력은 이미 정점에 달해 있었다. 장엄한 음악적 대서사시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로 불리는 이 작품은 웅대하고도 풍부한 악상과 치밀한 묘사력, 탁월한 관현악 기법으로 이 장르의 최대 걸작으로 일컬어진다. R. 슈트라우스는 당시까지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철학의 음악화'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찬사만큼이나 비난도 많이 받았다. 이에 대해 슈트라우스는 "나는 철학적인 음악을 쓰려한 것이 아니며, 인류가 그 기원에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가는 모습을 음악이라는 수단으로 표현하려 했던 것이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40분에 육박하는 대작이라 곡 전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만큼 천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특유의 대범하고 치밀한 구성의 대 편성곡이 주는 감동과 전율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8회 정기연주회

## 부산의 다섯 명인과 함께하는 '푸른 달을 나란히 걷다'

7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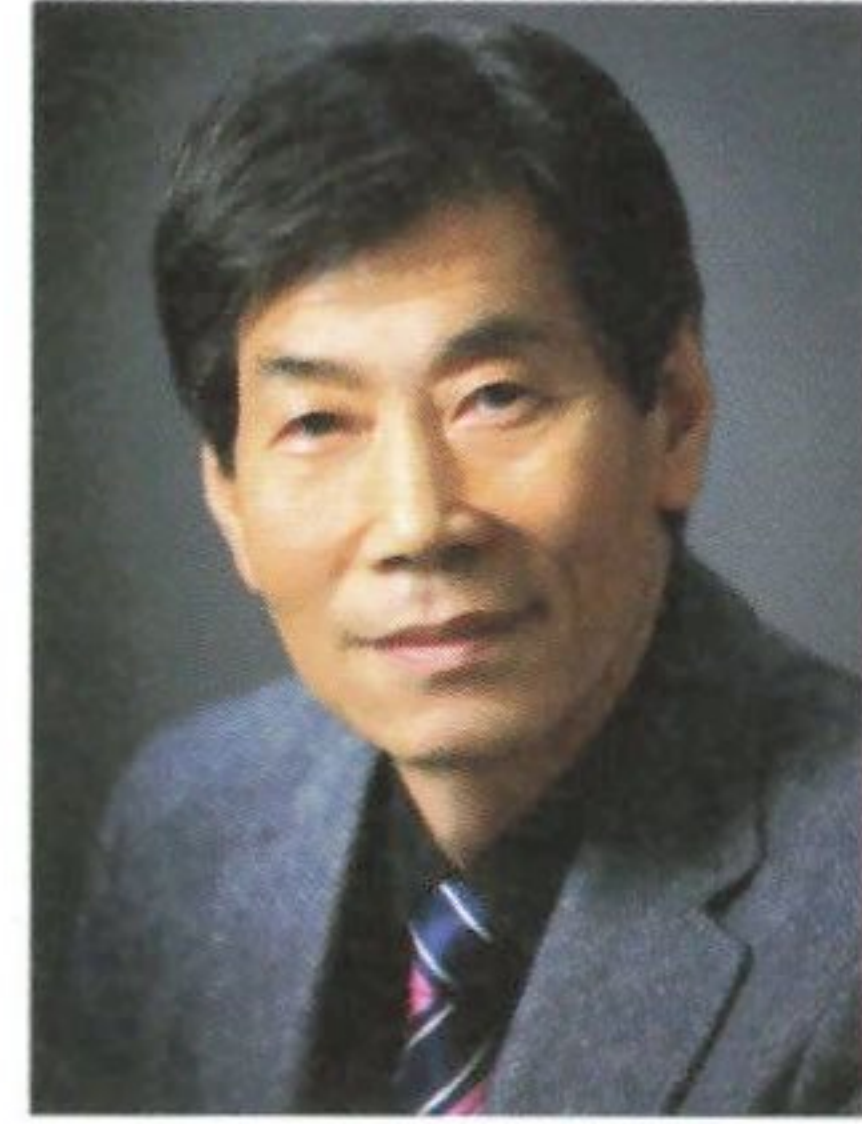
수석지휘자 김철호



가야금 신은주



해금 윤해승



아쟁 박대성



오보에 류재환



바이올린 임병원

우리 음악의 새로운 해석으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7월 13일 우리 국악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창작국악곡들로 제 158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수석지휘자 김철호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연주회는 25현 가야금과 병창을 위한 협주곡 '가야송'을 비롯해 해금협주곡 '가을을 위한 도드리' '박대성류 아쟁산조 협주곡' '오보에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등 우리 음악의 예술성을 느낄 수 있는 국악 창작곡들을 선곡, 부산의 다섯 명인들과 함께 동, 서양 음악이 어우러지는 흥겨운 선율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첫 곡 '가야송'을 제외한 모든 곡들이 부산 초연곡이라 국악애호가들의 관심이 높다.

신은주가 들려줄 25현 가야금과 병창을 위한 협주곡 '가야송'은 우리나라 최초의 25현 가야금 병창곡으로 25현 가야금의 풍부한 선율위에 전통 한국의 창법이 어우러지는 곡이다. 신은주는 제 18회 김해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현재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단원 윤해승이 들려줄 해금협주곡 '가을을 위한 도드리'는 작곡가가 보들레르 '가을의 노래'의 첫 두 행 '머지않아 우리들 차디찬 어둠 속에 잠기리니/ 잘가라 너무나도 짧았던 우리의 힘찬 여름빛이여'의 감흥을 해금곡으로 옮겨온 작품이다.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 16호 박대성 명인

이 들려줄 '박대성류 아쟁산조 협주곡'은 곡상의 흐름이 애절한 듯 강렬하고 농현이 굵은 것이 특징이다. 진도 출신인 박대성 명인은 우리국악계의 큰 가문으로 여성국극계의 자매스타였던 박보아, 박옥진, 국악협회장을 지낸 박병기의 동생이다. 박대성 명인은 음악적 깊이 뿐 아니라 아쟁의 활대 쓰는 법을 많이 연구해 활대 다루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고 섬세하면서 성음이 진부하지 않고 아주 깨끗하며 깔끔하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오보이스트 류재환이 들려줄 '오보에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은 새롭고 풍부한 음향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국악과 서양 타악기 및 저음악기(대피리, 콘트라베이스)를 사용, 주요주제는 구슬프지만 서정적이며 우아한 장식적인 선율전개로 전체 작품 내용을 이끌어간다.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공동대표 겸 악장을 맡고 있는 경성대학교 임병원 교수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콘체르토 '만남과 추상'은 바이올린과 국악관현악의 어울림에 많은 고민을 한 작곡가 조석연이 상반되고 자유로운 각각의 음계를 사용하여 서로의 개성을 살려 구성한 곡이다.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4)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 영원한 DJ 도병찬과 함께하는 '2011 POP합창'

7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팝음악 진행자 도병찬

5월 故 김광석을 추모하는 7080 가요 합창음악회를 통해 대중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 부산시립합창단이 7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POP 음악을 합창으로 편곡,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해에 이어 KBS 팝음악 진행자 도병찬의 구수한 해설을 곁들여 1980년대의 음악다방에서 Old Pop을 듣던 시절로 돌아가 청중들과 아련한 추억여행을 떠난다. Let me be there로 여는 감미로운 '2011 POP합창' 무대에서는 영화음악 속의 POP 음악, 추억속의 씨시봉과 트윈폴리오 음악, 하모니카로 듣는 POP, 전 세계인이 열광한 비틀즈 음악과 POP 명곡에 풍성한 합창단의 화음을 더해 색다른 POP무대를 만날수 있다.

특히 최근 7080 음악의 붐을 타고 새롭게 조명되는 씨시봉과 트윈폴리오의 주요 레퍼토리인 'Don't forget to remember' 'Green green grass of home' '하얀 손수건' '웨딩 케익' 등을 통해 Old Pop 팬들은 물론 Old Pop을 접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도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젊은 세대들을 위해 작곡가 최석태, 백현주, 문지은이 감성적인 편곡으로 원곡의 감동을 더 하고 기존 합창단 연주회에서 만날 수 없었던 하모니카와

기타, 드럼 등 다양한 악기로 흥겨운 팝 합창무대를 열어준다. 그 외에도 7080 세대들에게 추억을 안겨주는 영화 'James Bond' 'Grease' '졸업' 'Yesterday' 등 영화 속의 Pop 음악, 부산시립합창단의 아카펠라 그룹 앙상블 에피소드가 들려주는 비틀즈의 팝 무대로 색다른 재미를 안겨준다.

이번 무대 해설을 맡은 도병찬은 1974년 4월 대구 한국 FM방송 PD로 입사, 1981년부터 2007년까지 KBS 부산방송총국 PD로 재직했다. 1997년 9월 한국방송대상 라디오 지역부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도병찬은 현재 KBS FM '4시의 뮤직파일' DJ로 맹활약하고 있는 진정한 라디오 스타로 30여년간 다양한 리메이크 곡과 구하기 힘든 희귀 음악들로 청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 프로그램

- Opening/Let me be there
- 씨시봉 그리고 트윈 폴리오처럼/Cotton fields, Don't forget to remember, 하얀 손수건, 웨딩케익 등
- 영화 속의 Pop/James Bond Theme(영화 'James Bond' 중에서), Summer nights(영화 'Grease' 중에서), Jai Ho(영화 'Slumdog millionaire' 중에서) 등
- 비틀즈/Michelle, Obladi Oblada, Eleanor Rigby, Here, There and Everywhere
- 팝 명곡 모음/Soldier of Fortune(Deep Purple), Somebody to Love(Queen), Hotel California(Eagles)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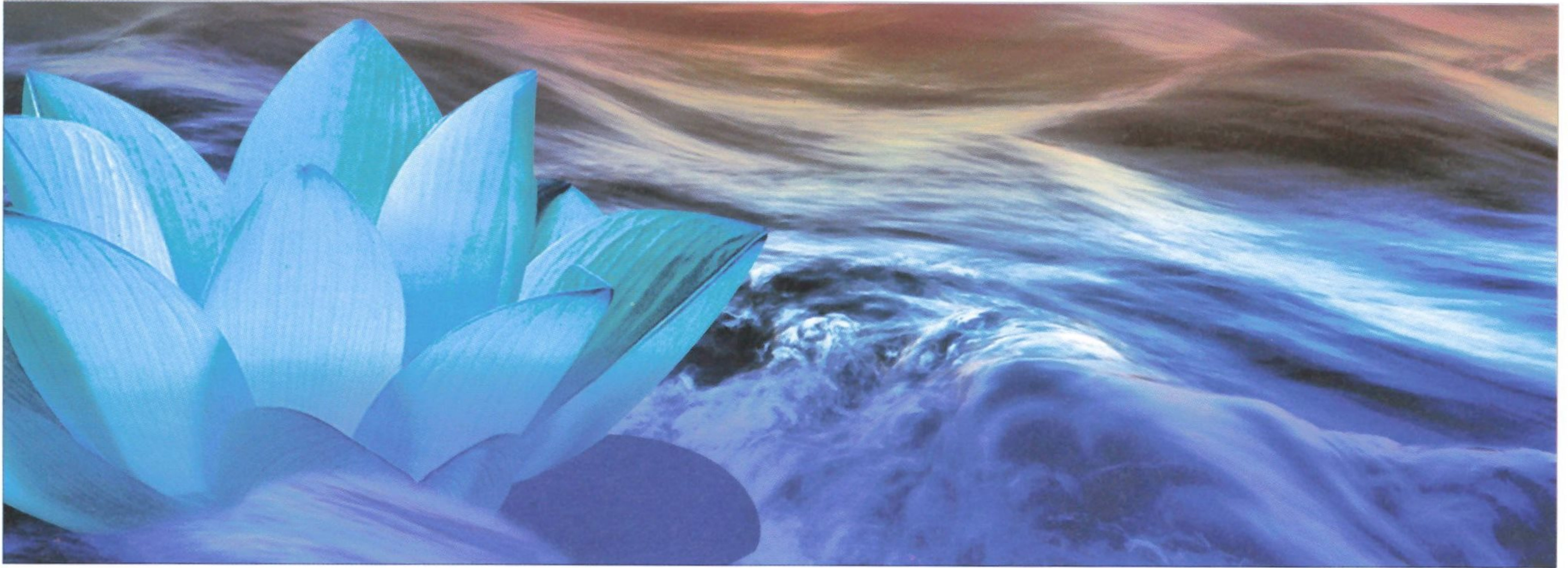
- 입장권 |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부산시립무용단 2011 여름마당춤관

## 춤으로 피어나는 '효녀 심청'

7월 21일-22일 목-금요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수석안무자 홍기태

2003년 '춘향'을 시작으로 매년 여름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를 해학과 신명이 살아있는 마당춤관으로 재구성, 즐거움을 선사해온 부산시립무용단이 '효녀 심청'으로 2011년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효녀 심청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이 그들의 장기인 춤 외에 노래와 연기를 직접 소화하며 무대와 객석을 허무는 해학 넘치는 무대로 한여름 밤 가족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안겨준다.

연출을 맡은 오정국은 앞 못 보는 아버지와 지극한 효심을 가진 딸 심청을 통해 효도의 진정성을 찾으려 함께 참여하는 관객들이 우리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심청'을 각색, 수석연출가 홍기태와 단원들의 열정을 더해 춤으로 피어나는 '효녀 심청'을 탄생시켰다.

전체 작품은 3개의 마당으로 진행된다. 제 1마당은 '풍랑제'. 음

악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깃발과 북을 맨 사람들, 지전을 날리며 등장하는 무용수들이 풍랑제 굿을 벌인다. 제 2마당 '인당수'에서는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빠져드는 내용으로 심청이 뛰어 내리는 순간 파도가 일 듯이 피어난 연꽃으로 무대를 가득 채운다. 제 3마당 '맹인 잔치'에서는 왕비가 된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맹인잔치를 여는 내용이 익살스러운 춤과 음악을 통해 재미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마당 춤관은 관객들이 더 가까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야외무대 내에 공연관람석을 지정, 집중도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 권봉정이 심청으로, 김병주가 심봉사, 김동숙이 곽씨부인, 장래훈이 왕, 김진영이 뽕덕어미, 이성원이 화주승으로 열연한다.

- 안무, 구성/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 각색, 대본, 연출/오정국

- 입장권 | 무료(우천 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합니다)
-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목숨을 건 3가지의 수수께끼에 피어나는 차가운 사랑의 꽃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오페라 '투란도트'**

7월 28일-29일 목-금요일 오후 7:30, 30일 토요일 오후 3:00,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 세계인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푸치니 최고의 오페라 '투란도트'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을 찾아온다.

15세기 중국 북경을 무대로 이국적인 환상과 현실을 교묘하게 섞은 오페라 '투란도트'는 대중과도 친숙한 푸치니(Puccini) 최후의 유작(遺作)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투란도트'는 2008년 북경올림픽을 기념해 제작되었던 오페라 '투란도트' 공연 총감독을 맡았던 지광윤 예술감독이 음악 총감독을, 부산 온누리오페라단 단장이홍길이가 예술 총감독을 맡아 웅장하면서도 감미로운 무대를 열어준다.

'투란도트'는 특히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서 우승한 폴 포츠가 결승전에서 부른 '공주는 잠 못 이루고(Nessun Doma)'를 비롯해 투란도트(Turandot)의 아리아 '옛날 이 궁전에서(In questa reggia)', '첫번째 눈물(Del primo pianto)', 류(Liu)의 아리아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signore ascolta!)', 칼라프(Calaf)의 아리아 '울지마오...류!(Non piangere Liu!)' 등의 아리아가 유명하다.

타타르국의 칼라프 왕자가 얼음처럼 차가운 투란도트 공주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시작된 그들의 운명적인 사랑은 전체 3막으

로 웅장하게 펼쳐진다. 수년전 전쟁으로 나라가 불타고 어머니와 형제들의 죽음 그리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언니를 능욕 후 처참히 죽인 적군들 때문에 남성혐오증을 지닌 투란도트 공주는 결혼을 거부하기 위해 청혼하는 남자들에게 세 가지 수수께끼를 내고 이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는 자에게는 죽음으로 복수해왔다. 공주를 사랑하게 된 칼라프 왕자는 이 무모한 수수께끼에 도전한다. 칼라프는 세 가지 질문에 도전하여 승리를 이루지만 칼라프를 믿지 못하는 투란도트는 칼라프를 의심하지만 칼라프를 사랑하는 류의 진실된 사랑을 깨닫고 극적인 사랑을 이루게 된다.

이번 무대는 소프라노 조영주/윤지영(투란도트), 테너 오경식/김지호(칼라프), 소프라노 정민희/김경희(류), 베이스 김일환/김정대(티무르), 바리톤 변우식/김상호(핑), 테너 손민호/우원석(팡), 테너 안혁주/이승우(풍), 바리톤 고정현(만다리노), 테너 황성학(알톰왕) 등이 '투란도트'의 감동을 전한다.

- 입장권 | VIP석 100,000원 ·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부산문화(1600-1803)





## 정년퇴임하는 부산시립극단 창단멤버 박찬영

부산시립극단 창단과 함께 시립극단 무대를 지켜온 배우 박찬영 씨가 6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noWhere' 로 아쉬운 이별 무대를 가졌다. 그와 함께 울고 웃으며 감동의 순간을 함께 해온 동료 배우, 후배, 관객들이 모두 하나 되어 배우 박찬영의 정년퇴임 무대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배우에게 정년퇴임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죠. 부산시립극단 단원으로 관객들과 아쉬운 이별을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또 다른





연극 페드르에서 테제로 열연한 박찬영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날 것입니다.”

1982년 동아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극 무대에 발을 디딘 박찬영 씨는 1991년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로 부산연극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명 배우다. 부산연극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부산연극계 일꾼으로 봉사하기도 한 그는 부산시립극단 창단운동 때부터 부산시립극단과 인연을 맺어온 부산시립극단의 산증인이자 부산연극계의 산증인이다. 부리부리한 눈과 짙은 눈썹에서 예사롭지 않은 카리스마를 풍기는 그이지만 무대에만 오르면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 시골 농부, 근엄한 왕 등 각양 각색의 인물로 변한다. 그 동안 ‘세일즈맨의 죽음’ ‘리어왕’ ‘페드르’ 등 10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한 박찬영 씨는 영화 ‘지독한 사랑’ ‘페이스’ ‘무방비도시’ ‘친구’ ‘태풍’ ‘남자 태어나다’ 등 다수 작품에서 얼굴을 알려 대중들과도 친숙하다.

배우 박찬영 씨에게 연극적인 감성을 불어넣은 사람은 어머니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국극 공연을 자주 보러 다녔던 그는 중학교 1학년 때 성당에서 우연히 연극을 만났다. 청년부 대학생들이 성탄극으로 ‘예수의 생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다의 배신을 꺼려한 대학생 형들이 막이 오르기 1주일 전까지 유다역을 거부해 연극이 무산위기에 있었다. 먼 발치에서 대학생 형들의 연습을 지켜보던 소년 박찬영이 과감하게 ‘유다’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연극은 성공적으로 막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연극 배우의 꿈을 키워 나갈때 연극적 감성을 불어 넣어준 어머니가 힘든 연극인의 삶을 걱정해 갈등을 겪었다. 대학진학을 앞두고 갈등이 특히 심했는데 대학극회에서 연극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아대학교에 진학, 대학극회에서 연극배우의 꿈을 키웠다. 퇴임무대 ‘noWhere’를 연출한 김지용 씨는 동아대학교 극회에서 마지막 연출을 맡았던 후배로 인연이 깊다.

대학 졸업 후 1년 남짓 직장 생활을 했지만 연극에 대한 꿈을 버릴 수 없었던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용감하게 전업연극인의 길을 택했다. 그러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배우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틈틈이 일을 하기도 했던 그는 시립극단 창단 당시에도 친구의 소개로 안산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시립극단 창단이 더 늦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배우로, 인생의 황금기를 부산시립극단에서 보낸 그는 13년간 ‘리어왕’ ‘물의 진혼곡’ ‘정상의 개들’ ‘페드르’ 등 많은 무대에서 부산 연극애호가들과 만나왔다.

“물의 진혼곡은 실험연극이었는데 2미터가 넘는 수조에 들어가 연기를 해야 하는 힘든 역할이었습니다. 오래전 <리어왕> 공연 때는 공연중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배고픈 연극을 하는 아들의 입장에서 이해와 용기를 주셨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때의 리어왕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무대에 설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연기는 인생을 흥내 내는 역할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맛을 심미적으로 묘사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온 박찬영 씨. 무대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는 시립극단을 떠나더라도 또 다른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만날 계획이다. 요즘은 후배들과 여름을 겨냥한 소극장 연극 ‘열대야’ 연습이 한창이다. 기회가 된다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리어왕에 도전해보고 싶다.

“훌륭한 배우는 물론 주어진 연기를 잘하면 되겠습니다만, 좋은 작품에서 좋은 배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대배우의 연기를 잘 받아주는 배우가 가장 바람직한 배우일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립극단 배우로 행복한 연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만큼 그동안 응원해준 관객들을 위해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배우 박찬영 씨. 새롭게 펼쳐질 그의 무한한 변신이 궁금하다.

# 상선약수 上善若水の 가르침을 따라

정일근 시인, 경남대학교 교수

7월 더위에 '진짜 물소리'를 만나기 위해서 은현리 뒷산인 솔밭산을 넘어갑니다. 그곳,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천성산에 흉룡폭포가 있습니다. 폭포의 높이는 20m, 수직으로 떨어지는 폭포수의 힘이 '흉룡마가 옥일 승천하는 듯하다'는 명품입니다.

물은 흘러서 물입니다. 물은 흐르기 때문에 살아있고, 살아있기에 흐릅니다. 발도 없는 것이, 날개도 없는 것이 스스로 흐르고 흘러서 지구에서 가장 크고 낮은 물그릇인 바다에 담깁니다.

흘러가는 물을 보고 깨우친 사람들이 많습지만 그 중 으뜸이 중국 고대 철학자며, 道家(도가)의 창시자인 老子(노자)입니다. 노자는 젊은 시절 孔子(공자)가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다는 철학자입니다.

노자는 '上善若水(상선약수)'란 명구를 남겼습니다. '상선약수'란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는 말입니다. 2,500년 전 철학자는 물을 최상의 아름다움에 비유한 까닭을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온갖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못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도 가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대저 오로지 다투지 아니하니 허물이 없도다.' (<도덕경>에서)

물의 위대함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목마른 곳에 물을 주면서 물은 사람처럼 뱉내지도 다투지도 않습니다. 다투지 않기에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낮은 곳에 담겨서도 수평을 잃지 않는 것이 물입니다. 노자는 그런 물을 '道(도)'라 했습니다.

노자 철학의 중심은 '無爲自然(무위자연)'입니다. 노자는 유교의 의식은 인간이 만든 '有爲(유위)'이기에 자연의 무위에 비해 위선이며 미망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완성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무위일 때 이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처럼 위대한 완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도 물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의 중국기행문집인 '熱河日記(열하일기)'에서 하룻밤에 요하를 아홉 번을 건너며 얻은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연암은 밤에 강을 건너며 물소리에 놀라 혼비백산하다가 그 모든 소리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야 도(道)를 알았도다. 마음이 어두운 자는 귀와 눈이 누(累)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밝혀져서 병이 되는 것이다.'

연암은 물소리를 빌려 마음의 눈을 가지고 마음의 귀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나도 저 물소리 앞에서 사람을 길을 찾으려 섰습니다. 폭포의 물이 튀어 옷이 다 젖지만 시원함을 넘어 서늘해지는 물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죽비처럼 나를 후려쳐 아프지만 참 편안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를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진 정일근

## 흑백사진 -7월

정일근

내 유년의 7월에는 냇가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솟아오르고 또 그 위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내려와 어린 눈동자 속 터져나갈 듯 가득 차고 찬물들은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담아 씬 없이 흘러갔다.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버리면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은 미루나무 손들을 흔들며 차르르차르르 내 겨드랑에도 간지러운 새잎이 돋고 물 아래까지 헤엄쳐가 누워 바라보는 하늘 위로 비뚤비뚤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 달아나지 마 달아나지 마 미루나무야, 귀에 들어간 물을 뱉으려 햇살에 데워진 둥근 돌을 골라 귀를 가져다 대면 허기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오던 따뜻한 오수,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 위로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의 풍금소리 쌓이고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박 잠이 들었다.



## 우크라이나 자포르지에 시민축제

김영근 \_우크라이나 자포르지에 필하모니 객원수석지휘자

우크라이나 중남부에 위치한 인구 150만 정도의 자포르지에(Zaporozhye)시는 동유럽의 다수 도시가 그러하듯이 별판과 방풍림으로 둘러싸여 있고 도시 중심에 큰 강이 흐르고 있다. 그다지 맑은 날이 별로 없고 한겨울에는 혹독한 추위에 실내에서의 공연이 많다. 2003년 자포르지에에서 우리 동포들인 고려인을 만나면서 이들과의 동족감 때문에 자주 찾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속에 우리 동포가 오래전 5-60년 전부터 살고 있다는 것조차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굳건하게 살고 있는 동포들을 많이 만났다. 구소련 연방에서 자주권을 되찾은 우크라이나는 극도로 양분된 사회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동과 서, 친미-친러시아로 이제는 언어조차도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포르지에시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가 인상적이다. 그다지 역사가 깊지는 않지만 Theart Festival 'Danapris 축제'가 가장 유명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Theart Festival 형식이다. 올해는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Festival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말



로 표현한다면 국제무대 예술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수도 키예프에서 열리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매년 날짜 변동이 좀 있지만 10월 전에 이루어지는데 지난해는 10월 1일에도 열렸다.

Theart Festival 'Danapris' 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으나 Theart Festival 'Danapris'에서는 다양한 연극, 무용, 또 색다른 창작적인 현대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많이 참여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다. 대중적이지 않지만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여 창작의 새로운 지평을 열려고 하는 모습이 대중적인 값어치만 요구하는 우리와 좀 다르다.

자포르지에서 중심부에 위치한 Zaporozhye Theart는 평소에는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등 전반적인 무대 예술을 중점적으로 공연하는 극장이다. 자포르지에시에는 Concert 만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Glinka Philharmonie 극장도 있다.

Theart Festival 'Danapris' 외에 Zaporozhye 시 Festival도 인기가 많다. Zaporozhye 시의 시민 Festival은 한도시의 축제이다. 전 시민이 참여하고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모든 팀이 참여 하는 도시 축전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 시작하여 1주일 정도 열리는 이 축제는 이 도시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드네프로 강 주변의 중앙부의 큰 광장과 강가 주변의 도로에 온 시민이 나와서 이 축제에 참여하고 축제의 주체도 되기도 하기도 한다.

첫날 오픈닝에는 수많은 단체가 참여해 6시간 정도 노래하고 춤추고 마시고 먹고 난리 법석이다. 이틈에 정치가들은 자기 얼굴을 알리려고 온갖 품을 잡고 시민들과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눈다. 이 축제에 여러 번 참가한 탓에 주최 측에서 항상 귀빈석에 나의 자리를

마련해 놓지만 정치하는 사람의 인사가 너무 길어 앉아 있기가 지루해 잘 앉지 않는다. 나는 주변에서 참가하는 단체의 사람들을 소개 받고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좋다.

2010년 10월 8일 연주를 마치고 다음날 축제장에 갔다. 평소와 다르게 이날은 무척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 반신반의 했다. 막상 축제장 입구에 들어와 보니 입구부터 수많은 인파에 놀라고 어마어마한 준비에 놀랐다.

2010년 10월 30일 자포르지에시의 시장 선거가 있어 예년보다 정치꾼들이 더 법석을 떨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민 도시 축전은 정치꾼들이 난무했다.

코자크 복장을 하고 변발을 한 코작족. 옆에는 쿠르드족, 카자흐 탄족 자국의 민속의상을 입고 자신들이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준비한 청소년 무용단, 합창단, 청년단체, 노인 단체, 여성단체 모두 이 무대에 오르려고 열심히 연습했다.

코자크족 무리로 갔더니 오래전 부터 알고 지내던 코자크족 한 친구가 나를 알아보고 '헤이 킴' 한다. 날씨가 추운 관계로 따로 마련된 천막 대기실 안으로 나를 데리고 가더니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한다. 그리고 당연히 필수적인 세레모니로 나에게 보드카를 권한다. 축제날에 아니 마실 수가 있나. 한 잔 들이키고 나오니 이번에는 이날에 결혼하는 여러 쌍의 신랑신부가 하얀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이 추운 날에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어디서인가 맛있는 냄새가 나서 그 곳으로 향했다. 아 러시아, 아니 동유럽 사람들이 즐겨 먹는 구이 음식 사쉬릭 냄새였다. 나는 사쉬릭의 유혹을 떨칠 수 없어 사쉬릭을 굽고 있는 곳으로 갔다. 잘 마른 참나무를 태워 숯 위에 고기들과 소시지들이 맛있게 구어지고 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한 꼬치를 먹었다. 한 잔의 보드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야단법석을 떨고 이 곳 저 곳 음악소리와 아름다운 우크라이나 처녀들이 민속의상을 입고 춤을 춘다.

코자크족들은 다이내믹한 민속무용으로 모든 이들에게 흥겨움을 준다. 이것이야 말로 축제 아닌가? 너무 고급스런 축제와 비





자국의 민속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있는 공연팀



자포르지네 시민축제에서는 결혼식도 열린다.



자포르지네 시민축제에서 만난 리코라이 염과 필자

교 해보면 소박하고 따뜻한 인간미가 물신 풍기는 토속적인 축제이지만 이들의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그런데 누가 내 어깨를 안으며 '킴' 하고 부르길래 바라보니 리코라이 염 아저씨다. 처음에 축제장에 놀러온 줄 알았는데 나에게 명함을 한 장 준다. 명함의 주인공은 자주 만났던 부시장 신 알렉산더 천산이다. 고려인 3세인 알렉산더 천산이 자포르지네 시장 후보로 나섰던 것이다.

'아 염씨 아저씨가 오늘 축제장에 와서 시장 선거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 축제가 끝난 후 10월 30일 우리 동포 신 알렉산더 천산이 자포르지네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자포르지네시에는 고려인이 1천여명 살고 있는데 당시 현지인들의 반감을 우려해 '일 잘하는 사람을 시청으로'란 구호가 적힌 명함만 돌렸을 뿐 크게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속적이고 토속적인 자포르지네시 Festival은 이태리나 독일과 다를 바 없지만 주민들의 참여도는 너무나 열성적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모든 시민으로부터 시작된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그곳의 축제가 정말 기다려진다.

# 브래스트 오프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영화 '브래스트 오프'는 탄광 마을의 구성원들이 폐광과 그로 인한 공동체 붕괴를 탄광의 브라스밴드 '그림리밴드'를 통해 표현한 영화이다.

1992년 영국의 대표적 공업도시인 요크셔의 한 탄광마을. 이 마을은 영국 정부의 신에너지정책에 의해 암담하고 절망적인 폐광과 그로인한 공동체의 붕괴를 맞이할 상황에 처해 있다. 영화는 탄광마을의 구성원들이 머리 뚜껑이 열리다 못해 폭발할 지경-이 영화의 제목 '브래스트 오프'의 뜻이기도 하다-에 내몰린 상황을 탄광의 브라스밴드에 속한 인물들 통해 표현한다. 조상대대로 탄광을 지키며 살아온 광부라는 노동계급으로서의 자존심과 전통 깊은 탄광 브라스밴드인 '그림리밴드'의 지휘자라는 자부심으로 강건한 삶을 지탱하고 있는 대니와 그의 아들들인 필립과 앤디, 그리고 어느 날 고향을 갑작스레 떠났다가 폐광 직전 돌아온 앤디의 어린 시절 연인 글로리아 등이 펼치는 드라마이다.

보수당 정권의 폐광정책에 의해 마을의 해체를 목전에 두었지만 탄광촌의 사람들은 '그림리밴드'의 전국브라스밴드대회 우승에 희망을 건다. 그 희망이란 다름 아닌 런던의 로열 알버트 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자신들에게 닥친 이 암담한 상황을 대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밴드의 기둥인 지휘자 대니가 진폐증으로 쓰러지고 게다가 자신들의 일원이라고 믿었던 글로리아가 실은 마을에 대한 경제성을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해 영국광산협회에서 파견한 조사원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위기를 맞이한다.

대니의 아들인 앤디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자신들을 재정비한 후 진실에 눈을 뜬 글로리아의 도움을 받아

결국 전국대회의 정상에 오른다. 그러나 지휘자 대니는 시상식장에서 트로피와 상금을 거부하고 대신에 성실함과 근면함만을 믿으며 살아온 광부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통렬하게 부르짖는다.

하지만 영화는 결코 비현실적인 해피엔딩으로 영화를 보는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리 브라스밴드를 정상에 올려





경쾌한 브라스밴드의 선율에 맞춰 발을 구르고 있노라면 영화 내내 진행되던 우울한 삶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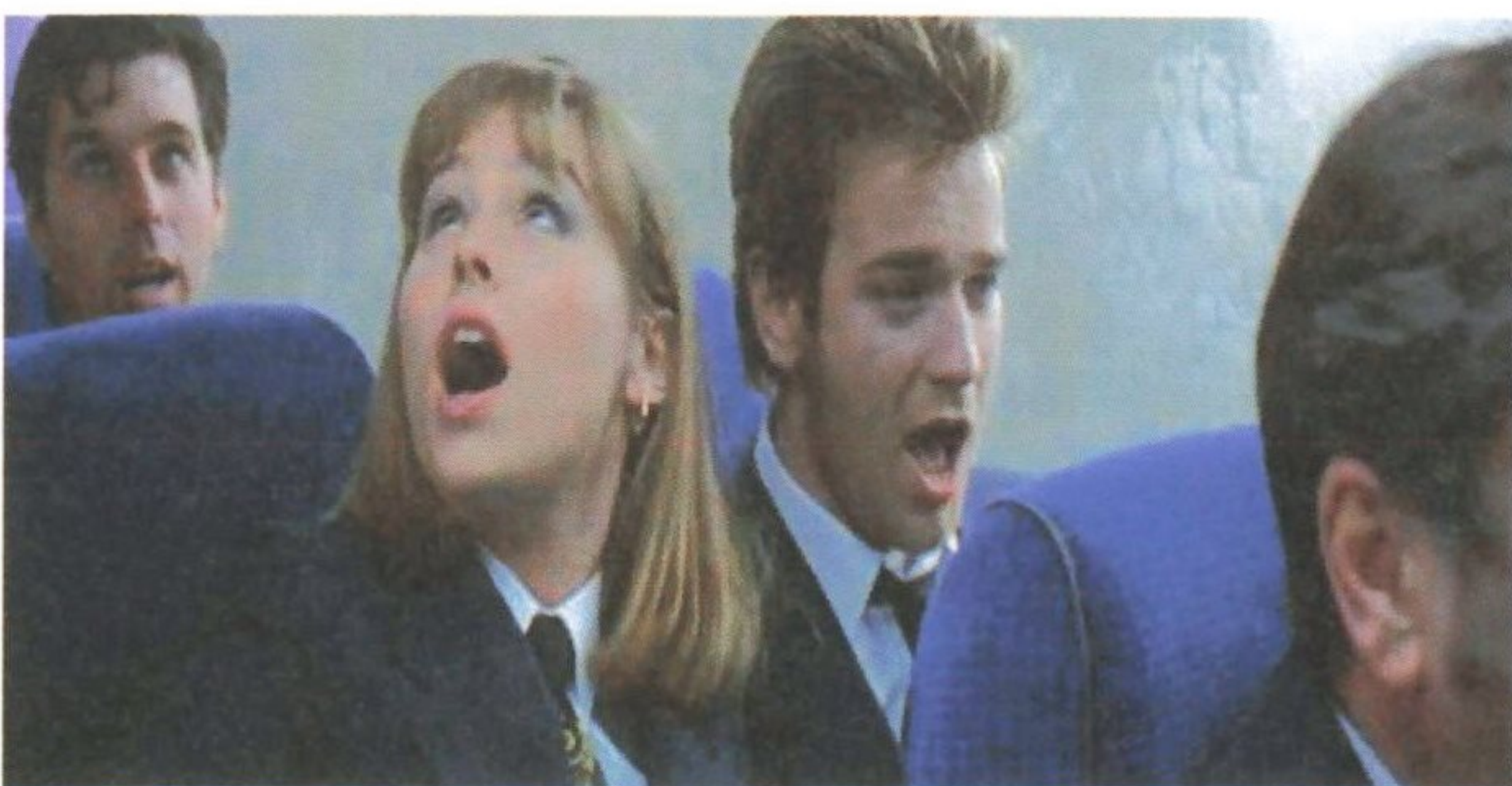
놓아도, 혹은 오해와 불신을 떨쳐내고 화해를 통한 관계를 회복했다 해도 결국 마을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삶의 강박함을 견디며 뿔뿔이 흩어져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담담하게 보여주며 영화는 마무리된다.

영화의 각본과 감독을 맡은 감독 '마크 허만'은 자신이 나고 자란 영국 요크셔의 노동계급 공동체가 처한 현실과 그로 인해 생겨난 정서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와 인물을 통해 묘사함으로써 호소력 짙은 대중영화를 완성했다. 또한 이 영화를 통해 당시 스타로 급부상한 '이완 맥그리거'는 같은 해에 '대니 보일' 감독의 '트레인 스포팅'의 주연을 맡으면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영국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브라스밴드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이니만큼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악이다. 물론 이 영화의 주제가 음악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음악 또는 예술이 진정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더불어 이 영화를 통해 관악합주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흔히 금빛의 소리라 하는 관악기의 화려하고 시원한 음색, 경쾌한 행진곡들의 리듬들은 영화의 무거운 주제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클래식음악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 '아랑훼즈 협주곡'은 모 방송국 영화프로그램의 오프닝음악으로 많이 알려진 곡이다. 글로리아가 연습실에 찾아와 입단을 신청하며 테스트로 연주한 이 '아랑훼즈 협주곡'은 원래 잉글리시 혼으로 연주하게 되어 있으나 영화에서는 플뤼겔호른으로 연주한다. 로드리고의 이 곡은 기타협주곡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작품으로 스페인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독일에서 유학하던 중 작곡된 곡이다. 전형적인 협주곡의 형식으로 특히 이 영화에서 연주된 2악장은 너무도 유명하여 성악곡 또는 다른 악기로 편곡되어 연주되고 있다.

이 영화의 음악 중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로열 앨버트 홀에서 열린 경연대회에서 그림리밴드가 연주하던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이다. 경쾌한 브라스밴드의 선율에 맞춰 발을 구르고 있노라면 영화 내내 진행되던 우울한 삶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하다. 탄광 폐쇄라는 우울한 주제와 브라스밴드의 유쾌한 음악의 혼합은 영화에 독특한 매력을 불어 넣는다.





로마 시절 이후  
좌절·상심·슬픔 그리고 평화

황인하 한국리스트협회 회장

1860년 비트겐슈타인 부인과 바이마르를 떠나게 될 때의 리스트에게는 많은 상심과 좌절이 계속되던 시기였다. 당시 브람스 등 리스트의 반대파들에 의한 리스트의 음악작품의 가치를 폄훼하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고, 바이마르공국에서는 그간의 찬란했던 리스트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구 관료들에 의해 리스트의 음악 활동에 방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리스트에 의해 초빙되었던 궁정극장 감독은 대공의 신임을 얻고 점차 반대파들과 함께 리스트의 활동을 제약하고 방해하게 된다. 결국 리스트는 바이마르에서 더 이상 자신의 음악적 꿈이 계속 실현되기 어려움을 느끼고 공국의 음악책임자 직을 사임했다. 바이마르에서 비트겐슈타인 부인은 리스트와의 비합법적인 관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공식석상에서 용인받지 못하는 등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리스트의 반대파들은 부인을 희생양 삼아 심하게 공격했다. 당시에는 리스트가 12년간 지내왔던 바이마르를 떠날 생각을 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던 시기였다. 1861년 5월에는 파리에서 1개월 동안 딸 블랑딘의 집에서 체류하며 많은 음악인들을 만나고 당시 나폴레옹 3세 황제로부터도 초대 받아 궁정에서 연주를 하였다. 황제는 그에게 레지옹드뇌르 훈장을 수여했다. 8월 초에는 바이마르에서 1860년 라이프찌히 집회에 이어 계획되어 있던 2회 독일 음악인들의 집회(Tonkünstler Versammlung)가 열렸다. 이 모임은 나중에 '전독일 음악 연맹(Allgemeiner Deutscher Musick-verein)'으로 발전한다. 이 행사를 마지막으로 8월 12일 리스트는 12년간 그의 예술 활동의 무대이며 보금자리였던 알텐부르크의 저택을 닫고 바이마르를 떠난다.

1848년 비트겐슈타인 부인이 러시아를 떠나오기 전 페테르스부르크의 모힐로브 지방교회 법원에 혼인 무효를 청원했다. 그 후 간단치 않은 과정을 거쳐 수년 후에 이에 대해 청원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결이 났으나 두 차례나 최종 단계에서 유보된 상태로 있었다. 1860년 이미 부인의 전 남편이 개신교에서 이혼을 인정받고 재혼까지 한 상황에서 부인은 다시 로마 가톨릭교회에 재심을 청구하게 된다. 이번에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국 교황이 추기경회의를 거쳐 페테르스부르크의 교회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승인하였다. 여기에도 이의 효력에 대하여 이견이 있자 다시 한 번 1861년 2월 추기경회의에서 그 판결이 유효함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로서 비트겐슈타인 부인과 리스트의 숙원이었던 합법적인 결혼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때 그들이 곧 바로 지방 작은 교회에서라도 소박하게나마 결혼식을 하여 법적 절차를 마쳤더라면 그들의 합법적인 결합이 성사되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트겐슈타인 부인과 리스트는 이 낭보에 서로 축하하고 환호하였지만 당장 결혼하는 대신 리스트가 가을에 로마에 도착하면 리스트의 생일에 맞추어 많은 축복 속에서 결혼하기로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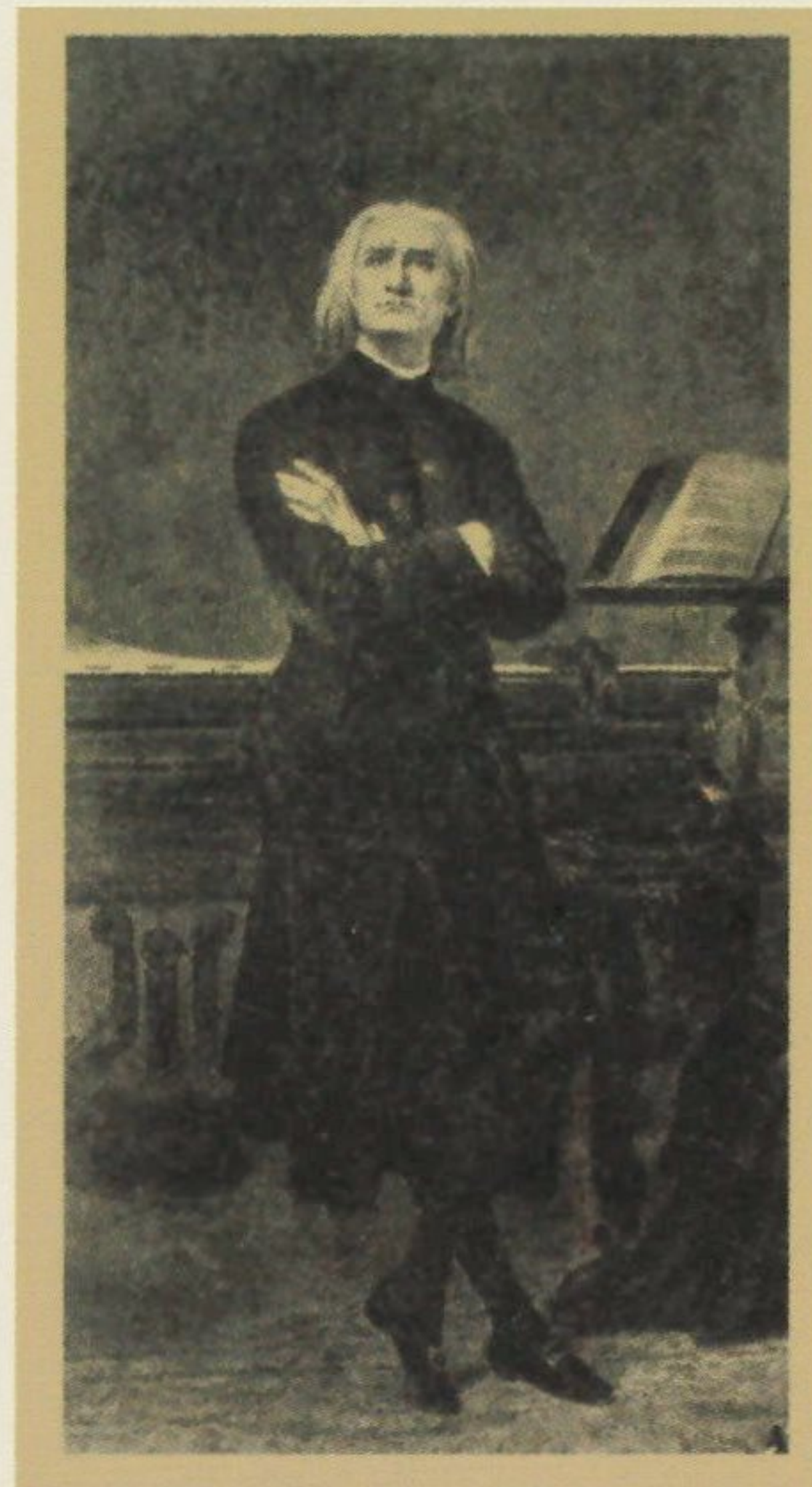
1861년 리스트의 생일이며 결혼식 예정 날짜인 10월 22일 전날까지 이들 예비부부는 교회 신부 앞에서 결혼에 필요한 종교적인 절차까지 마치고 결혼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결혼 허가가 보류된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 결혼의 무효 판결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결혼 허가가 잠시 보류된다는 의미였으나 사실상 그들의 결혼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는 비트겐슈타인 부인의 전 혼인의 무효와 리스트와의 새로운 결혼으로 이해관계가 갈리는 반대 측의 집요한 공작이나 반대 청원 때문이었다. 당시의 사회제도 문화 속에서는 합법적인 결혼과 합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혼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 두 사람은 너무나 큰 상심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결국 두 사람은 일단 결혼을 단념하고 로마의 서로 다른 거처에서 은둔 생활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부부나 연인이 될 수는 없었지만 각자 로마의 다른 거처에 살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죽을 때까지 정신적 동반자관계를 계속한다. 1862년에는 첫째 딸 블랑딘이 26세에 사망하여 큰 슬픔을 더하였다. 좌절과 상심, 슬픔에 잠긴 리스트는 로마의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점차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동경해 왔던 수도사의 삶에서 안식을 추구하고자 한다. 1863년 마돈나 델 로사리오(the Madonna del Rosario) 수도원에 입문하여 수도사의 생활을 하며 종교 음악을 연주하고 작곡하였다. 비트겐슈타인 부인도 로마의 다른 거주지에서 은둔하며 독서와 종교적인 생활을 하며 지낸다. 수년 후 1864년 비트겐슈타인 부인의 전 남편이 타계하여 이들 두 사람의 합법적인 결합을 가로막는 장애가 완벽히 없어졌으나 이들은 이때 더 이상 자신들의 결혼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리스트는 1865년에는 하급신부 서품을 받게 되고 1879년에는 알바노성당의 명예 수사신부가 된다.

이 시기에 리스트는 ‘크리스투스(Christus)’, ‘성 엘리자베스의 전설(Die legende von der heiligen Elisabeth)’ 두 장대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고 그레고리안 주제에 의한 ‘미사 코랄리스(Missa choralis)’ 등 많은 종교 작품을 작곡한다. 특히 예수의 생애를 주제로 한 오라토리오 ‘크리스투스’는 리스트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으로 1853년부터 구상하여 전 12곡을 1866년에 완성했으나 다시 2곡을 추가, 전 14곡을 1868년에 완성한 장대한 걸작이다. 이 시기에 리스트의 음악은 종교적이고 12음계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데 1877년 리스트가 로마 근교 티볼리의 에스테 별장에 머물며 작곡한 피아노 독주곡 ‘에스테장의 분수’는 성경의 구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요한복음)’과 에스테장 정원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수많은 분수 정경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으로 끊임없는 전조와 온음계적 또는 반음계적 화성 사용으로 모호한 조성 등 20세기 음악을 예견케 하는 많은 실험적 화성 사용으로 라벨을 비롯한 프랑스 인상파음악 작곡가들과 20세기의 거의 모든 작곡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품이다.

1869년에는 바이마르 대공의 초청을 받고 9년 만에 다시 바이마르를 방문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각처에서 수많은 음악인들이 바이마르에 몰려와 그간 조용하던 바이마르는 다시 활발한 음악도시가 된다. 리스트로서도 로마의 종교적이고 침잠된 분위기 속에서만 지내다 바이마르에서 많은 음악인들을 만나고 지인들과 자주 음악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자극과 활력을 받는다. 리스트는 대공이 마련해 준 바이마르 시내의 호프게르트네라이(궁정 정원사 저택)에서 머물며 음악활동을 하였다. 리스트는 일요일마다 ‘낮 음악회(matinee)’를

개최하였는데 많은 음악인들이 여기에 초대되어 연주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고 리스트 자신도 가끔 연주하였다. 대공도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참석하였고 점점 수많은 음악인들과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모여들었다. 리스트는 그에게 배우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학생들을 위해 1주일에 3회의 음악회를 열게 되었고 이것이 마스터클래스라는 형태의 교습으로 발전하였다. 음악실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악보를 쌓아놓고



기다고 있으면 사제복을 입은 리스트가 인사를 하며 들어온다. 리스트가 쌓여있는 악보들을 들춰보며 곡들을 하나씩 지정하면 그 악보를 낸 학생이 나와 리스트 앞에서 연주를 하며 공개수업을 받았다. 리스트는 옆에 마련된 피아노에 앉아 가르치며 때때로 연주를 들려주기도 하였다. 이 시간은 리스트의 음악 해석과 실연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많은 학생들은 그곳에서 리스트로부터 큰 영감을 받았고 그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음악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된 느낌이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리스트는 지엽적인 기교보다는 음악 해석에 더 중점을 두고 가르쳤다고 한다. 이 마스터클래스에는 바하, 모차르트, 베토벤, 멘델스존, 슈만, 쇼팽, 브람스 등의 다양한 음악이 올려졌다. 작은 도시 바이마르는 이제 음악도들로 넘쳐나고 도처에서 피아노 연습소리가 들려 주민들의 불평이 제기될 정도였다. 급기야 의회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만 창문을 닫고 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칙을 만들게 되면서 벌금 징수원들이 단속하러 다닐 정도였다. 당시 학생들이 벌금 징수원들이 지날 때 한잔의 꼬냑 등을 대접하며 단속을 무마했다는 일화도 있다.

1870년 5월에는 바이마르에서 ‘베토벤 탄생 100주년 페스티벌’을 수많은 음악가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치른다. 1871년부터는 헝가리 왕실고문으로도 임명되어 1840년 그가 설립에 기여한 부다페스트 음악원에서 가르치게 되고 이때부터 리스트는 생을 마칠 때까지 로마, 바이마르, 부다페스트 3곳을 순회하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끊임없는 탐구심으로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였다.

# 물오른 수양버들 아래서 꾀꼬리 소리를 듣다

변광석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김홍도의 풍속화는 주로 서민들의 일하는 장면이나 양반들의 익살을 소재로 삼은 생활풍속 작품이 많다. 그런데 40대부터는 지방에서 벼슬살이를 경험하면서 그의 풍속화에 사대부 취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림을 보면 이전까지의 아주 리얼한 사실성보다는 운치있는 서정성을 많이 느끼게 된다. 그 이유는 김홍도가 사대부의 풍류와 의식을 가지기 시작했고 예술적으로 더욱 원숙해졌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래서 문인들의 우아한 모임이나 서정적인 산수를 묘사한 그림이 많이 등장한다.

그 중에 <마상청앵(馬上聽鶯: 말위에서 꾀꼬리 소리를 듣다)>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작품이 있다.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자. 때는 만화방창(萬化方暢) 봄날이다. 우아한 선비가 나귀를 타고 나들이 하다가 수양버들 가지에서 암수 꾀꼬리가 노래하는 소리에 나귀를 멈추고 쳐다보는 장면이다. 고요한 들길을 지나는데 봄날의 정적을 깨는 순간이다. 그림 구도는 대각선으로 분할하여 오른쪽 아래의 절반에만 화면을 채우고, 나머지 절반은 담색(淡色)의 여백으로 처리하여 은은한 느낌을 부여했다. 꾀꼬리 소리에 선비는 고개를 치켜

들어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 파릇파릇 한창 물오른 수양버들에 앉은 꾀꼬리와 나귀 위에 앉아 부채를 든 늙은 선비를 대비시켜 놓은게 마치 김홍도 자신인 양 싶다. 제화시(題畫詩)는 이렇다.

꽃 아래 아름다운 여인이 천가지 소리로 생황을 불고 운치있는 선비는 술잔 앞에 감귤 두 개 놓았네.

(佳人花底簧千舌)(韻士樽前柑一雙)

금빛 북이 물가의 수양버들 사이를 분주히 오고 가더니 안개와 비를 불러와서 봄 강을 짚구나.

(歷亂金梭楊柳崖)(惹烟和雨織春江)

-기성유수고송관도인 이문욱증(碁聲流水古松館道人李文郁證) 단원사(檀園寫)-



김홍도 '마상청앵 1'



'마상청앵 1' 세부도

제화에서는 생황을 부는 미인과 금빛의 베틀북을 버들 가지에서 노래하는 금빛 꾀꼬리에 비유해 놓았다. 흔히 꾀꼬리는 황조(黃鳥), 황앵(黃鶯), 황리(黃鸝), 양류앵(楊柳鶯), 녹양앵(綠楊鶯) 또는 금의공자(金衣公子)라 불렀고, 봄날의 춘정(春情)을 상징하며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녀석이었다. '푸른 버들의 꾀꼬리 소리가 애를 태운다(綠楊鶯語太傷神)' 거나 또는 '꾀꼬리 한 소리에 봄빛은 다 간다(黃鳥一聲春色盡)' 라고 문선현들은 노래했다. 고운 비단 짜듯이 봄 강을 촉촉하게 짜놓은 버들과 노래하는 꾀꼬리의 정경은 그렇게 아늑할 수가 없다. 김홍도의 그림을 옆에서 감상하고 나서 이인문(李寅文: 1745~1821, 자:문욱(文郁), 호:유춘(有春) 또는 유수고송관도인(流水古松館道人))이 직접 제화시를 써주었다. 그는 김홍도와 동갑내기 화원으로서 아주 절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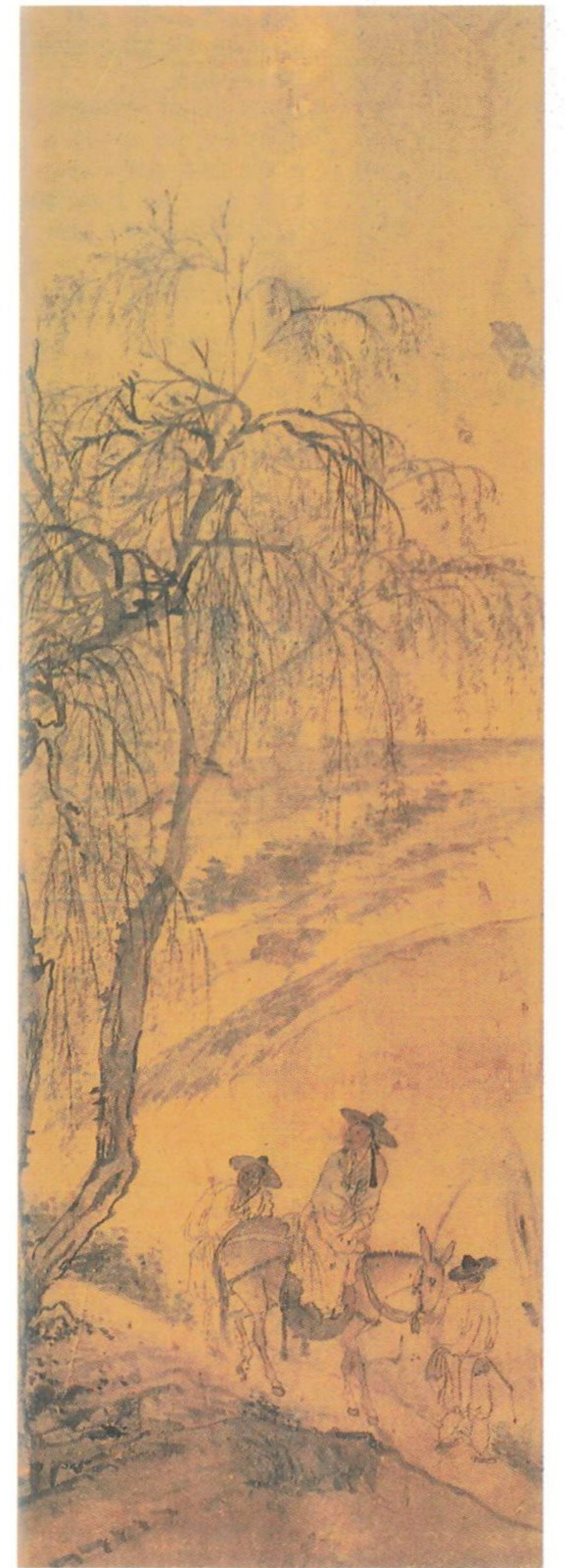
사이였고 산수·화초·영모(翎毛) 등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였다. 평소 이들은 <송석원시회도(松石園詩會圖)><수하모옥도(樹下茅屋圖)> 등의 작품을 김홍도의 집에서 함께 그리기도 하고, 서로의 작품을 자주 감상하고는 꼭 그림 속에서 자신의 관증기(觀證記)를 써서 우아한 멋을 공유하였다. 때로는 김응환(金應煥) 등 선배 화원의 집을 함께 방문하여 특히 산수화에 능한 그의 작품을 감상하고 찬평(讚評)을 해주는 인정미도 잊지 않았다. 그림을 유심히 보고 있노라면 화격이 제법 높아서 그의 작품 중에서도 서정미가 매우 뛰어난 수작임을 알 수 있다. 사대부들이 즐겨 그리는 문인화풍을 느끼게 할 정도다. 김홍도가 48세부터 51세까지 충청도 연풍현감(延豐縣監:1791.12.22~1795.1.7)을 지내고 호서위유사(湖西慰諭使) 홍대협(洪大協)에 의해 탄핵을 받아 파직된 이후에 그린 것이다. 그는 이보다 앞서 40세 때 경상도 안기찰방(安奇察訪)으로 부임했는데, 그 해 겨울 자신을 찾아온 창해(滄海)정란(鄭瀾)을 위해 <단원도(檀園圖)>를 그려준 적이 있었다.(4월호 참조). <단원도>는 선비다운 풍류를 느끼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

그리고는 10년 지난 뒤 비록 자그마한 시골 고을이지만 현감직을 역임했으니, 당시 그에게는 사대부가 아닌 중인층 신분으로서 파격적인 대우가 아닐 수 없었다. 물론 정조의 특별한 배려 덕분이었다. 고을 수령을 지내면서 관내 인근 양반사대부들과 자주 교류하면서 선비의 풍류가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있었다. 게다가 당시 김홍도의 천재적 신필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한양 시내와 근교에도 많았다. 여향문인들만 아니라 사대부 양반들도 많았으니 웬만하면 자신들 집에 김홍도의 그림 한두 점은 소장하고 있었다.

한편 서로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마상청앵> 작품이 하나 더 있다. 그의 풍속도 8첩병풍의 하나다. 파직된 그 해 9월에 그렸다. 나그네가 지나가다 수양버들에 앉아 노래하는 꾀꼬리를 쳐다보는 것은 똑같은 모티브로 그렸지만, 진행하는 방향으로 보아 그림의 구도가 서로 정반대다. 앞의 그림은 간결, 담박하면서 배경을 아스라한 담색 여백으로 처리한 게 멋있고, 또한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다. 하지만 뒤의 그림은 웬지 꾀꼬리가 노는 버드나무가 복잡하게 늘려 있다. 비탈길 아래로 전원이 펼쳐진 배경이다. 앞에서 말구종이 채찍을 쥐채 나귀를 세웠고 뒤에는 행리를 짊어진 하인이 엉거주춤 서있다.

꾀꼬리 소리를 듣고는 있지만, 버들가지가 무성하면서도 조금 번잡해 보이는 느낌이 마치 지나가는 주인공의 착잡한 마음을 표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마 연풍현감 자리를 파직당하고 귀경길에 들어서서 자신의 모습인 것 같다. 이에 비해 앞의 작품은 자연 속에 펼쳐지는 일상의 한 장면으로서 선비의 아취(雅趣)가 잘 나타나 있다. 한마디로 자연과 인간의 우아한 교감이다. 벼슬살이에서 물러난 후 마음이 자연스럽게 평정해졌고, 해도 바뀌어 꾀꼬리 노래하는 5월이 되자 그 마음을 화쪽에 옮긴 것일 게다. 마침 절친한 벗 이인문이 찾아와 한쪽 치도록 권하는 차에 잠시 자유롭게 붓이 노닐더니 그림이 완성된 것 아닐까. 독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시중유화 화중유시(詩中有畫 畫中有詩)’라는 말이 있다.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은 남종화(南宗畫)의 시조로 불리는 당나라 시인이자 화가인 왕유(王維:701~761)의 그림과 시를 보고 적벽부로 유명한 북송시인 소동파(蘇東坡:1036~1101)가 평론했던 명구다. 그러니까 그림은 소리없는 시요, 시는 모양없는 그림이라고 했던가. 이런 함의를 당시 문인들은 이미 선언했다. 즉 그림에서 시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마상청앵> 작품 속에도 한 편의 멋진 시가 깃들여 있고 “뻗뻗비 뻗뻗비비!” 꾀꼬리 소리도 들어있다. 옛부터 선비는 시서화(詩書畫) 세가지 재주를 다 지녀야 제격이었다. 이를 삼절(三絶)이라 한다. 김홍도 역시 삼절이 아니던가.



김홍도 '마상청앵 2'



교과서 속 과학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과학관

2013년 국립부산과학관 개관으로 부산은 ‘과학문화도시 부산’의 꿈과 미래를 향해 성큼 한발을 내딛었다. 아직까지는 부산지역의 과학관 시설이 열악하다고 하나 부산에도 주위를 돌아보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과학관이 여러 곳 있다.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과학관, 부산광역시어린이회관 전시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수산과학관, LG사이언스홀 부산 등이 바로 그 곳.

그중에서도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과학관(이하 과학교육원 과학관)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하면서도 알찬 전시로 청소년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987년 부산학생과학관으로 개관, 2003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꾼 과학교육원 과학관은 크게 상설전시관과 천체과학실, 해양과학실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과학관답게 교과서에 등장하는 과학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이 구비되어 있다.

1층 상설전시관에 입장하면 미래과학실을 시작으로 기초과학 I 실과 전기에너지실, 우주과학실, 화석·광물실, 기초과학 II실, 생명과학실, 지구·환경실 등 8곳의 상설전시관을 순서대로 돌아볼 수 있다. 미래과학실에 설치된 3차원 입체영상 시뮬레이터인 미래탐험선에 탑승하면 3차원 입체영상과 함께 움직이는 모션베이스를 통해 현실감 넘치는 가상현실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컴퓨터를 통해 로봇을 조정, 직접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 화단을 가꾸는 ‘로봇가든’과 로봇강아지, 자기부상열차, 비행기 시뮬레이터 등 최첨단 과학기술로 가득한 미래과학실과 우주비행사의 무중력훈련, 우주선 내에서의 우주인생활, 화성탐사 로봇 등 우주과학의 현재와 미래를 담은 우주과학실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과학관 입구에 들어서면 전시관별로 체험학습 자료를 비치하고 있어 참가 학생들이 실제로 과학원리를 체험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과학실 역시 인기가 많은데 천체과학실은 천체의 모습을 마치 지상에서 보는 것처럼 반구형의 스크린



부산시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과학관답게 교과서에 등장하는 과학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이 구비되어 있는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과학관

에 보여주는 천체투영실과 직경 6m 돔 내부에 8인치 쿠데식 굴절망원경을 갖추고 태양계와 행성, 성운, 성단 등을 관측하고 촬영할 수 있는 천체관측실로 구성되어 있다. 천체투영실은 오전 11시와 오후 3시 하루에 두 번 관람이 가능하다.

해양도시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해양과학실도 과학교육원 과학관의 자랑. 다양한 해양전시 교육자료와 교육과정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배의 작동원리에서부터 모형선박 체험, 어류의 생태적 특성에 따른 주요 어구 및 어법에 대한 실물 모형 전시, 미래의 해양연구 등 8개 코너 198점의 해양과학자료가 전시되고 있다. 원형수조와 사각수조로 구성된 해양수족실은 연안해수어류에서부터 해수 열대어류, 무척추동물, 담수열대어류, 낙동강민물어류 등 어류별로 전시되고 있어 관람객의 시선을 끈다. 최근에는 해양수족실을 리모델링해 한국산 토종 바다 물고기 파노라마, 열대 산호초의 세계, 교과서 생물 탐구 등 8개의 학습테마별 수족관으로 새롭게 조성, 해양생물의 자연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강의실을 조성, 교육기능을 강화했다.

이밖에 야외공간에는 우리나라가 만든 세계적인 과학발명품인 침성대, 물시계, 해시계, 측우기 등 전통과학 문화재와 암석원, 야생초와 야생화, 우리 전통 농작물 등 주제별로 꾸며진 자연학습원을 갖추고 있다.

과학교육원 과학관은 이런 알찬 구성때문에 교육에 관심있는 학부모들에게는 필수 방문코스로 인기가 높다. 지난해 과학교육원 과학관을 다녀간 관람자 수만도 10만 5천여명. 지난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열렸던 '별 축제(Star Festival)' 하루 동안에는 학생과 교사, 시민 1,300여명이 이 곳을 찾았다.

과학교육원 과학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역시 인기가 높다.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동산과 과학탐구교실,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녹색성장교실과 찾아가는 환경교실, 가족체험 환경교실, 실험과 체험중심의 해양탐구교실, 발명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과학발명교실 등이 상설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 이어 9월부터 가족단위의 과학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녹색가족체험교실과 녹색과학문화교실을 운영한다. 여름방학기간인 8월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해양교실, 발명교실, 천체교실 등 다양한 과학체험 활동이 열린다. 과학교육원 과학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생활 속 과학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5:30(동절기 11월~2월은 오후 4:30까지 관람가능)
- 문 의 |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750-1217, 753-9853~5, [www.bise.go.kr/science](http://www.bise.go.kr/science))





일본 간사이 하모니카연맹 회원과 함께한 하모니카 동호회 '화음정'

하모니카 음악속에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 하모니카 동호회 화음정(和音情)

6월 18일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는 일본 간사이 하모니카연맹 회원들의 작지만 의미있는 무대가 펼쳐졌다. 1979년 결성된 간사이 하모니카연맹은 효고, 오사카, 교토, 나라, 오오츠 등 간사이 지역을 기반으로, 현재 연맹에 소속된 회원만 2,000여명이 넘는 동호회로 매년 간사이 각 지역을 돌며 간사이 하모니카 축제를 열고 있다.

3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간사이 하모니카연맹이 한국 무대에 서기는 이번이 처음. 한·일 양국의 하모니카 교류가 있기 까지에는 하모니카 동호회 '화음정(和音情)'의 역할이 컸다. 이날 간사이 하모니카연맹 회원 27명과 함께 무대에 섰던 '화음정' 회원들은 '하모니카'라는 작은 악기를 통해 국적과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되는 자리를 만들면서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지난 2009년 4월 결성된 '화음정'은 부산,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하모니카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하모니카 동호회이다. 현재 5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화음정은 매월 한차례 부산과 창원을 오가며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하모니카 음악속에 함께 어우러져 따뜻한 정을 나눈다'라는 뜻처럼 '화음정(和音情)'은 하모니카 연주를 통한 음악봉사활동에 열심이다.

'화음정' 결성에는 하모니카 연주자 김병섭 씨의 역할이 컸다. 성악을 전공했던 김병섭 씨가 하모니카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0여년 전, 우연한 기회에 후배의 권유로 하모니카를 접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취미로 시작했던 하모니카를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데는 우연히 보게된 인터넷 동영상 한 몫을 했다. 2006년 당시 홍콩에서 열렸던 아시아 하모니카 페스티벌에서 사라시테 명곡 '찌고이네르바





2009년 4월 부산,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하모니카 동호회 '화음정'



현재 5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화음정은 매월 한차례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화음정은 2009년 부터 매년 거제도 둔덕마을에서 음악을 통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젠'을 하모니카 연주곡으로 만나면서 하모니카 연주자로서의 김병섭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현재 하모니카 연주자 이탁교, 이대웅, 아코디언 연주자 김지안 씨와 함께 결성한 하모니카 앙상블 'mellow tone'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병섭 씨는 한편으로 강습을 통해 실력있는 제자들을 키워내고 있다. 그동안 가르친 제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바로 '화음정'이다. 이번 일본 간사이 하모니카연맹과의 교류음악회를 가지게 된 배경 역시 연주자 김병섭 씨가 지난 2007년 간사이 하모니카연맹을 방문하면서 시작된 인연 때문이다. 지난해 공식적으로 교류회 제안을 받으면서 성사된 이번 교류음악회는 앞으로 양국을 오가며 활발한 연주교류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화음정이란 이름처럼 소외되고 그늘진 곳까지 하모니카 선율이 울려 퍼져 열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음정은 2009년 결성 이후부터 매년 거제도 둔덕마을에서 음악을 통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작은 음악회는 약간의 엃박자와 음이탈에도 함께 박수치며 즐거워해주는 관객들이 있어 연주를 하는 회원들의 마음도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다. 올해는 교류음악회 준비로 연주활동이 뜸했지만 음악으로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는 음악봉사활동은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동호회 결성 후 첫 창단 연주회도 가질 계획도 세우고있다.

화음정 회원들은 정기모임과 음악봉사활동 외에도 정기산행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오랜 친구같은 하모니카처럼 화음정 회원들간에도 언제나 따뜻한 정이 교류한다.

“국내에 하모니카가 보급된지 80년이 흘렀지만 그 음악적 발전은 미비합니다. 가까운 일본을 예를 들더라도 수많은 하모니카 동호인이 생겨나면서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연주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모니카라는 '악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없어 아쉽다는 김병섭 씨. 국내 최초로 교류음악회를 가졌던 열정만큼 앞으로 부산의 하모니카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하모니카 발전에 '화음정'이 앞장서 나가고 싶다.

● 문 의 | 하모니카 동호회 '화음정' 김병섭(010-4540-1996)



# 소노리테 목관 5중주 연주를 듣고

신설령\_음악평론가



소노리테 목관 5중주단

이번 연주회는 평소 듣기 쉽지 않은 장르의 음악이었다. 6월 11일 오후 고은사진미술관에서 연주를 한 ‘소노리테 목관 5중주단’은 원주, 인천, 부천시립교향악단의 수석, 부수석 주자들로 구성된 젊은 연주자들의 앙상블 팀이다.

이들이 연주한 첫 곡은 헝가리 작곡가 파르카스(F. Farkas, 1905-2000)의 ‘헝가리 고전무곡’. 이 곡은 17세기 헝가리 춤곡에서 음악적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작품이다. 바로크 초기 기악 소나타 곡이 느림, 빠름, 느림, 빠름으로 이어지는 춤 모음곡 형태였으나 파르카스의 이 곡은 빠름-느림의 순으로 구성된 5개의 모음곡 형태이다. 그의 음악에는 농민들의 흥겨운 춤도 있고 느린 춤곡에는 목가적인 분위기도 보인다. 레스피기에게 작곡을 사사했던 그의 곡에서는 옛 음악소재를 즐겨 썼던 스승의 음악적 흔적도 보이는 듯하다. 20세기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옛 춤곡을 주제로 하였기에 대체로 선율 반복과 리듬 반복이 많고 듣기에 편했다.

다음 곡은 윤성현의 ‘목관 5중주곡’이다. 한국 창작곡을 연주 프로그램에 넣은 것이 신선하다. 그동안 현대음악 작품 발표회

에서는 낯설고 새로운 경험을 해왔기에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듣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곡은 음악적 단편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이루어 가는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이제 아름다운 선율의 시대는 가고, 각기 제 목소리를 내어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공존하며 새로운 음색을 만들어내며 그렇게 음악은 이 시대를 닳아 흐르고 있었다.

세 번째 곡은 포레(G. Faure, 1845-1924)의 ‘Dolly Suite’. 원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곡이었으나 목관악기를 위해 편곡된 것이다. 포레 또한 낭만 후기에서 20세기 초까지 활동했으니 이 시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곡가이다. 포레의 조곡도 고전·낭만 음악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조금은 낯설게 다가갈 듯싶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Rodgers(1902-1979)의 ‘사운드 오브 뮤직’ 편곡이다. 너무나 익숙한 선율들이 곳곳에서 나타나 흥겹기는 하지만 악기 음색 변화 위주로 편곡된 음악이 조금은 진부하게 느껴진다. 오히려 앵콜곡으로 연주한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편곡은 리듬도, 화성도 현대 음악적 요소를 사용하여 흥미롭다.

작곡자의 생몰 연대를 이 글에서 밝히는 것은 소노리테 목관 5중주단의 프로그램 구성을 의미있게 보기 때문이다. 그들의 악곡 선택이 근·현대 작곡가의 작품인 것은 아마도 목관 5중주곡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낭만 곡에 익숙한 청중에게 이러한 프로그램 선택과 한국 작곡가의 작품을 의도적으로 연주한 것은 유의미하다.

창단 3년차인 ‘소노리테’는 호흡이 일사불란하여 그 앞날이 기대된다. 다만 창단과 해단을 거듭하는 많은 실내악 연주단체들 속에서 앞으로 음악적 나이테를 늘려가며 그들만의 팀 칼라를 만들어내는 일이 과제일 것이다.

# ‘Now Here’ 는 ‘noWhere’ !

박해란\_동서대학교 교수



부산시립극단 'noWhere'

극장에 들어서자 QR코드가 여기 저기 널려있는 무대에 열댓명의 코러스들이 검정 상자를 하나씩 차지하고 각자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똑같이 검정색의 의상을 입고, 흰 얼굴에 일그러진 표정의 분장을 하고 있다. 드디어 공연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린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점차 제멋대로 울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찢어질듯 한 소음으로 변한다. 코러스들은 시작부터 뭔가 막막한 심정을 노래한다. “여기는 지금 어디인가, (...) 어디로 가야하나?” 지금 여기는 nowhere인 것이다.

부산시립극단 제 41회 정기공연으로 올린 이번 공연 ‘noWhere’ 는 부조리연극의 대표작가로 알려진 프랑스 이오네스코의 후기작 ‘정말 엉망이군!(Ce formidable bordel)’ (1973)을 연출가이자 작가 김지용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연출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2009년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 기념 페스티벌’에서 ‘지금, 여기’라는 제목으로 올려졌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새롭게 꾸몄다. 김지용은 원작과는 달리 특별한 이름이 부여되지 않고 그냥 ‘등장인물’이라고 제시되는 주인공,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며 현실을 직시하는 주인공 대신 은퇴를 앞둔 배우 박찬영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투사한다. 은퇴, 부동산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노인 문제, 고독, 사랑, 이데올로기의 허위성 등 ‘지금, 여기’의 모든 문제들을. 등장인물들은 꿈을 꾸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현실을 이겨내려 노력하나, 연인들의 키스조차 고통스럽고 공허하게 표현된다.

주인공은 외친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 “희망, 가능성은 이 부조리한 세계를 포장하는 거짓에 불과해” 기계화, 정보화, 그리고 물질만능의 시대. 인간도 물질도 매트릭스코드로 기호화된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있지만 쉽사리 답을 얻지 못하고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간다. 이렇듯 냉혹하도록 무심하게 돌아가는 현실의 굴레를 연출은 인간-세계로 형상화 한다. 시간의 흐름은 상황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귀를 찢는 듯한 굉음 속에서 기계적인 코러스들의 몸짓으로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이렇듯 출구 없는 이중적 고통의 상황을 상자로 형상화한 것도 몹시 흥미롭다. 상자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공간이고 권리의 공간이자, 벗어던질 수 없는 현실의 집이고 우리의 존재를 잠식하는 도구다. 등장인물들은 각기 자기의 상자를 자기 분신처럼 지니고 다닌다. 때로는 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때로는 자신의 호감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현실은 자신을 옥죄는 감옥이 된다. ‘상자라는 일종의 감옥’에 사는 등장인물들이 겪는 무엇보다 큰 고통은 고독과 불안이다. 그것은 타인과의 소통 불능,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앞에서 무력한 인간 이성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다. 술을 은신처 삼아 타인과의 답을 쌓아가던 주인공이 원작과 달리 김지용의 ‘noWhere’에서는 현실의 부조리를 초월하고자하는 자세를 취하며 극을 끝맺음한다. 원작이 지닌 묘미를 음미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젊은 작가와 연출의 기지와 넉넉함이 보이는 공연이다.

# Program

## 부산문화회관 공 / 연 / 안 / 내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10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7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자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단원들과 함께 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화려한 기교를 바탕으로 한 협연자들의 뛰어난 기량을 통해 관객들에게 바

이올린, 첼로, 오보에 등 다양한 악기의 협주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베토벤/ '피델리오' 서곡 작품 72

모차르트/호른협주곡 라장조 작품 142 중 제 1악장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0

모차르트/오보에 협주곡 다장조 작품 314 중 제 1악장  
차이코프스키/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가장조 작품

33 중 서주와 주제 제 1,2,3,7 변주 등 수곡

· 지휘/이동신(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최보린(바이올린, 부산대 3학년), 최서연(바이올린, 부산대 3학년), 윤주연(첼로, 부산대 2학년), 박선영(오보에, 부산대 3학년), 이효주(클라리넷, 경성대 4학년), 이시원(호른, 경성대 4학년)

· 협연/최보린(바이올린, 부산대 3학년), 최서연(바이올린, 부산대 3학년), 윤주연(첼로, 부산대 2학년), 박선영(오보에, 부산대 3학년), 이효주(클라리넷, 경성대 4학년), 이시원(호른, 경성대 4학년)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제 20회 부산무용제

7월 4일-6일 월-수요일 오후 7:30 >>> 중극장



2010 대상팀 박성호 무용단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무용제에 출연할 부산 대표 무용단을 선출하는 제 20회 부산무용제.

국립부산국악원의 개막공연 '박접무'를 시작으로 LOM 무용단, 허경미 무용단, 손영일 무용단, 부산발레 연구회 4팀이 한국전통무용, 창작무용, 발레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 ::일정

7월 4일(월)

개막축하공연 국립부산국악원 '박접무' (안무/엄옥자)

LOM 무용단 '儻' (안무/조지현)

7월 5일(화)

허경미 무용단 '차치다' (안무/허경미)

손영일 무용단 'Crazy music and street(미친음악 그리고 길거리)' (안무/손영일)

7월 6일(수)

부산발레연구회 '비밀의 강' (안무/임계영)

박성호 무용단 2010년 대상팀 축하공연 '디아스포라-점' (안무/박성호)

폐막공연 부산시립무용단 '꼭두상모' (안무/홍기태)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부산무용협회(632-5116)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자연주의 피아노 음악의 거장 조지 윈스턴 내한공연 'Love Will Come'

7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의 부산연주회.

한 폭의 풍경화 같은 그의 레코드 자켓처럼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음악을 들려주는 자연주의 피아노음악의 거장 조지 윈스턴은 계절의 변화와 공기, 바람, 물과

같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와 깊고 따뜻한 울림을 가진 피아노 연주로 깊은 감동을 선사해왔다. 1994년 발표한 'Forest' 앨범으로 그래미(Grammy Awards) '최우수 뉴에이지 앨범(Best New Age Album)' 상을 수상한 조지 윈스턴은 'Summer(1991)', 'Forest(1994)', 'Plains(1999)'를 비롯하여 'Montana - A Love Story(2004)' 등 6개의 앨범이 미국 빌보드차트 뉴에이지 부문 1위에 오르 바 있다.

#### ::프로그램

Baby Let Me Hold Your Hand

Time For Love/Be My Valentine Charlie

Brown/Love Will Come, Moon, Dog And Cat

Variations On The Kanon By Pachelbel

Hawaiian Slack Key Guitar Piece-Kane's Tune

The Cradle, Thanksgiving 등 수곡

::관람료 VIP석 88,000원 · R석 66,000원

S석 55,000원 · A석 44,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라임기획(1600-1602)

### 2011년 한·미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류음악회(부산국제청소년 오케스트라 제 2회 정기연주회)

7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 대극장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30 >>> BEXCO)



부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백진현이 지휘하는 부산국제청소년오케스트라와 베이징콘서바토리를 졸업한 중국 지휘자 송양군이 지휘하는 토레도국제청소년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한·미 국제청소년 오케스트라 교류연주회.

1999년 결성된 부산 영 필하모니오케스트라에서 출발한 부산국제청소년오케스트라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5번 '운명'  
차이코프스키/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코코 바리  
에이션 작품 33  
박범훈/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등 수곡  
· 오케스트라/토레도국제청소년오케스트라, 부산국제  
청소년오케스트라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정동화(010-4587-8994)

**부산예술고등학교 제 24회 무용정기공연**

7월 7일 목요일 오후 7:00 >>> 대극장

부산예술고등학교 무용학도들이 그동안의 수업을 되돌  
아보며 마련하는 제 24회 정기공연.

<맹진사댁 경사>를 바탕으로 양반사회의 허위, 결혼제  
도의 모순과 전통 계층사회의 비인간성 등을 우리 춤  
사위로 풍자한 '우리 결혼했어요', 낭만주의 발레의 대  
표작 '라 바야데르(La Bayadere)' 등이 무대에 오른다.

**::프로그램**

한국무용 '우리 결혼했어요!' (안무/이은영)  
현대무용 '푸른 원(Blue Circle)' (총 안무 및 연출/성은지)  
발레 '라 바야데르(La Bayadere)' 중에서(안무/  
Marius Petipa, 재안무 및 지도/이화성)

**::관람료** 무료

**::문의** 부산예술고등학교(514-1229)

**제 4회 뮤즈 칸타빌레**

7월 7일 목요일 오후 7:00 >>> 소극장

부산예고 동문으로 서울, 부산 등에서 음악 수업을 하  
며 음악적 공감대를 형성해온 뮤즈 칸타빌레의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제 9번 KV.311  
리스트/바흐 주제에 의한 판타지와 푸가 등 수곡  
· 연주/강다운, 이효권, 이수민, 박시연

**::관람료** 무료

**::문의** 강다운(010-4542-3135)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1회 정기연주회  
2011 부산연주인시리즈 I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7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리 신차오



김재원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교향곡, 오페라, 발레 등 폭넓  
은 레퍼토리에 대한 탁월한 해석으로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R.슈트라우스의 대서사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새로운 무대를 연다.  
특히 이번 공연은 2011년 부산연주인시리즈 공개모집  
을 통해 선발된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이 협연자로 부  
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대구방송콩쿠르 1위, 음악춘추 콩쿠르 1위, 글로벌 전  
국음악콩쿠르 대상, 금호영재콘서트 오디션 합격, 독일  
Kloster Schöntal 국제바이올린콩쿠르 3위 입상 및  
'Virtuoso 특별상'을 수상한 김재원은 현재 한국예술  
종합학교 음악원에 영재 입학하여 예술사 1년에 재학  
중이다.

**::프로그램**

주페/ '시인과 농부' 서곡  
프로코피에프/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  
슈트라우스/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지휘/리 신차오  
· 협연/김재원(바이올린)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하는  
듀오콘체르토 season 2**

7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미국에서 활동 중인 테너 주종식과 부산시립합창단 단  
원 바리톤 최성규가 들려주는 두번째 듀오 콘체르토  
무대.

경성대학교 동문으로 음악적인 교류를 이어온 테너 주  
종식과 바리톤 최성규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  
께 '어머니, 그리고 고향'을 주제로 아름다운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윌리엄스/ 'Song of Travel' 연가곡 중에서 'The  
Vagabond'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베르디/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 'Il balen del suo  
sorriso(그녀의 빛나는 미소는)'  
이흥렬/섬집아기 등 수곡  
· 특별출연/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전상철)  
· 피아노/이승운 · 소프라노/김연진

**::관람료** 균일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우리아트(010-5555-3825),  
최성규(010-3564-3439)

**11 Brass**

7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 소극장

서주형, 백승엽, 서인철, 변동현, 전민준, 최재혁, 김종  
길 등 11명의 음악도들로 구성된 11 브라스콰이어가 활  
력 넘치는 브라스의 매력을 전해준다.

**::프로그램**

슈베르트/싫어하는 빛깔  
모차르트/호른협주곡  
림스키 코르사코프/트럼본협주곡 등 수곡

**::관람료** 균일 1,000원

**::문의** 서인철(010-3659-1493)

### 해외 개척교회 설립을 위한 제 4회 선교찬양제

7월 9일 토요일 오후 6:00 >>> 대극장

해외 개척교회 설립을 위해 부산지역 교회 찬양대들이 한자리에서 들려주는 아름다운 하모니.

출연

효성교회찬양대, 동산교회찬양대, 구남교회찬양대, 센텀장로교회찬양대, 거양교회찬양대, 성복교회찬양대, 울산산돌교회찬양대, 동현교회찬양대, 대연제일교회찬양대, 평광교회찬양대, 동광교회찬양대, 우이동교회찬양대, 울산남목교회중창단, 대송교회찬양대, 양정교회찬양대

::관람료 초대

::문의 김수복(011-9610-3930)

### 이성주 피아노 독주회

7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원숙미 넘치는 타건과 학구적인 해석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성주 부산연주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재학 중 도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에서 연주학 박사학

위(DMA)를 취득한 이성주는 영감과 열정 챔버 오케스트라와 리스트의 'Malediction'을 한국초연하는 등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이성주는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신진예술가 및 뉴스타트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진예술가로 선정되어 '슈만과 함께하는 감성깨우기'라는 제목으로 2회에 걸쳐 독주회를 가진 바 있다.

::프로그램

리베르만/녹턴 제 2번 작품 31(1990)

베토벤/소나타 제 28번 가장조 작품 101

쇼팽/소나타 제 3번 나단조 작품 58 등 수곡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음악교육신문(02-549-4133, 1131)

### 부산시립무용단 2011 풍류(風流) 3기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7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 소극장



부산시립무용단의 시민무용교실을 통하여 전통무용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준 수강생들과 무용단원들이 함께 꾸미는 부산시립무용단 2011 풍류(風流) 3기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3기 시민 무용인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강습생들의 태평무, 민살풀이춤, 먼저 풍류를 거쳐간 1, 2기 생들의 특별공연과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축하 공연 흥타령, 꼭두상모가 함께 펼쳐진다.

::프로그램

태평무, 민살풀이춤

· 축하공연/흥타령(특별출연/부산시립무용단 이상민, 김도은, 김시현), 꼭두상모(특별출연/부산시립무용단 윤은하, 이현주, 이현주)

· 특별공연/도살풀이춤(춤/감성희), 태평무(춤/이종남)

· 예술감독/홍기태(수석안무자)

::관람료 균일 3,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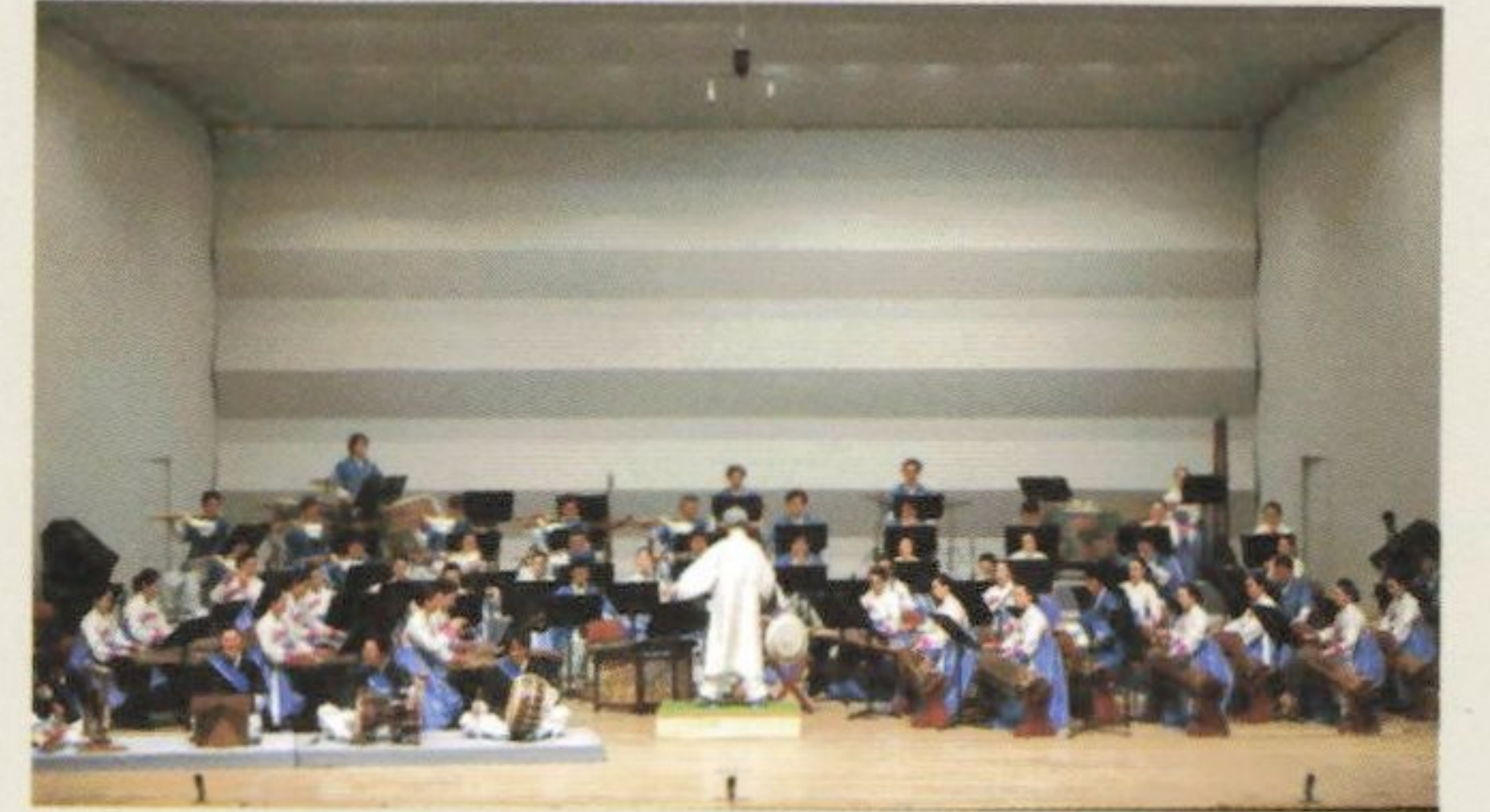
www.koreanfolkdance.com)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8회 정기연주회 부산의 다섯 명인과 함께 하는 '푸른 달을 나란히 걷다'

7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 중극장

우리 음악의 새로운 해석으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 158회 정기연주회.

수석지휘자 김철호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연주회는 25현 가야금과 병창을 위한 협주곡 '가야송', 해금협



주곡 '가을을 위한 도드리' 등 우리 음악의 예술성을 느낄 수 있는 국악 창작곡들을 선곡,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부산의 다섯 명인들과 함께 동, 서양 음악이 어우러지는 흥겨운 선율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박범훈/25현 가야금과 병창을 위한 협주곡 '가야송' 이건용/해금협주곡 '가을을 위한 도드리' (부산초연)

강봉천(편곡)/박대성 류 아쟁산조 협주곡(부산초연)

이귀숙/오보에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부산초연)

조석연/바이올린 협주곡 '만남과 추상' (부산초연)

· 지휘/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신은주(가야금,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단원),

윤해승(해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박대성(아쟁,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 16호 박대

성류 아쟁산조 예능 보유자),

류재환(오보에,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임병원(바이올린, 경성대학교 교수)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장애우 초청 '사랑의 음악회'

7월 14일 목요일 오후 6:00 >>> 대극장



남구 지역에서 운영하는 장애우 복지시설에 속한 장애

우와 가족, 교사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장애우 초청 '사랑의 음악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동요메들리 '5월의 꽃'(최석태 편곡)/무궁화 행진곡, 어린이 왈츠, 새싹들이다, 어린이행진곡(발 맞추어 나가자),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이홍렬/꽃구름 속에 우리가곡/기다리는 마음, 고향의 노래, 그리운 금강산 우리민요/새야 새야 파랑새야, 강강수월래, 신고산타령, 추천가 등 수곡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이승윤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재(합창)
- 특별출연/소프라노 김희정(부산시립합창단 단원), 메조소프라노 서미선(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관람료** 초대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영원한 DJ 도병찬과 함께하는  
'2011 POP합창'**

7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 중극장



김강규



도병찬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POP음악으로 합창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부산시립합창단 '2011 POP합창'. KBS 팝음악 프로듀서인 도병찬의 구수한 해설을 곁들여 1980년대의 음악다방에서 OLD POP을 듣던 시절로 아련한 추억여행을 떠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영화 음악속의 POP음악, 추억속의 씨시봉과 비틀즈 음악, POP명곡에 풍성한 합창단의 화음을 더해 Old Pop

팬층은 물론 Old Pop을 접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도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Opening/Let me be there  
씨시봉 그리고 트윈 폴리오처럼/Cotton fields, Don't forget to remember, Green green grass of home, 하얀 손수건, 웨딩케익  
영화 속의 Pop/James Bond Theme(영화 'James Bond' 중에서), Summer Nights(영화 'Grease' 중에서), Jai Ho(영화 'Slumdog millionaire' 중에서), April come She will (영화 '졸업' 중에서)

비틀즈/Michelle, Obladi Oblada, Eleanor Rigby, Here, There and Everywhere  
팝 명곡 모음/Soldier of Fortune(Deep Purple), Somebody to Love(Queen), Hotel California(Eagles)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해설/도병찬
- 편곡/최석태, 백현주, 문지은
- 앙상블 에피소드/남순천, 손미숙, 이재원, 김창돈, 구명금
- 하모니카/김일현 · 기타/홍광현, 김정태
- 드럼/김진훈

**::관람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21  
옐로우 몬스터즈**

7월 15일 금요일 오후 8:00 >>> 소극장



신인 아닌 신인 남성 3인조 펑크록 밴드 '옐로우 몬스터즈' 부산 첫 단독 콘서트.

한국 모던락 대표 1세대 밴드인 델리스파이스의 드러머 최재혁, 마이앤티메리의 베이스 한진영과 일찍이 일본에서 음악성을 먼저 인정받은 멜로딕펑크밴드 검엑스의 기타 & 메인보컬 이용원으로 결성된 '옐로우 몬스터즈'는 2010년 4월 결성과 동시에 7월 1집 앨범 (Yellow Monsters)을 발매, 탄탄한 기본기와 폭발적인 무대 매너로 흥대 앞 클럽가를 장악했다. 1990년대 초반에 붐을 이루던 얼터너티브, 포크, 펑크, 메탈 등 다양한 장르를 혼합하고 멜로디를 강조한 록 음악을 선보여온 옐로우 몬스터즈는 최근 신인으로는 드물게 제 8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록(음반)부문-(1집), 최우수 록(노래)부문-(Destruction/디스트럭션) 후보에 오르며 음악성 또한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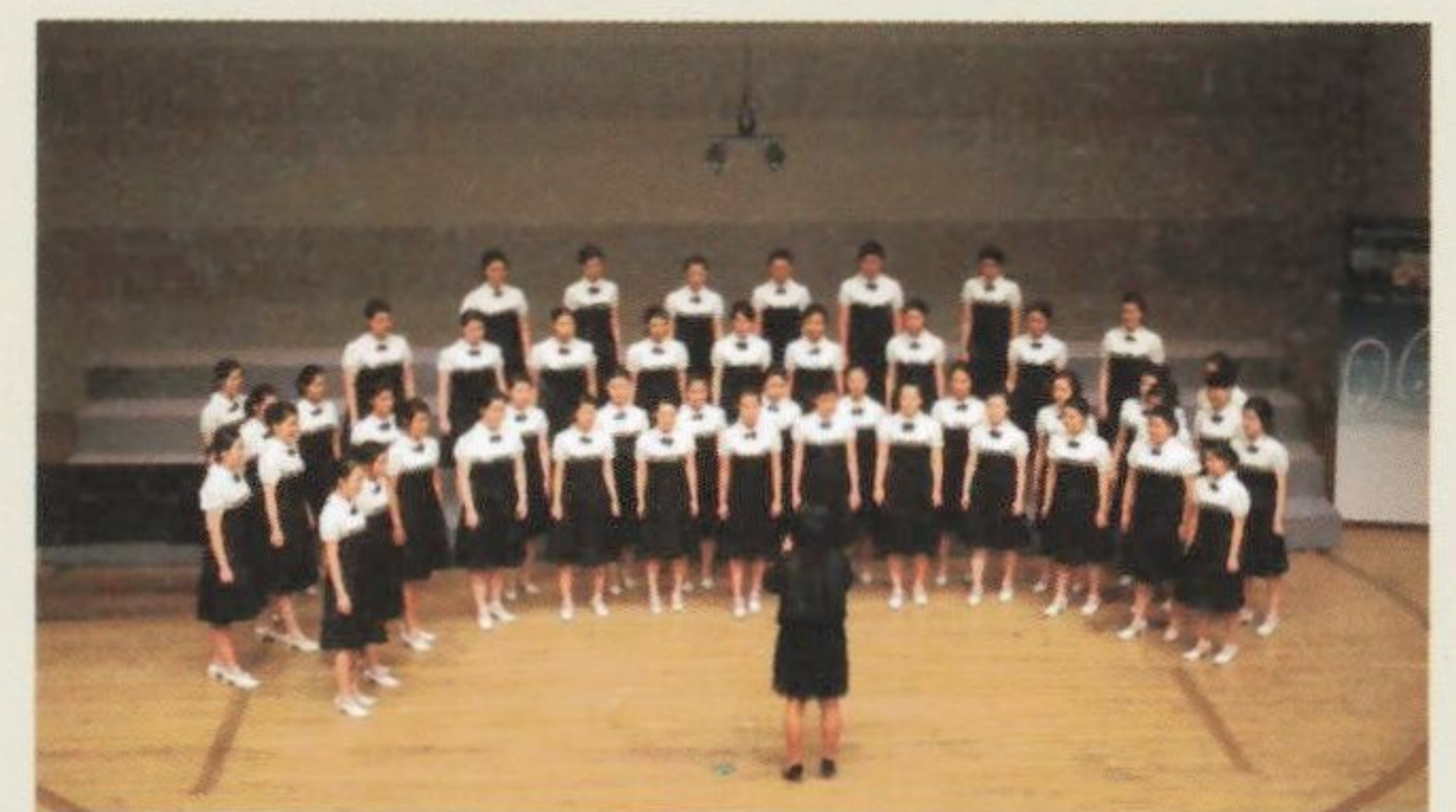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싸이클럽 <http://club.cyworld.com/0911concert>)

**제 7회 한국 청소년 합창 콩쿠르**

7월 16일 토요일 오전 11:00  
(시상식 오후 7:00) >>> 중극장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한국 합창음악 인재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합창축제 '제 7회 한국 청소년 합창 콩쿠르'. 올해는 지난해 6회 대회에서 초등부 은상을 수상한 C&M 울산케이블TV 어린이합창단과 동상을 수상한 부산진구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이, 중등부에서는 2010년 전국고교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목포 덕인고등학교 합창단을 비롯하여 6회 대회 금상을 수상한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해연합창단, 3회에서 대상을

# Program

## 부산문화회관 공 / 연 / 안 / 내

수상한 마산제일여고 합창단 등 21개 팀이 풍성한 경연을 펼친다.

### ::참가단체

-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형예)
- 학창초등학교합창단(지휘/박윤희)
- 해돋이합창단(지휘/최진숙)
- 밀성초등학교합창단(지휘/조신주)
- 용산초등학교합창단(지휘/박지용)
- KBS 울산어린이합창단(지휘/황성진)
- 부산남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주곤)
- 홍성군청소년수련관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지은)
- 부산진구라운소년소녀합창단(지휘/박훈)
- C&M 울산케이블TV 어린이합창단(지휘/김현정)
- 초당초등학교합창단(지휘/한안식)
- 마산제일여고합창단(지휘/임성길)
- 현일콘서트콰이어(지휘/진혜숙)
-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합창단(지휘/이종석)
- 별망중학교합창단(지휘/이경희)
- 마산제일여자중학교합창단(지휘/백경태)
- 창원여자고등학교합창단(지휘/김세홍)
-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합창단(지휘/강향자)
- 송파소년소녀합창단(지휘/정태영)
- 인천서구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임선미)
- 목포덕인고등학교합창단(지휘/김용호)

::관람료 무료

::문 의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www.koreachoral.or.kr)

### 제 7회 부산아마추어클라리넷앙상블 with 부산클라리넷콰이어

7월 17일 일요일 오후 6:00 >>> 중극장

부산클라리넷콰이어 산하 부산아마추어클라리넷앙상블이 들려주는 제 7회 정기연주회.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아마추어클라리넷앙상블은 함께 모여 화음을 만들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가면서 클라리넷이 주는 감동과 기쁨을 느껴왔다.

### ::프로그램

오펜바흐/천국과 지옥 서곡 중에서



영화음악/사운드 오브 뮤직 모음곡

드볼작/신세계 교향곡 등 수곡

· 편곡/한상헌

::관람료 무료

::문 의 부산아마추어클라리넷앙상블  
(010-8280-4646)

###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 (ASO-Aloysius Symphony Orchestra) 제 21회 자선음악회

7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 대극장



1979년 재단법인 마리아 수녀회가 운영하는 아동 복지시설 '소년의 집'에서 출발한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 제 21회 정기연주회. 해를 거듭할수록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온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는 2005년 11월, 세계적인 거장 정명훈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 더욱 성숙해졌다. 당시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 공연을 지휘한 정명훈 지휘자가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단원들과 소년의 집을 찾아 마스터클래스를 가진 바 있고 최근에는 정명훈의 아들 정민이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며 2010년 2월, 미국 카네기홀에 당당히 서 뉴욕의 청중들을 사로잡기도 했다.

###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삼중협주곡

다장조 작품 56

말러/교향곡 제 1번 라장조 '거인'

· 지휘/정민 · 바이올린/한지연

· 첼로/전선희 · 피아노/아키코 요모야마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

(256-3901, 010-9758-6838)

### 부산시립무용단 2011 여름마당춤판 춤으로 피어나는 '호녀 심청'

7월 21일-22일 목-금요일 오후 8:00 >>> 야외무대



매년 여름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를 해학과 신명이 살아있는 마당춤판으로 선보여온 부산시립무용단이 2011년 새롭게 선보이는 여름마당춤판 '호녀 심청'. 호녀 심청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이 춤과 노래, 연기를 직접 소화,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는 해학 넘치는 무대로 한여름 밤 가족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 안무구성/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 각색, 대본, 연출/오정국

::관람료 무료(우천시 대극장)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부산물라디클라리넷컴퍼니 Clarinet Story II Harmony

7월 22일 금요일 오후 7:00 >>> 소극장

2010년 부산클라리넷콰이어 단원들로 창단된 부산물라디클라리넷컴퍼니의 두 번째 무대.

창단 후 '전진(Progression)'이라는 주제로 클라리넷 앙상블의 매력을 선사한 부산물라디클라리넷컴퍼니가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의 3요소 중 하나인 '화합(harmony)'을 주제로 음악적인 앙상블을 선보인다.

벨기에 왕립음악원, 미국 뉴욕주립대학에서 음악수업





을 하고 뉴욕 타임스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연주자들'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뉴욕 아르테미스 앙상블 클라리넷 수석 주자로 활동한 클라리네티스트 최승호가 특별출연한다.

**::프로그램**

헨리 맨시니/샤레이드

멘델스존/Concertpiece 제 2번 라단조 작품 114

피아졸라/리베르탱고 등 수곡

· 지휘/최승호(트로이메라이 클라리넷앙상블 음악 감독)

· 협연/이원기(부산클라리넷콰이어, United Korean Orchestra, 창원시립마산교향악단 단원)

이상하(부산클라리넷콰이어, 대동밴드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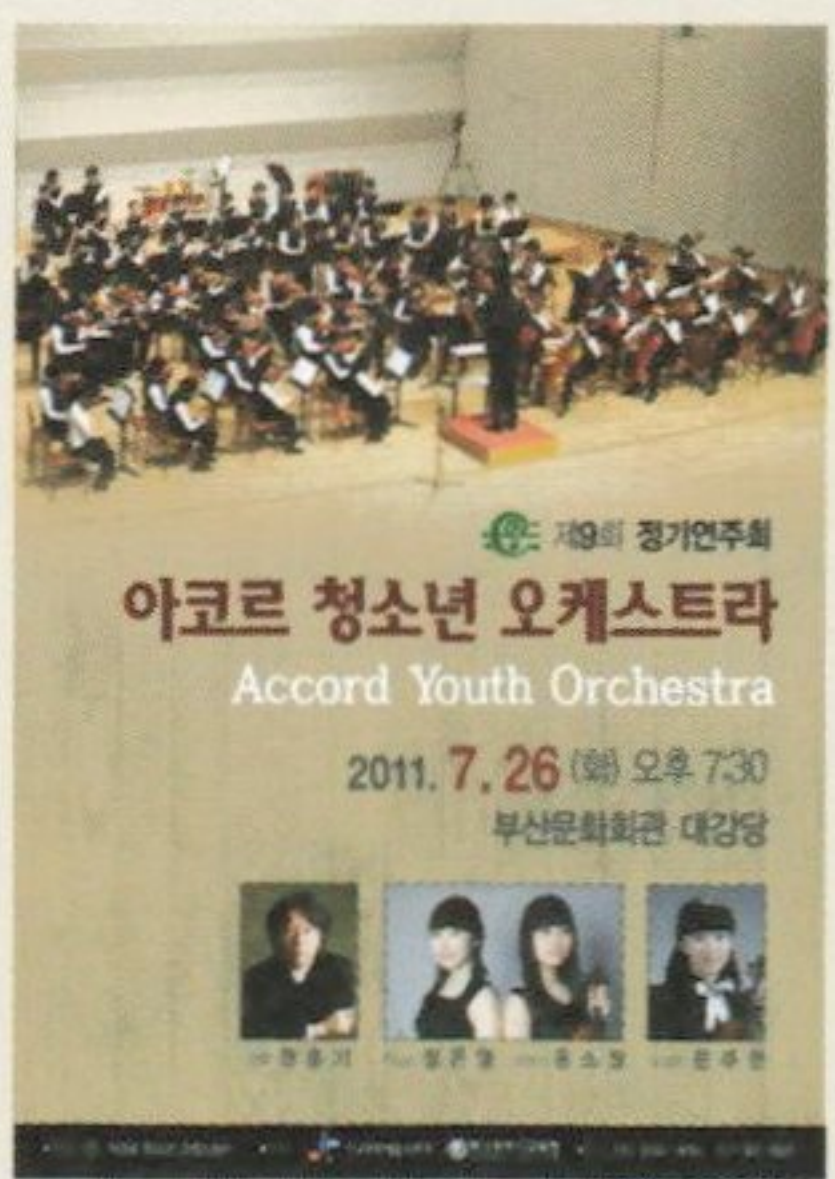
김규현(부산대 4년), 임경희(부산대 4년)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부산물라디클라리넷컴퍼니(010-9398-8727)

**아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 9회 정기연주회**

7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2002년 9월, 음악을 사랑하는 청소년들로 결성된 아코르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음악을 통한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인격향상을 위해 지휘자 정흥기, 각 파트 지도강사들과 꾸준히 음악수업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바흐/플루트, 바이올린,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BWV 1043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 4번

· 지휘/정흥기

· 협연/정은영(플루트), 윤소정(바이올린), 문주현(바이올린)

**::관람료** 무료

**::문의**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010-5502-3093)

**2011년 춤패 배김새 정기공연**

7월 27일-28일 수-목요일 오후 7:30 >>> 소극장



춤이 갖는 공간과 시간적 현장성을 무대 매커니즘을 통해 극대화하여 전통춤에 대한 시각을 넓혀온 춤패 배김새 2011년 정기공연.

처용무, 진주교방굿거리춤, 태평무 등 우리 전통

과 창작의 연결고리를 새로운 형식으로 보여주는 이번 무대는 전통 원형의 춤과 전통춤을 원형으로 새롭게 창작된 창작 작품을 한 무대에 올린다.

■ 7월 27일(수)

중요무형문화재 제 39호 '처용무' (춤/한수정)

'엘레리 골레리' (안무, 출연/남지원)-처용무와 여러 지역의 탈놀음을 재해석

경남무형문화재 제 21호 '진주교방굿거리춤' (춤/하연화)

'皎(달빛 교)' (안무/박수정 · 출연/박수정, 정은주)-진주교방굿거리춤의 기본 정신을 안무자의 시선으로 재해석

■ 7월 28일(목)

중요무형문화재 제 92호 '태평무' (춤/김정원)

'안영(halo)' (재안무/안주현 · 출연/안주현, 최지원, 양한나)-태평무의 모티브인 안영과 왕비가 춤을 춘다는 내용을 여자의 원죄라는 주제로 풀어낸 작품

부산시무형문화재 제 3호 '동래학춤' (재안무, 출연/손미란)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안무/조은정, 출연/조은정 외 배김새 단원)-학춤의 내용과 의미를 살리면서 새로운 시선으로 재해석

· 총연출/최은희 · 예술감독/정미숙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춤패 배김새(010-2704-2552)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오페라 '투란도트'**

7월 28일-29일 목-금요일 오후 7:30,  
7월 30일 토요일 오후 3:00, 7:30 >>> 대극장



전 세계인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푸치니 최고의 오페라 '투란도트' 부산무대.

중국 배경을 무대로 하는 오페라 '투란도트'는 대중과도 친숙한 푸치니(Puccini) 최후의 유작(遺作)으로 타타르국의 칼라프(Calaf) 왕자와 투란도트 공주의 운명적인 사랑이 웅장한 무대와 화려한 선율로 펼쳐진다. '투란도트'는 특히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서 우승한 플로츠가 결승전 당시 불러 전 세계를 감동시킨 노래 '공주는 잠 못 이루고(Nessun Doma)'를 비롯해 '옛날 이 궁전에서 (In questa reggia)', '첫번째 눈물 (Del primo pianto)', '울지마오... 류!' 등의 아리아가 유명하다.

2008년 북경올림픽을 기념해 막을 올린 오페라 '투란도트' 공연 총감독을 맡았던 지광윤이 이번 무대의 음악 총감독을 맡아 웅장하면서도 감미로운 무대를 열어준다.

· 음악총감독, 지휘/지광윤

· 연출/이현석 · 예술총감독/이홍길

출연

소프라노 조영주, 윤지영(투란도트), 테너 오경식, 김지호(칼라프), 소프라노 정민희,김경희(류), 베이스 김일환, 김정대(티무르), 바리톤 변우식/김상효(핑), 테너 손민호/우원석(팡), 테너 안혁주, 이승우(풍), 바리톤 고정현(만다리노), 테너 황성학(알통왕) 외

**::관람료** VIP석 10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1600-1803)

### MUSIC

#### 리스트와 떠나는 순례의 길 이시내 피아노 리사이틀

7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열정과 부드러움이 녹아있는 음색의 소유자 피아니스트 이시내가 최고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리스트의 명곡 '순례의 해'를 들려준다.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 ▶2일 프로그램

천년만세, 살풀이, 가야금 병창, 포구락, 설장구 협주곡 '모리'(이경섭 곡), 경기민요, 부채춤, 사물놀이

#### ▶9일, 23일 국악뮤지컬 '부산아라'

부산국(釜山國)이라는 상상의 나라에 전해오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효(孝)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국악뮤지컬.

#### ▶16일 프로그램

산조춤, 가곡, 호적풍류, 동래한량춤, 실내악 25현금 3중주 '오봉산 타령'(함평익 곡), 태평무, 동부민요, 판국

#### ▶30일 성악 기획공연

::관람료 균일 8,000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제 7회 스트로크타악기앙상블 정기연주회

7월 2일 토요일 오후 7: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2년 부산지역 젊은 타악연주자들로 결성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역동적인 타악앙상블의 매력을 전해주고 있는 스트로크타악기앙상블의 7번째 정기연주회.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스트로크타악기앙상블(010-9817-0010)

#### 우크라이나 자포르지에 필하모니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7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57년 우크라이나 자포르지에시의 시립교향악단으로 창단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자포르지에 필하모니가 들려주는 청소년 음악회.

· 지휘/알렉산드 돌린스키

· 협연/공정민, 김정현(소프라노), 진혜빈, 홍지현(바이올린), 김지현(피아노), 문보영(바순)

::관람료 균일 5,000원

::문의 한국국제예술교류협회(010-9168-9434)

####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6일 소프라노 이영은 독창회



이탈리아 L.Refice 콘서바토리와 로마 A.I.D.A 아카데미, Bela Bartok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시칠리아 국제 성악콩쿠르 L.Infantino에서 최우수 가창상을 수상한 소프라노 이영은 독창회.

· 피아노/이현주

#### ▶13일 성기업 플루트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쾰른음대, 네덜란드 마스트리트음악원을 졸업하고 매년 독주회와 실내악무대, 기획연주회 등을 통해 플루트 선율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성기업 독주회.

· 피아노/유영욱(한국국제대학교 교수)

#### ▶20일 비타펠리체 정기연주회

"한 여름 밤의 행복콘서트"

소프라노 구현진, 박연경, 이수진,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테너 우원석, 황성학, 바리톤 김대성, 베이스 정용욱으로 결성된 비타펠리체 정기연주회.

우리 귀에 친숙한 국내외 가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공소현, 김병기

#### ▶27일 그라치아 단원들이 전하는 꿈과 사랑, 그리고 음악



2009년 음악을 사랑하는 여성 성악전공자들로 결성된 그라치아 중창단의 창단연주회.

클래식에서부터 성가곡, 팝송, 뮤지컬, 재즈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 2011년 한·미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류음악회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3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세계 각국에서 연주와 음악봉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있는 토레도 국제 청소년오케스트라와 부산 국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한·미 청소년

년오케스트라 교류음악회.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정동화(010-4587-8994)

### 제 30회 부산관악제

7월 7일 목요일 오후 6:30 >>> 시민회관 대극장



부산백양고등학교 취타대

부산지역 5개 고등학교 관악팀과 부산트럼본앙상블이 출연, 화려한 관악의 세계로 안내하는 제 30회 부산관악제.

· 사회/배일환(한국관악협회 부회장)

· 출연/부산백양고등학교(지휘/박종희), 동의공업고등학교(지휘/김태호), 예원여자고등학교(지휘/하귀천), 부산트럼본앙상블(리더/정선화), 부산항물류고등학교(지휘/고일봉),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지휘/김용조)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3,000원

::문의 전이동(010-2705-0366)

### 김민아 첼로 독주회

7월 11일 월요일 오후 7: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하고 미국 Longy음대 장학생으로 재학중인 김민아 독주회.

· 반주/배미정

::관람료 초대

::문의 김민아

(010-2054-0192)

### 홍서윤, 김아름 듀오 리사이틀

7월 12일 화요일 오후 7: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홍서윤



김아름

부산예술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홍서윤, 김아름의 성악 듀오 무대.

::프로그램

슈베르트/몰레감는 그레첸

김성태/동심초

구노/나는 살고 싶어요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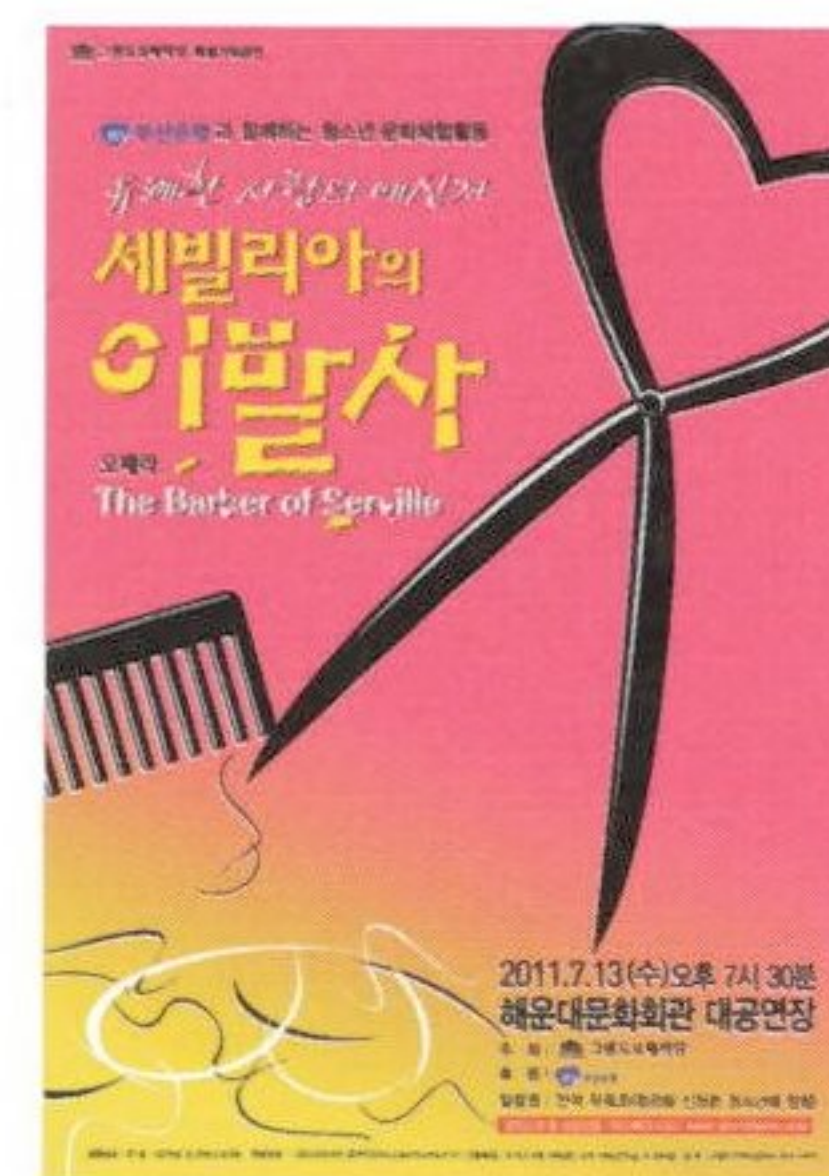
::관람료 초대

::문의 김혜경(010-3156-3150)

###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II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7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부산지역 중·고등학생 및 문화소외계층을 초청,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관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오페라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그랜드오페라단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코믹한 내용과 벨칸토 창법의 성악적 묘미가 재미를 더해주는 오페라 부파의 걸작이다.



· 연출/안주은

· 오페라코치/김민정

· 출연/바리톤 박정섭, 소프라노 신승아, 테너 전병호, 바리톤 박상욱 외

::관람료 초대

::문의 그랜드오페라단

(853-2341)

###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제 5회 정기연주회

7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부산 경남지역의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무대를 선보여온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섬세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현악 영산회상' 전바탕을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6,000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C.C.V 플룻앙상블 창단 연주회

7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국내 최고 전문 녹음홀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 글로벌아트홀

CD 녹음 / DVD 녹화	연주회 / 클래스발표회 / 행사
유학오디션용 / 국제콩쿨용	독창회 독주회 실내악 오케스트라 국악연주회
현재 미국 명문음대 100%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음 (CD 및 DVD오디션에서 합격사례) 피아노 : 송정민(이스트만음대 전액장학생), 엄유정(텍사스 어스틴음대) 첼로 : 김미나(줄리어드 합격 및 론지 장학생)/바이올린 : 이슬기(피바디음대) 성악 : 김지현 김혜원(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 합격) 외 다수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클래식 기타 작곡 가야금 독주 및 합주 연주회 실황 녹음 녹화 가능
개인 음반 / 합창단 합주단 기념음반 / 교회찬양대 기념음반 녹음 및 녹화는 예약하셔야 합니다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전화 051-505-5995 팩스 051-505-5935 www.glovil.org / glovil@paran.com

# Program

##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대구예술대학교 김남형 교수를 음악감독으로, 부산과 대구에서 활동중인 플루티스트들로 결성된 C.C.V 플루트앙상블 창단연주회. 모차르트와 브와모르티에,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연주곡을 들려준다.

::관람료 무료  
::문의 지은이(010-4693-7847)

### 부산한새청소년리코더합주단 리코더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7월 16일 토요일 오후 6: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시내 초, 중등학교 학생들로 결성된 부산한새청소년리코더합주단의 무대.

부산한새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매년 두차례 합숙훈련과 향상음악회 등을 통해 연주 실력을 쌓아오고 있다.

::관람료 무료  
::문의 이재숙(010-6552-2989)

### 해설이 있는 음악회 '토요뮤직점프'

7월 16일 토요일 오전 11: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을숙도문화회관 상주단체이자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되는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 스트링앙상블 '오픈 스트링스' 연주회

7월 18일 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결성된 현악앙상블 '오픈 스트링스(Open Strings)'의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현악 5중주 사단조 K.516  
글라주노프/현악 4중주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  
작품 15

마이클 맥린/여섯 개의 무곡  
· 연주/우소라, 최은해(바이올린), 홍영선, 신지현(비올라), 서송은(첼로), 윤강희(더블베이스)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신지현(010-5882-4565)

### CONTRAST-김영립, 이화영 듀오 리사이틀

7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 하피스트 김영립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단원 플루티스트 이화영이 함께하는 듀오무대. 하프와 플루트의 아름다운 선율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로 꾸며진다.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제 3회 숲 속의 열린 음악회

7월 19일 화요일 오후 8:00 >>>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동래문화회관이 매월 셋째주 화요일 마련하는 상설무대. 소프라노 장희진, 바리톤 김도형, 테너 장진규, 피아니스트 서숙지, 이미라가 출연, 클래식에서부터 가곡, 오페라 아리아,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 을숙도 명품콘서트

7월 19일 화요일 오후 8: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음악사에 빛나는 명협주곡을 중심으로 수준높은 클래식무대를 선보이는 을숙도 명품콘서트.

섬세하고 힘있는 터치가 돋보이는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이조토프의 협연으로 차이코프스키 피아

노 협주곡 제 1번을 들려준다. 예브게니 이조토프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신라대학교 교수로 있다.

· 지휘/윤상운 · 협연/예브게니 이조토프  
· 연주/뉴프라이미 오케스트라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와 함께하는 제 59회 한낮의 유U; 콘서트 여름과 당신의 이야기

7월 19일 화요일 오전 11:00 >>> 서면롯데호텔 아트홀



데뷔곡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로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 추가열과 원미연이 특별게스트로 출연하는 한낮의 유U; 콘서트.

::프로그램  
Over and Over, Mrs Robinson, 너를 잊지 않

을께, 봄날은 간다, 백만송이 장미, 강, 행복해요, 나 같은 건 없나요 등 수곡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국제신문 문화사업국(500-5222)

**부산시립합창단 區문화회관 순회연주  
한 여름의 캠프송**

7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서구지역 주민들을 위해 부산시립합창단이 마련하는 특별무대로 세계민요와 가요, 팝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여성합창/숲속의 삐꾸기, 에델바이스, 라 쿠카라차  
한여름의 캠프송/즐겁게 노래하자(독일민요), 티리툼바,  
내님은 춤 잘춰(이탈리아민요)

추억의 팝송/The power of love, One summer  
night, The lion sleeps tonight 등 수곡

· 지휘/박광해(부산시립합창단 트레이너)

· 특별출연/김정태(기타), 김진훈(드럼)

::관람료 무료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2011 동초제 춘향가 완창 한마당**

7월 22일 금요일 오후 5:00 >>>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다양한 불임새와 정확한 사설이 특징인 故 동초 김연수 선생의 동초제 판소리 '춘향가' 완창무대. 동초제 판소리 보존회 '춘향가' 전수장학생인 신세대 소리꾼 곽은진이 완창 무대를 선보인다.

::관람료 무료

::문 의 (사)동초제 판소리보존회 부산,

경남지회(512-1616, 010-3854-7299)

**계절을 여는 음악회-여름편**

7월 23일 토요일 오후 5:00 >>>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무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에센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이 협연한다.

**::프로그램**

비발디/사계 중 '여름'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 연주/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관람료 균일 10,000원(학생 50%할인)

::문 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목요국악콘서트 '상큼한 여름밤의 July'**

7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전통국악에서부터 창작국악, 퓨전국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음악대륙 가이아'의 목요국악콘서트.

**::프로그램**

Cool, 출강, Feel so good, 그것만이 내 세상 등 수곡

· 연주/손한별(대금), 김원지(해금), 최요섭(피리), 문포근

(가야금), 신정현(기타), 김인균(타악), 김아름(소리)

::관람료 균일 2,000원

::문 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네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콘서트**

7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 시민회관 대극장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로 희망과 감동의 선율을 전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희아 콘서트.

제 7회 전국장애인예술제 최우수상, 장애극복 대통령상, 2008 올해의 신지식인상 등을 수상한 이희

아는 그동안 2000 호주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 축하연주, 통일기원 북한 장애인돕기 자선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베토벤/ '환희의 송가' 중 '기뻐하며 경배하세'

파헬렐/캐논변주곡

쇼팽/즉흥환상곡 등 수곡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A석 20,000원

::문 의 경향신문 부산지사(462-7071)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청소년을 위한 특별연주회  
내 악기를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7월 25일 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5년 창단 이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목관앙상블의 매력을 선사해온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이 청소년을 위해

# Program

## 기타공연장 공/연/안/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로 호른, 비올라, 더블베이스 등 악기 소개와 함께 목관5중주를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5,000원  
::문의 원준연(010-5660-3919)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제 43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7월 31일 일요일 오후 3:00 >>> **글로벌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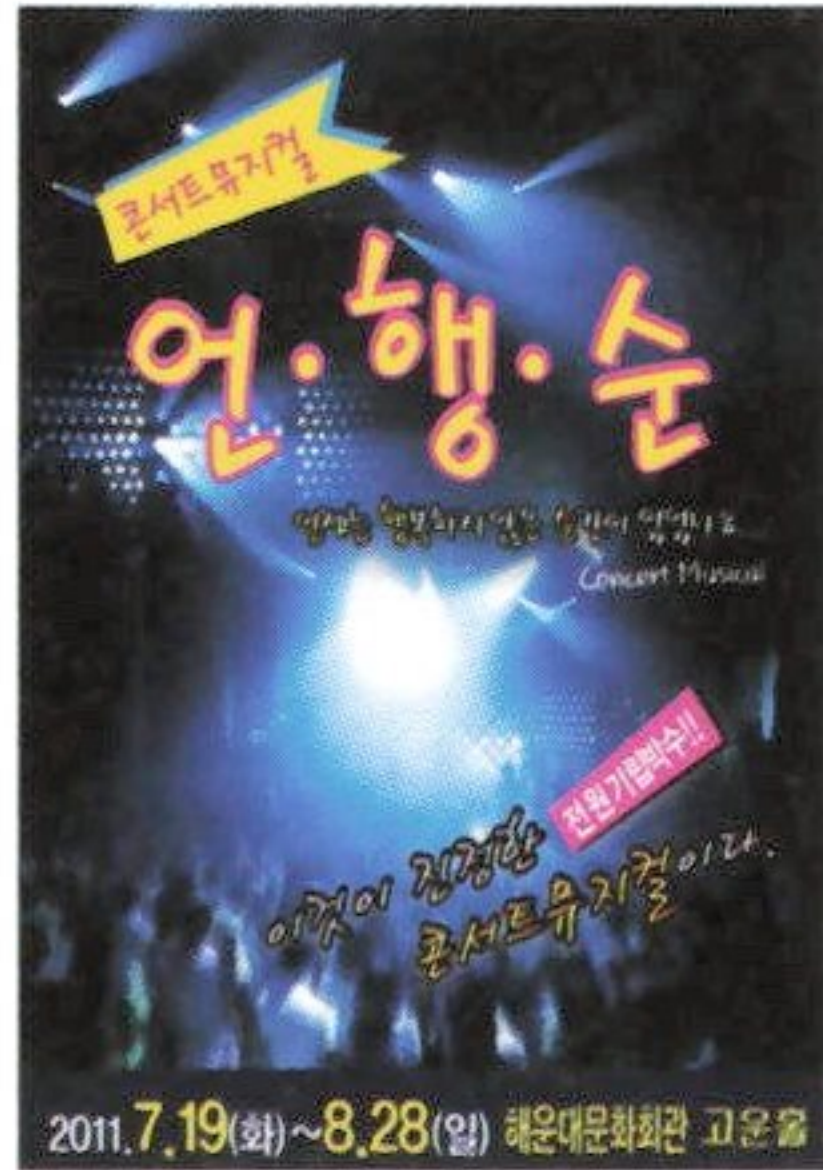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관람료 자율(이웃돕기 성금)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PLAY

**콘서트 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5월 17일(화)~7월 1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6:00  
(월요일 휴관) >>> **SM아트홀 2관**  
7월 19일(화)~8월 2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  
(월요일, 8/15일 휴관) >>>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2011.7.19(화)~8.28(일)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옛 연인을 잊지 못하는 남자 태양과 그 남자만을 10년째 바라만 보는 여자 두나, 그들의 상처와 사랑을 감성적으로 그려낸 콘서트 뮤지컬.

·작, 연출/김인성  
::관람료 균일 3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2011 극단 새벽 기획전 니르바나로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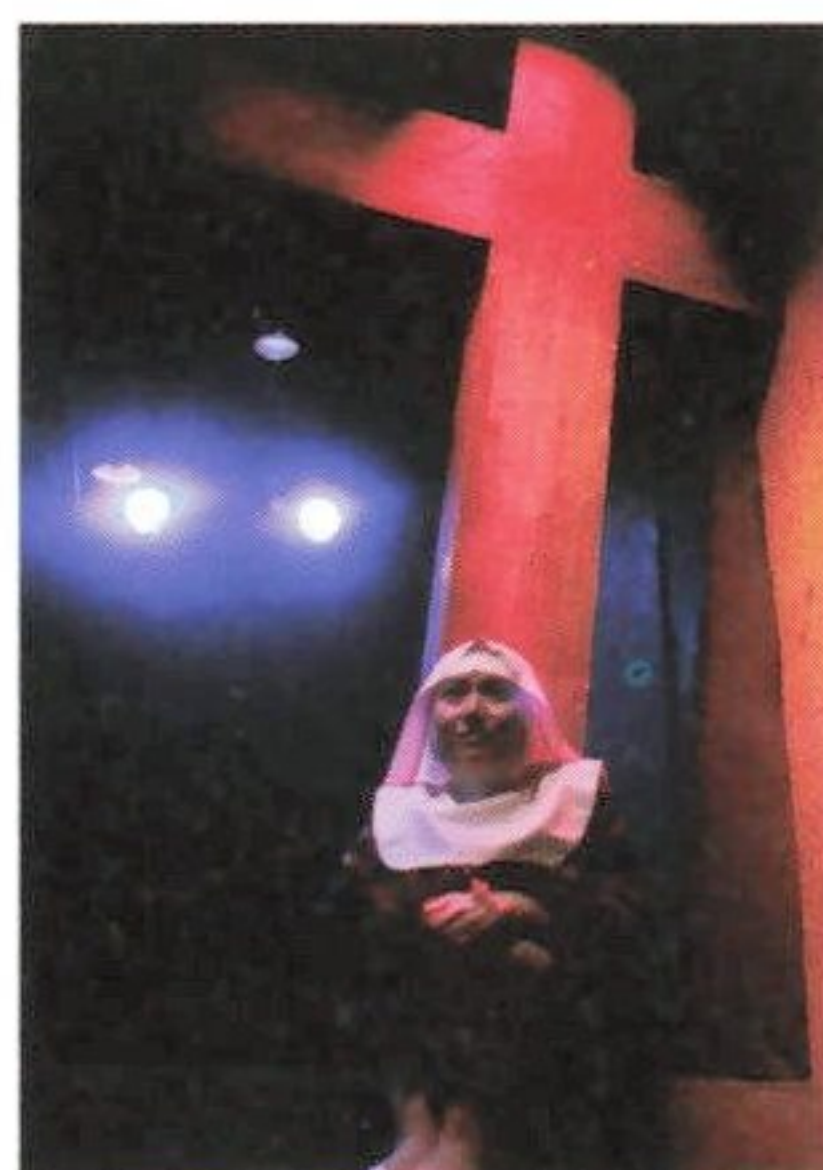
5월 19일(목)~7월 30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화요일 공연없음) >>> **소극장 실천무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표적인 진보 작가로 알려진 '아돌 후가드'의 '메카로 가는 길'을 읽고 떠올린 단상으로 새롭게 창작한 독후감 연극.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 스릴러 심리 라이브뮤직극 '신의 아그네스'

5월 27일(금)~7월 1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00, 일·공휴일 오후 2:00(월요일 공연없음)  
>>> **AN아트홀.Red**



'갓 낳은 아기를 목 졸라 죽인 수녀'라는 충격적인 소재로 이 시대 기적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존 필미어 원작의 '신의 아그네스'.

추리와 반전, 날카로운 심리게임이 생생한 피아노

라이브 연주로 긴장감을 더해준다.  
::관람료 균일 3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 공포연극 '두여자'

6월 1일(수)~8월 2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SM아트홀 1관**

상상을 뒤집는 탄탄한 스토리와 잔인한 반전, 무대적 장치로 공포감을 선사하는 공포연극 '두여자'.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 뮤지컬 '락시터'

6월 3일(금)~7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  
(월요일 휴관)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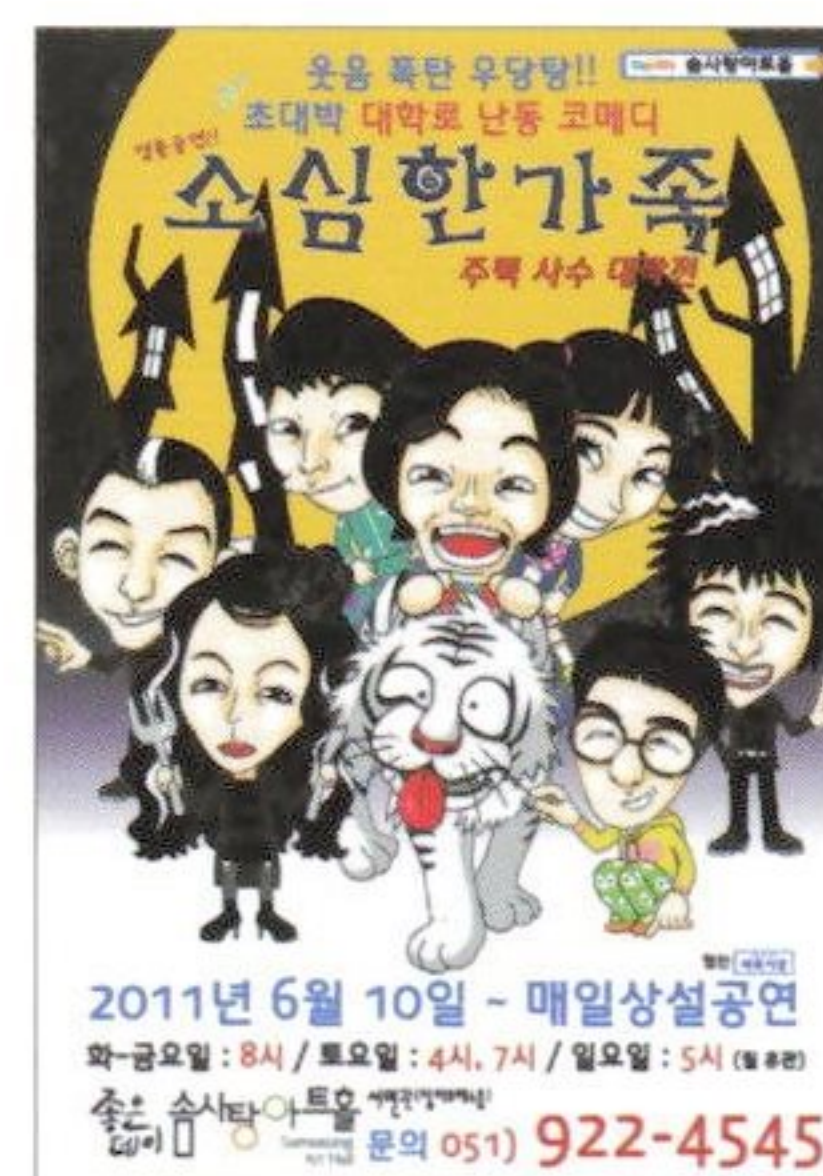
다양한 인간군상들의 가슴 따뜻한 삶을 폭넓은 공감대로 풀어낸 코미디 뮤지컬 '락시터'.

·작, 연출/위성신  
·출연/김탄현, 유승일, 김도원, 이성욱, 맹상렬, 강민호, 김시권, 오의식 외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 연극 '소심한 가족'

6월 10일(금)~오픈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좋은데이 솜사탕아트홀 1관**



소심함의 끝을 보여주는 소심한 가장 김천식과 그의 가족이 펼치는 주택사수 대작전 창작코미디극 '소심한 가족'.

·출연/김욱, 홍순목, 신성민, 황세원, 김호원 외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좋은데이 솜사탕아트홀(922-4545)

### 연극 '라이어\_튀어!!'

6월 10일(금)-7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휴관)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우연히 택시 안에서 자신의 가방과 야쿠자의 돈가방을 바꿔두고 내린 주인공의 물고물리는 헤프닝을 그린 코믹극.

·작/레이 쿠니  
 ·연출/이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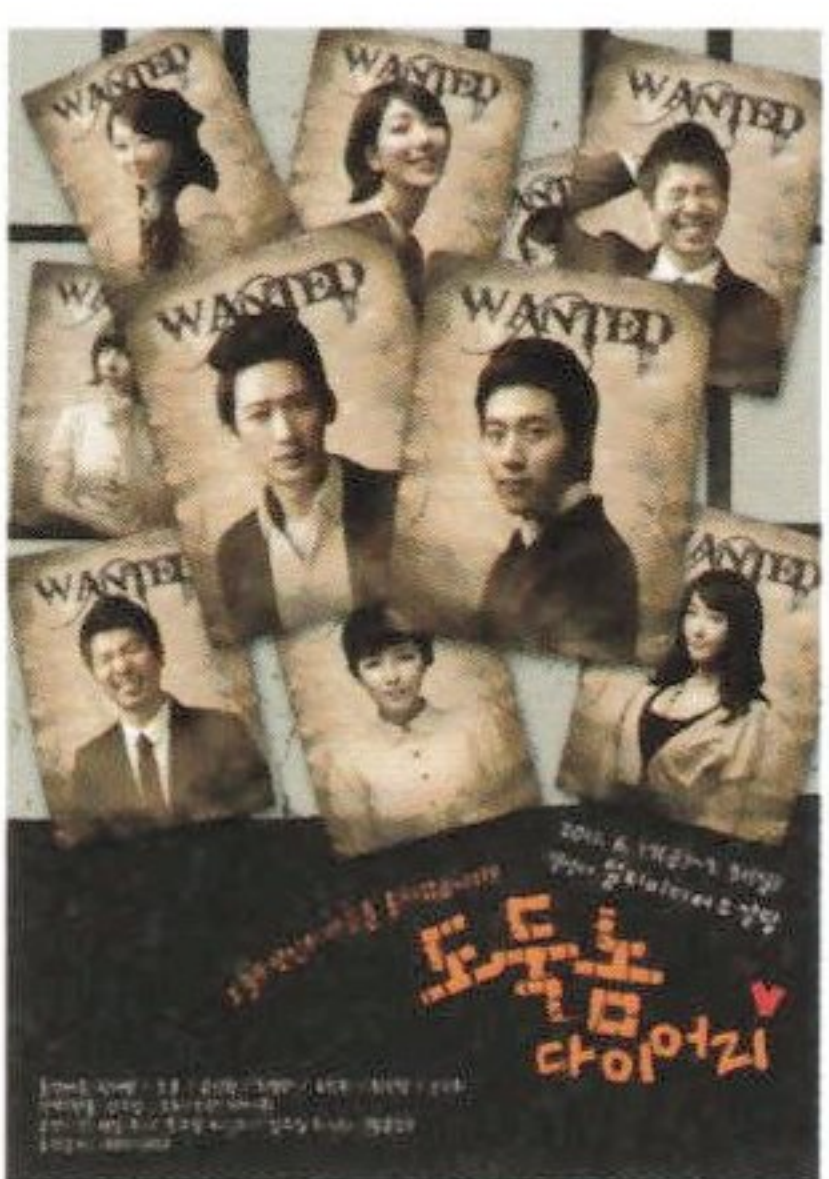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 연극 '도둑놈 다이어리'

6월 17일(금)-7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 소강당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도둑질을 하는 의좋은 형제가 사랑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벌어지는 헤프닝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연극 '도둑놈 다이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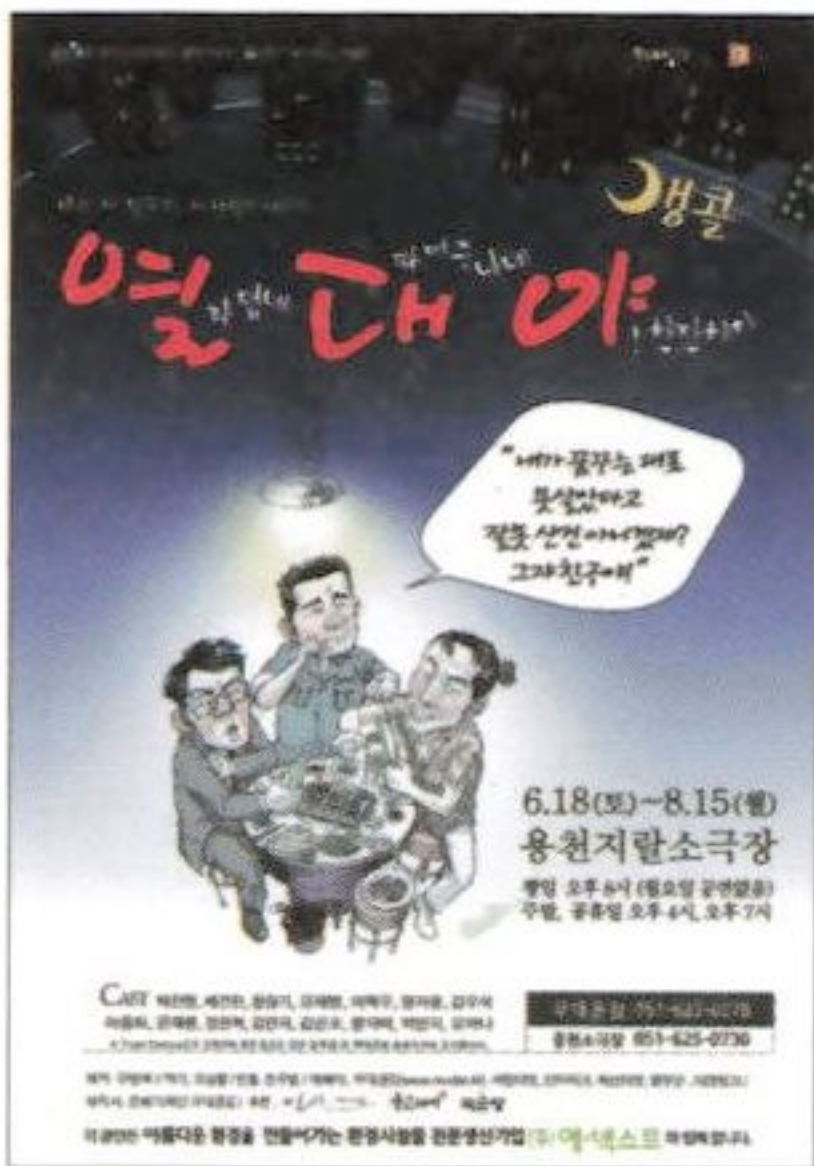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 열대야

6월 18일(토)-8월 15일(월) 평일 오후 8:00,  
 주말, 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 용천지랄소극장



평범한 남자들의 일상을 통해 그들이 풀어놓는 좌충우돌 요절복통 세상이야기 '열대야'.

·작/오승일

·연출/전주협

출연/박찬영, 배진만, 황창기, 유재명, 이혁우,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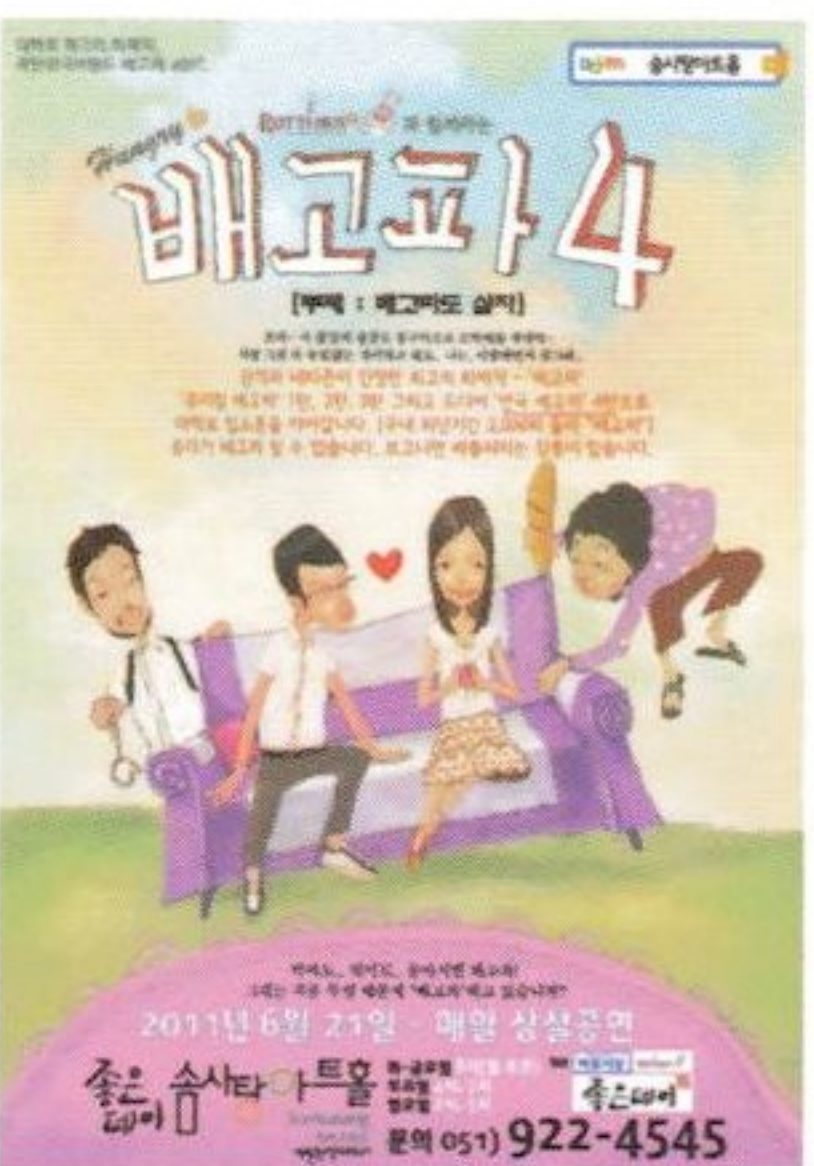
지웅 정원혁 이종화, 김우식, 윤재평, 황자미 외

::관람료 일반 30,000원, 청소년 20,000원

::문의 문화기획단 무대공감(623-0678)

### 연극 '배고파 4'

6월 21일(화)-오픈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좋은데이 솜사탕아트홀 2관



영동한 시인 지망생과 청순발랄 4차원 아가씨, 아픔을 안고 사는 자살방지형사와 우악스럽지만 사랑스러운 할머니, 이들이 만나 좌충우돌 쌓아가는 사랑이야기를 그린 창작 코미디극 '배고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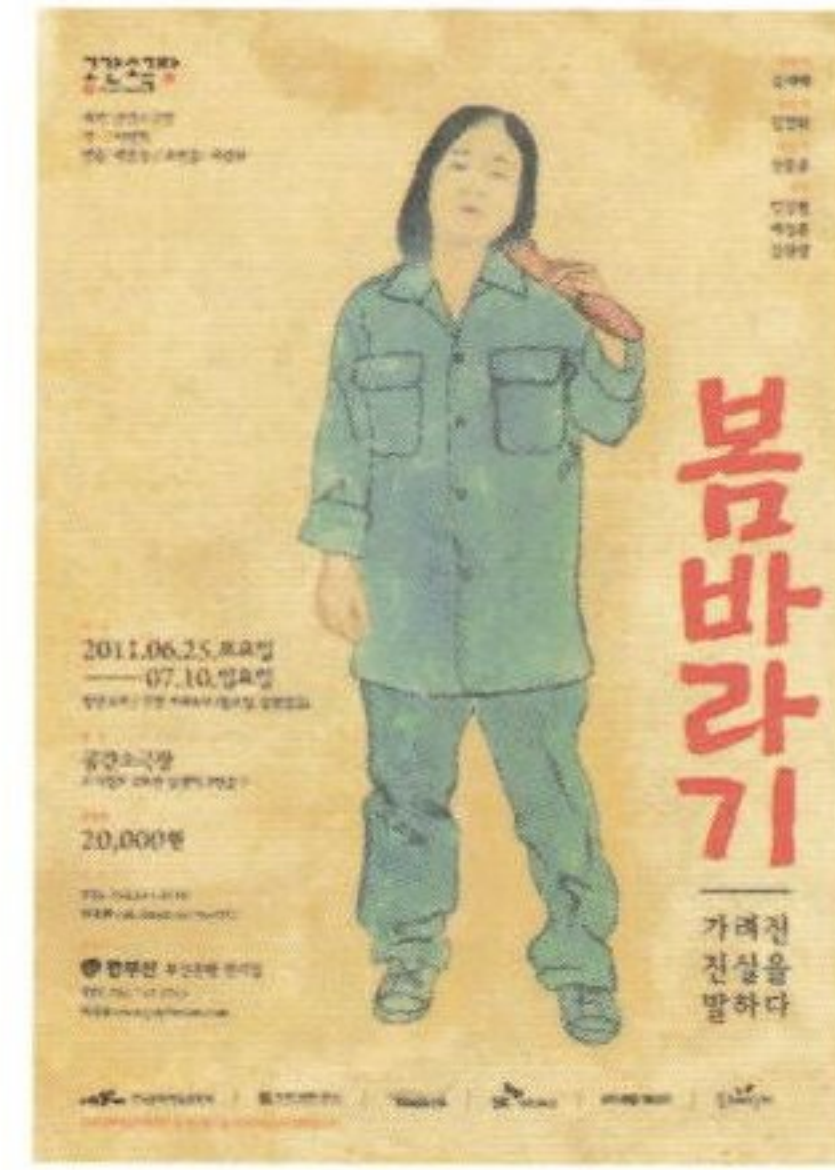
·출연/최광수, 임희철, 우하나, 유보라, 공병훈, 이남호, 최미지, 김은주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좋은데이 솜사탕아트홀(922-4545)

### 연극 '봄바라기'

6월 25일(토)-7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 공간소극장



지리산 마지막 빨치산이었던 정순덕의 삶을 통해 이데올로기에 가려졌던 우리 이웃 '정순덕'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창작극.

·작/이덕희

·연출/박훈양

·출연/김지혜, 김경환, 신동훈, 김선정, 엄창완, 배성운

::관람료 균일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 창작단막극제 시즌 1

#### 연극연출가 6인의 실험무대 '나는 연출이다'

7월 1일 금요일 오후 7:00, 2일-3일 토-일요일  
 오후 4:00 >>> 청춘나비아트홀



부산 출신의 극작가와 연출가들의 실험과 도전, 교류의 장이 될 창작단막극제 시즌 1.

오치운, 양지웅, 주혜자, 김형건, 김민우, 장우성 등 6명의 연출가들이 20~30분내 초단막극을



부산악기시 www.piano123.co.kr

대표 강규찬(조율사)  
 H.P. 017. 556. 9410  
 051)758-5450,5445

■그랜드피아노(전공자용, 연주용) 조율, 수리, 대여, 리빌더 전문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 Program

##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릴레이 형식으로 연속 상연한 후 공연장을 찾은 전문 연극인과 관객들의 평가를 받아 마지막날 결과를 발표하는 색다른 경연 페스티벌로 치러진다.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청춘나비아트홀(070-8241-2560)

### 제 1회 부산 창작 1인극 페스티벌 영순아 어디가니

7월 1일(금)-1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 **마리내소극장**



부산지역 극작가들의 창작희곡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 변함없이 무대를 지켜온 실력파 배우들이 펼치는 창작 1인극 열전 마지막 무대.

구민주의 1인극 '영순아 어디가니'는 자살증후군에 시달리는 영순이의 삶을 강렬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무대로 선보인다.

·작/이흔주 ·연출/호민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 의 극단 아센(504-2544)

### 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7월 1일(금)-8월 2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자살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업이 존재한다는 기발한 연극적 상상에서 출발, 누구에게나 삶은 소중한다는 교훈을 던지는 블랙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 의 SM기획(1600-1602)

### 뮤지컬 '아이 러브 유'

7월 2일 토요일 오후 3:00, 7:00, 3일 일요일 오후  
2:00, 6:00 >>>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남녀의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 육아, 가족, 노년기의 사랑까지 로맨스에 관한 모든 에피소드를 담은 옴니버스 뮤지컬 '아이 러브 유'.

'아이 러브 유'의 원조 로맨틱 가이 남경주와 선우, 한 애리, 이민아 등이 출연, '사랑'이라는 주제로 멋진 하모니로 들려준다.

::관람료 VIP석 66,000원 · R석 55,000원  
S석 44,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SM기획(1600-1602)

### 마스크플레이 가족뮤지컬 '매직 신데렐라'

7월 2일-3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새엄마의 구박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신데렐라의 행복찾기를 그린 마스크 플레이 가족뮤지컬.

::관람료 균일 20,000원(예매시 40% 할인)

::문 의 즐겨찾기(1544-1718)

### 전태일 열사 40주기 기념 연극 재공연 엄마, 안녕

7월 7일(목)-16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 **일터소극장**

2010년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기념해 무대에 올렸던 연극 '엄마, 안녕' 재공연.

대만의 연출가 왕모링 감독이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직접 만나 구상한 '엄마, 안녕'은 전태



일 열사가 분신하기 전 어머니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퍼포먼스 아트 형식으로 선보인다.

·구술/이소선  
·기록/이도엽  
·구성, 연출/王墨林  
·출연/백대현, 홍승이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전화예매시 30% 할인)

::문 의 연극놀이터 썸(518-1375)

### 어린이뮤지컬 '넌 특별하단다'

7월 9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0일  
일요일 오후 1:00, 3: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실수투성이지만 마음착한 주인공 펀치넬로가 친구 루시아를 만나 진정한 우정을 발견하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의 어린이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인 맥스 루케이토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2004 KBS국악대상 작곡 및 지휘 부문을 수상한 작곡가 신동일이 작곡과 예술감독을 맡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관람료 1층 25,000원 · 2층 20,000원

::문 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 연극 '바보 추기경'

7월 13일(수)-20일(수)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7:30 >>> **시민회관 소극장**

김수환 추기경 선종 2주기를 맞아 김수환 추기경의 일대기를 담은 연극 '바보 추기경'.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몸소 겪으며 참된 지도자로 대중들의 존경을 받았던 김수환 추기경의 영웅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진솔했던 모습을 보여준다.

·원작/현미혜 ·연출/지성구  
·드라마투르기/함혜원  
·출연/우기홍, 권영옥, 김종대, 최영도, 류선영, 유용성, 조지현, 황성윤, 권윤구, 계기성, 오정민



::관람료 일반 30,000원 · 초중고생 10,000원

::문의 가톨릭문화기획 IMD(600-8871)

### 공포연극 '다락'

7월 15일(금)-8월 7일(일)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7:30, 9: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 BS부산은행조은극관 1관



2006년 '죽었다, 그녀가'를 시작으로 심야 공포연극의 장르를 개척해온 연출가 오승수가 새롭게 선보이는 공포연극 '다락'.

섬세하면서도 디테일한 조명과 음향, 마술사 정대성이 펼치는 pin poinr 마술이 극적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

- 연출/오승수
- 특별출연/정대성(마술사)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S부산은행조은극관(1588-2757)

### 가족뮤지컬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엄마'

7월 1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7일  
일요일 오후 1:00, 3: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빨래하기를 좋아해 도깨비까지 빨아버린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일본 작가 사토 와키코의 동화를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작품.

::관람료 1층 25,000원 · 2층 20,000원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 개그판타지쇼

7월 16일 토요일 오후 4:00, 7:30 >>> KBS 부산홀

'개그콘서트' 출연 개그맨들이 펼치는 한바탕 폭소 한 마당.

2011년 최고의 인기 코너 '발레리노'를 비롯해 화제의 개그코너를 라이브무대로 선보인다.

::관람료 VIP석 66,000원 · R석 55,000원

S석 44,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 연극 'Ile de ILL'

7월 16일(토)-3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 공간소극장



공간소극장 2011년 창작 인큐베이터 9번째 작품으로,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하고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 소설가 ILL과 그의 내적자아 LEE를 통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그린 연극 'Ile de ILL'.

- 작/김지숙 · 재구성, 연출/강태욱
- 출연/엄준필, 송준승, 박선희, 이재우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 콘서트뮤지컬 '배달왔습니다'

7월 19일(화)-10월 3일(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SM아트홀 2관

20년만에 찾은 고향에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꿈과 열정, 첫사랑의 가슴 따뜻하고 애절한 추억을 아름다운 선율로 풀어낸 콘서트 뮤지컬.

· 출연/김민경, 허현, 정도훈

::관람료 균일 3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 콘서트 뮤지컬 '피크를 던져라'

7월 21일(목)-3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연극과 뮤지컬, 콘서트가 함께 어우러지는 화려하면서도 신나는 무대 콘서트 뮤지컬 '피크를 던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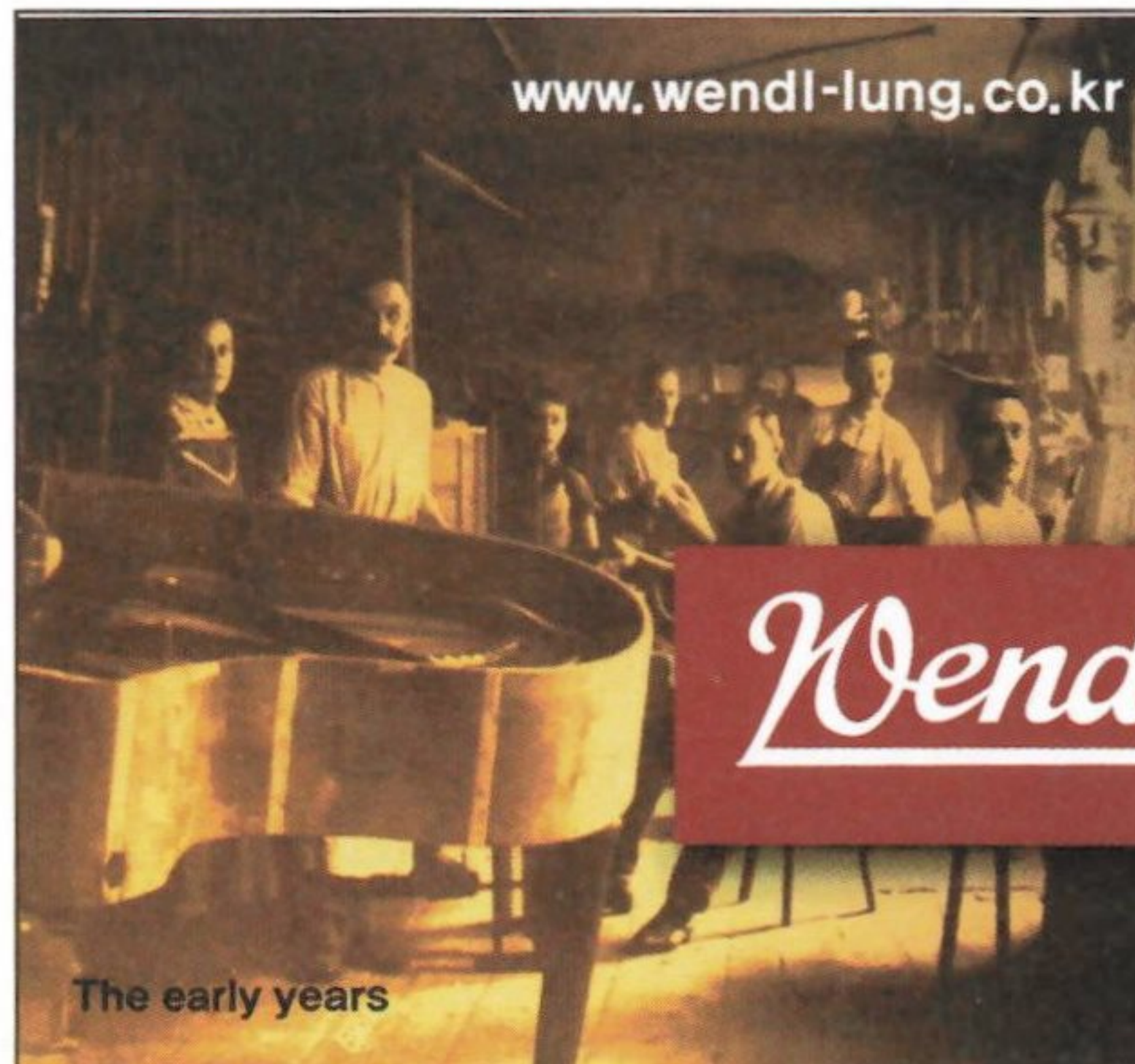
락 밴드 '비온뒤 비' 멤버들의 꿈과 사랑이 열정적인 락 음악 속에 감동으로

다가온다.

::관람료 1층 40,000원 · 2층 30,000원

(학생 단체 20인 이상 30% 할인)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 |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 Program

## 기타공연장 공/연/안/내

### 마스크플레이 뮤지컬 '피터팬'

7월 22일(금)-30일(토) 월·목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화·수·금요일,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 MBC롯데아트홀



정교하게 제작된 캐릭터 가면을 쓰고 공연하는 새로운 방식의 마스크플레이 뮤지컬 '피터팬'. 꿈의 나라 '네버랜드'를 그대로 옮겨놓은 무대 연출과 하늘을 나는 플라잉 연기로 어린이들을 무한

한 상상력의 세계로 이끈다.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20,000원

::문의 MBC롯데아트홀(1688-8998)

### 어린이 뮤지컬 '잭과 콩나무'

7월 22일 금요일 오전 10:30, 11:40,  
23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3:00,  
24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콩나무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용감한 소년 잭이 펼쳐는 신나는 모험의 세계 '잭과 콩나무'.

::관람료 균일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8,000원 할인)

::문의 라일락향기(626-1722~3)

### Creative group 노니 '꼭두'

7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전통연희와 무대미술의 결합으로 만난 젊은 작가집단 'Creative Group 노니'가 남사당의 전통인형극 '꼭두각시놀음'을 새롭게 창작한 연희극 '꼭두'.

2007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창작연희 작품공모 당선작인 '꼭두'는 당대의 시대상을 해학적으로 풍자한 작품으로, 인형극과 그림자극, 가면놀이 등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관람료 무료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7월 30일-31일 토-일요일 오후 3:00, 6:00

>>> KBS 부산홀



거리의 춤꾼 비보이와 우연히 사랑에 빠지게 되는 발레리나의 이야기가 우아한 발레와 화려한 브레이크 댄스 속에 펼쳐지는 넘버벌 퍼포먼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미국 브로드웨이 장기공연,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되는 등 화제를 모았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올해 6월 중국 베이징 문화예술특구에 상설전용관을 개관했다.

::관람료 VIP 60,000원 · R석 50,000원

S석 40,000원

::문의 쇼비보이(주)(02-2266-3727)

## DANCE

### 금요해피콘서트

### 매혹적인 열정의 몸짓 살사댄스

7월 1일 금요일 오후 8:00 >>>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을숙도문화회관이 매월 첫째주 금요일 마련하는 상설 무대.

아우라댄스팀이 출연, 정열적인 살사댄스를 선보인다.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11)

### 지젤-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7월 2일-3일 토-일요일 오후 5:00 >>> LIG아트홀 부산



세계 3대 발레단인 프랑스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단의 동양인 최초의 솔리스트로 화제를 모은 세계적인 발레리노 김용걸의 안무로 새롭게 탄생한 '지젤-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낭만발레의 대표작 '지젤' 속 주인공들의 관계를 재조명, 로맨틱 발레의 새로운 낭만을 제시한다.

· 안무/김용걸

· 출연/김용걸, 조정희, 홍정민

· 특별출연/김한솔, 이은수

· 연주/신재민(피아노), 임지민(바이올린)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20,000원

::문의 LIG아트홀 부산(1544-3922)

### 창작춤 '인당수에 떠오른 호'

7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무용특별연구  
과정 부산동문회 회원들이 선보이는 효녀 심청의 지극  
한 효심을 그린 창작춤 '인당수에 떠오른 효'.

- 구성, 안무/박경량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신예담(010-5473-3241)

### 2011 윤여숙의 춤 세월을 머금은 춤의 향연

7월 6일 수요일 오후 7:0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부산시무형문화재 제 10호 동래고무 이수자로 우리 전  
통춤 전승에 앞장서온 윤여숙의 2011년 춤판.  
산조의 명인 강태홍 선생의 산조 가락에 춤을 엮은 '강  
태홍류 산조춤'을 비롯해 궁중무고의 형식을 배제하고  
민속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흥과 멋스러움을 강조한 동  
래고무, 정적인 가운데에 무한히 품어 나오는 강력한  
힘의 에너지를 특유의 여성성으로 표현한 창작춤 '함  
(숨:머금다)'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 ::프로그램
- 강태홍류 산조춤, 동래고무(재구성), 이매방류 살풀이  
춤, 동래입춤, 창작작품 '함(숨:머금다)'
- 예술감독/김온경
- 안무/윤여숙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윤여숙(011-865-6873, 555-0092)

### 평양예술단 초청공연

7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북한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던 재능있는 예술인들로  
결성된 평양예술단 초청공연.



현재 남한에서도 널리 알  
려진 북한 민요와 동요,  
전통춤, 아코디언 연주,  
탈북인의 애환을 담은 만  
담 등 평소에 잘 접할 수  
없었던 북한의 문화예술  
을 직접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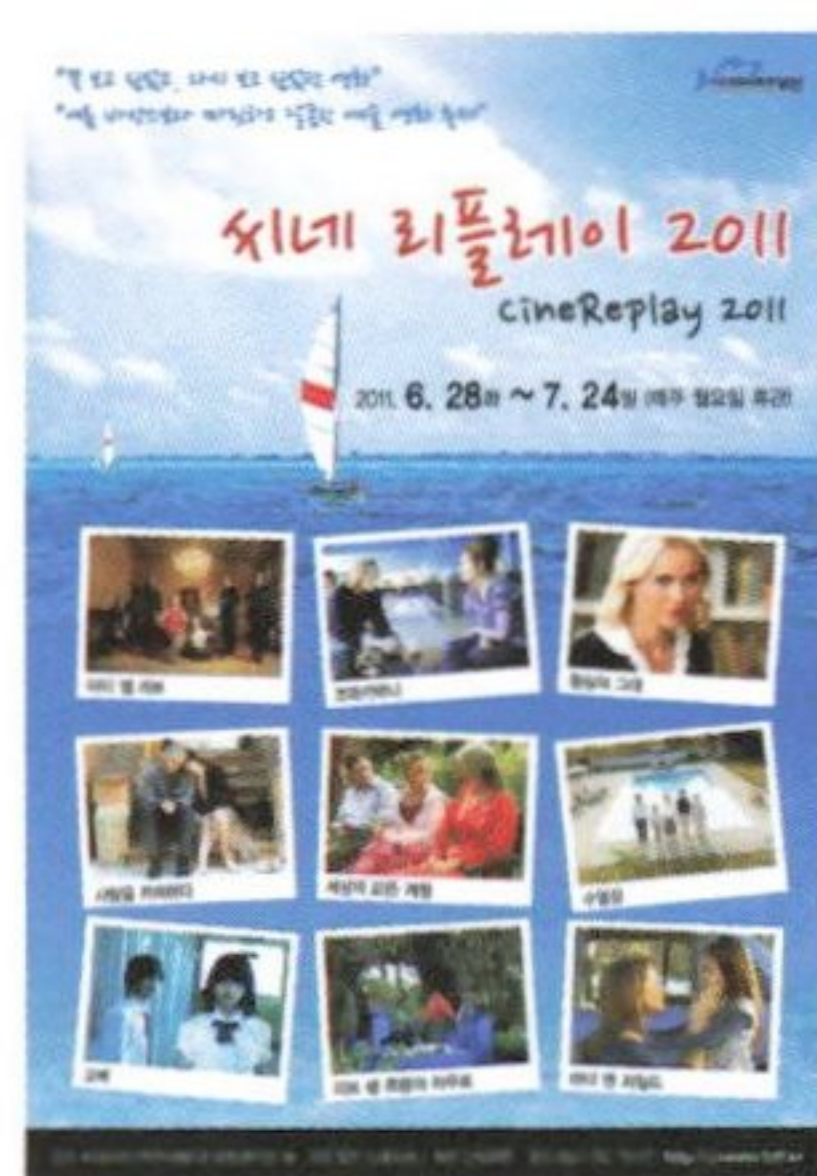
- ::프로그램
- 반갑습니다, 휘파람, 노들강변, 평양처녀 시집와요, 쟁  
강춤, 물동이춤, 칼춤, 아박무, 사당춤 등
- ::관람료 VIP 40,000원 · 1층 30,000원  
2층 20,000원  
(학생 20%, 20명 이상 단체 30% 할인)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MOVIE

### 씨네 리플레이 2011

6월 28일(화)-7월 24일(일)

>>> 시네마테크 부산(상영시간 홈페이지 참조)



2011년 상반기 개봉한 예  
술영화 중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던 9편의 영  
화를 상영하는 '씨네 리플  
레이 2011'.

- ::상영작
- 아이 엠 러브(감독/루카  
구아다그니노)
- 환상의 그대(감독/우디 앨런)
- 세상의 모든 계절(감독/마이크 리)
- 고백(감독/나카시마 테츠야)
- 사랑을 카피하다(감독/압바스 키아로스타미)
- 이브 생 로랑의 라무르(감독/피에르 소레톤)
- 코파카바나(감독/마크 피투시)
- 마더 앤 차일드(감독/로드리고 가르시아)
- 수영장(감독/오모리 미카)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cinema.biff.kr)

## CONCERT

### 먼데이키즈 전국투어콘서트

7월 2일 토요일 오후 4:00, 8:00 >>> 시민회관 대극장

-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주)WSM(1566-5490)

### 2011 변진섭 전국투어콘서트

7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7:00 >>> 시민회관 대극장

-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주)WSM(1566-5490)

### 2011 김연우 콘서트 '戀雨 속 연우'

7월 9일 토요일 오후 4:00, 8:00 >>> 시민회관 대극장

- ::관람료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A석 77,000원
- ::문의 (주)WSM(1566-5490)

### 재즈, 와인에 빠지다

7월 15일 금요일 오후 8:00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1999년 결성된 후 보사노바,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  
를 통해 대중과 만나오고 있는 부산 재즈계의 버팀목  
Cho-i band 무대.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문의 문화기획단 무대공감(623-0678)

### 신혜성 콘서트 'The Road Not Taken'

7월 23일 토요일 오후 7:00 >>> KBS 부산홀

- ::관람료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A석 66,000원
- ::문의 (주)WSM(1566-5490)

# Program

##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 2011 김경호 콘서트-부산

7월 23일 토요일 오후 7: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관람료 VIP석 55,000원 · R석 44,000원  
S석 33,000원

::문의 대웅E&S(1588-1718)

## EVENT

### 제 104회 부산시울림 시낭송회 저녁에 만나는 아름다운 시

7월 6일 수요일 오후 7:00 >>>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박송죽, 김정순, 이희철, 심호섭, 이은주,  
서진(소설가)

::관람료 무료

::문의 김예강(010-5516-1867)

### 이영란의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부산체험전

7월 8일(금)-8월 21일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2층 다목적홀



밀가루를 반죽하고, 굽고,  
뿌려보는 다양한 행위를  
통해 어린이의 오감을 자  
극하는 체험놀이전 '가루  
야 가루야'.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의 Knp엔터테인먼트  
트(1599-8879)

### 미술놀이 체험전

7월 8일(금)-8월 28일(일) >>> 경성대학교 미술관

신나고 재미있는 체험으로 어린이들의 무한한 상상력  
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미술놀이 체험전.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

::관람료 일반 11,000원

24개월~고등학생 13,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00원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 제 5회 운동주 문학예술제

7월 9일 토요일 오후 1: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일제 강점기 민족의 암울  
한 역사성을 노래한 시인  
운동주의 문학정신을 계  
승하고 호국 의지를 높이  
기 위해 매년 마련해온 운  
동주 문학예술제 2011년  
무대.

▶제 3회 운동주 학생백

일장

오후 1:00 >>> 야외공연장

· 접수기간/6월 8일(수)-7월 8일(금)

▶제 5회 운동주 문학예술제 개막식

오후 3:00 >>> 소공연장

▶제 1회 운동주 학생골든벨 오후 3:40 >>> 소공연장

· 참가대상/부산지역 거주 중 · 고등학생 60명

· 접수기간/6월 8일(수)~선착순 마감

▶운동주 창작시극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오후 5:10 >>> 소공연장

· 작/이상열 · 연출/김우진

· 출연/권혁진, 이동현, 박창화, 이미숙, 김우진 외

· 시낭송/김명화, 박현경, 이미숙, 이해숙, 전미란

::문의 천향미(010-7167-0567)

### 부산수필문인협회 제 40회 수필낭송회 시민과 수필의 만남

7월 19일 화요일 오후 7:00 >>>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참가대상/일반인, 중고생, 문학인

· 참가신청/7월 12일까지 접수

::문의 부산수필문인협회(746-9385,

cafe.daum.net/busanessayist)

### 제 11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7월 27일(수)-8월 7일(일) >>> 밀양연극촌



개막작 국립남도국악원 '굿극 씨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연예술축제로 성장한 밀양여름  
공연예술축제 2011년 무대. '연극이 현실에게 질문을  
던지다' 라는 주제로, 국립남도국악원 '굿극 씨금'을 비  
롯해 차세대 신진연출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젊은  
연출가전', 연희단거리패 25주년 기념공연, 대학극전,  
해외교류기획전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젊은 연출가전'에서는 극단 골  
목길의 '속살(연출/이은준)', 극단 죽죽 '라디오(연출/  
윤장호)', 극단 드림 플레이 '죽어도 가족(연출/백운  
철)', 극단 노마즈 '어멈(연출/김민경)' 등 대학로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극단의 차세대 신진 연출가들  
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연희단거리패 25주년 기념공연으로는 연희단거리패의  
차세대 연출가 3인이 선보이는 '방바닥 굽는 남재(연  
출/이윤주)' '길바닥에 나왔다(연출/오동식)' '판 엮고  
튀!(연출/김지훈)'와 신작 '자장가(연출/남미정)', 연희  
단거리패의 대표적 레퍼토리 '어머니' '오구' '살아있  
는 이중생각하' 등을 선보인다.

::문의 밀양연극촌(055-355-2308)

## GALLERY

###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개관전 내가 그린 그림은...

4월 2일(토)-8월 28일(일)

>>>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롯데갤러리 광복점 제 1회 야외조각전  
Sky:High展**

4월 29일(금)-7월 5일(화)

>>> 롯데백화점 광복점 옥상공원

::문 의 롯데갤러리 광복점(678-2610~2)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기획전  
한국현대조각의 동향:  
구상조각에서 미니멀리즘조각까지**

5월 28일(토)-7월 10일(일)

>>>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사실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40)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展**

6월 15일(수)-7월 5일(화)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특별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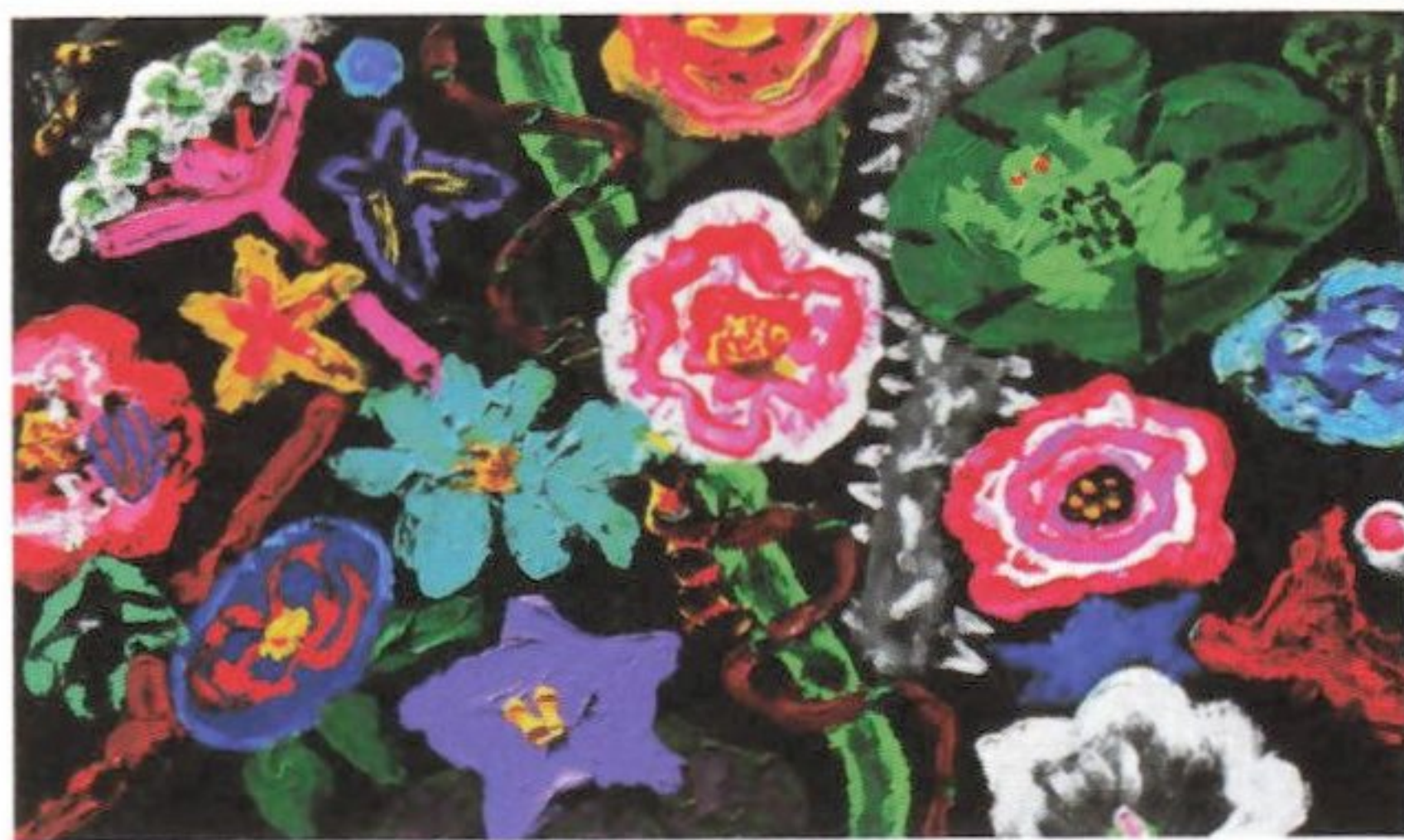
우화적이고 해학적인 작품세계로 널리 알려진 서양화가 안윤모와 김태영, 김세중, 계인호, 이승훈, 이병찬, 조재현 등 발달장애 아동 6인의 작품 100여점이 선보이는 특별전.

::관람료 무료(전화 접수)

::문 의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749-9511)

**김중학展**

6월 18일(토)-7월 21일(목) >>> 갤러리 다운타운



한국 현대미술과 함께 해온 김중학 화백의 대표작 설악의 풍경에서부터 그동안 잘 접할 수 없었던 1970년대 말 뉴욕시절의 소품과 인물화, 드로잉, 수묵화 등

올해로 화업 60년을 맞는 작가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문 의 갤러리 다운타운(746-8353)

**환경체험전 '지렁이야 지구를 지켜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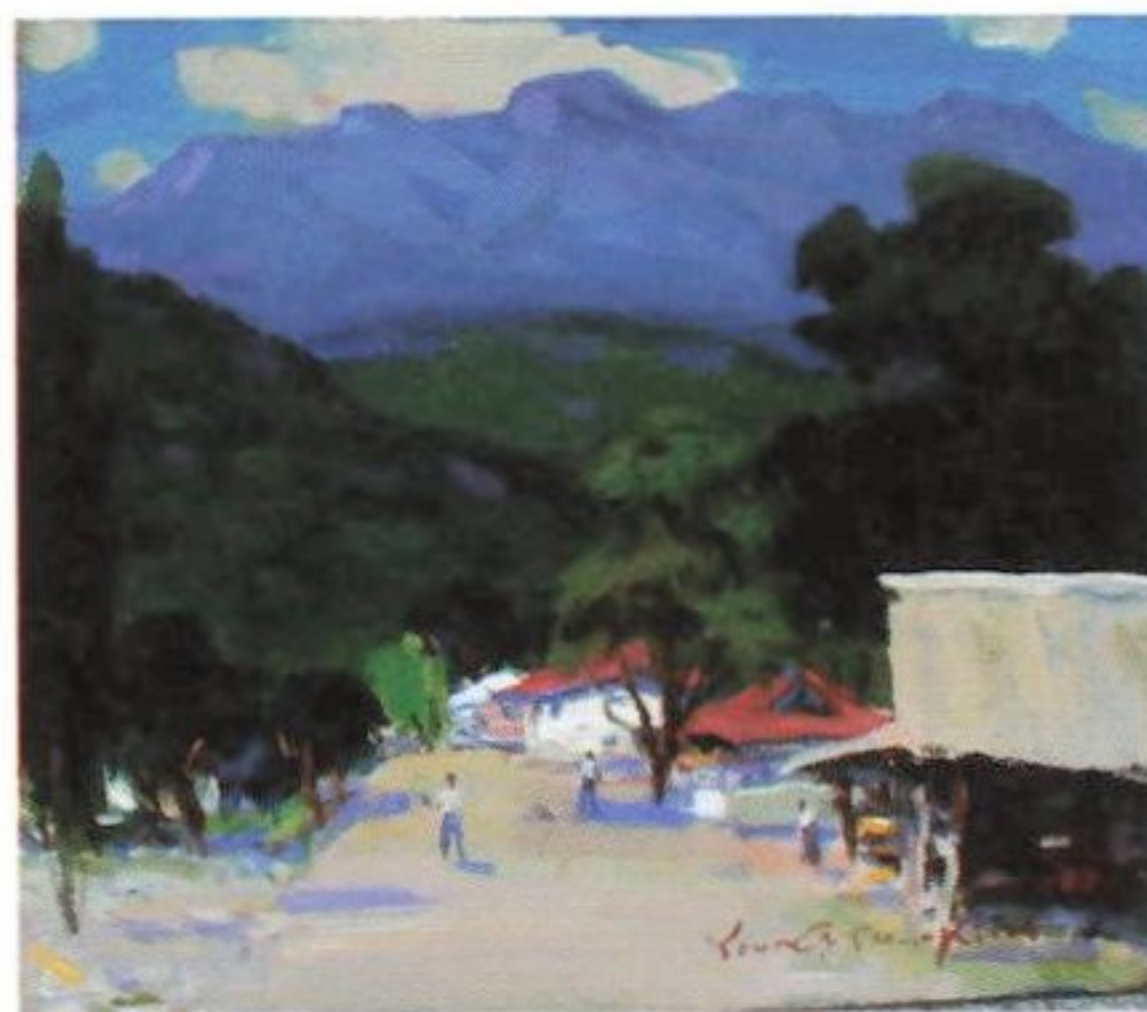
6월 25일(토)-7월 20일(수) >>> 롯데갤러리 광복점

'환경'을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일상 생활속에서 실천과제를 일깨워주는 환경체험전.

::문 의 롯데갤러리 광복점(678-2611)

**타워갤러리 이전개관 특별전  
한국화 · 문인화 · 서예 · 서양화 · 수채화 ·  
도에 100인전**

7월 1일(금)~7월 31일(일) >>> 타워갤러리



김영태 작 '산촌하경'

::문 의 타워갤러리(-464-3939)

**옵-키네틱 아트의 거장 '크루즈 디에즈'展**

7월 2일(토)-7월 21일(목)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베네수엘라와 유럽 전역에서 전시되었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대표적인 표현양식인 선과 색을 이용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크루즈 디에즈'展.

::문 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갤러리 봄디 '남풍이 불다'展**

7월 12일(화)-7월 30일(토) >>> 갤러리 봄디

대구, 경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병수, 손경수,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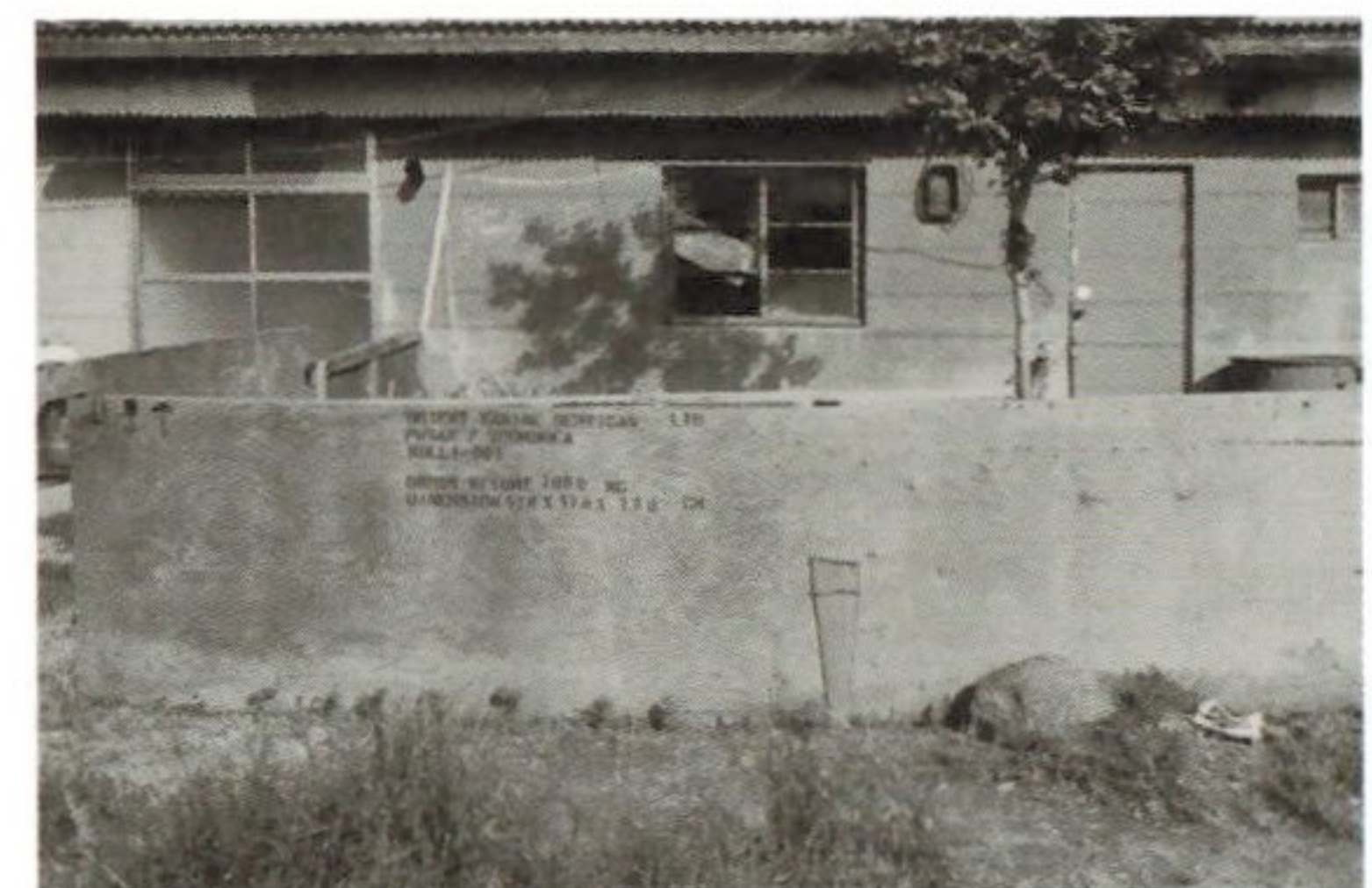
김병수 작 'Dream-azalea'

지락, 홍경표 등 4인의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 전시.

::문 의 갤러리 봄디(070-7720-6862)

**고은사진미술관 본관 기획전  
부산사진의 재발견 : 징후로서의 사진展**

7월 16일(토)-9월 25일(일) >>> 고은사진미술관 본관



이순행 작 '부산 01'

1990년대 주목하는 일상, 주변 등 중심의 해체라는 이슈를 가지고 부산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작가 김경덕, 이순행의 2인전.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 본관(744-3924)

**고은사진미술관 신관 기획전  
부산사진의 재발견 : 기억과 트라우마展**

7월 16일(토)-10월 2일(일) >>> 고은사진미술관 신관

사진활동이 본격화된 1930년대부터 1980년까지의 부산사진의 역사를 정리하는 기획전.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 신관(746-0055)

**2011년도 제 37회 부산미술대전**

7월 22일(금)-8월 21일(일) >>> 부산시립미술관

::문 의 부산미술협회(632-2400)



## 한국의 정서가 가득한 초상곡 恨·꿈·그리움 ... After a dream

김희성\_동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지난 5월 15일 음악가 모친의 부음소식이 신문에 실렸다. 음악가도 아닌 음악가의 모친의 부음소식이 실린 것은 이례적이겠지만 '정 트리오'의 모친 이원숙 여사라면 이해가 될 것이다. 1918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6·25전쟁 등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대관령국제음악제 예술감독인 첼리스트 정명화, 미국 줄리아드 음악원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서울시향 예술감독인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정명훈이라는 세계적인 음악가를 길러냈다. 서양음악을 받아들이고 보급된 지 한 세기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일천한 역사 속에 세계 무대의 최일선에서 '정 트리오'가 뛰어난 연주자로서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정 트리오의 맏이인 첼리스트 정명화는 '정 트리오'로 EMI, 데카, 도이치 그라모폰 등의 레이블에서 베토벤, 드보르작, 차이코프스키 등의 작품을 레코딩하였지만 정경화와 정명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음반 수가 적은 편이다. 이것은 바이올린과 피아노에 비하여 작품수와 선호도 측면에서 불리한 첼로의 한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음반수가 연주자의 음악성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정명화가 그동안 보여준 음악여정은 거장이라는 호칭을 붙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이다. 바이올린과 피아노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연주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정명화의 뒤를 이어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첼리스트는 장한나 등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는 정명화의 국제적인 위상을 단적으로 대변해 준다.

정명화의 소품 음반으로 유일한 '恨·꿈·그리움'은 포레의 '꿈꾼 후에',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곡', 생상스의 '백조', 라프마니노프의 '보칼리스' 등의 대중적인 작품과 우리나라 민요와 동요를 절묘하게 배치하여 동서양을 넘나드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첼로라는 악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귀한 음반이다. 피아노 반주는 동생 정명훈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대진 교수가 담당하여 정명화의 음악을 잘 받쳐주고 있다.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영조 교수가 작곡한 흥난과 선생의 가곡 '성불사'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은 폭넓은 첼로의 음역과 이중, 삼중음 등 악기의 기능과 연주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어 가장 좋아하는 곡이다. 이 작품에는 사찰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종소리와 목탁소리, 시냇물 소리 등의 자연음이 포함되어 있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감탄할 만한 명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음반 북클릿에서 정명훈은 명화 누이의 첼로는 정열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적인 시적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고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음악들이 세계 곳곳에서 연주되길 바란다 고 하였다. 또한, 음반 프로듀서인 크리스토퍼 레이번은 정명화는 왕실에서 풍겨나오는 근엄함과 우아함을 지니고 있고 서정성의 극치를 담고 있는 예술가의 초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음반은 절판되어 한동안 구할 수 없었으나 작년 디자인을 새롭게 하여 재출시되어 많은 팬들에게 귀한 선물을 선사하였다.

정명화는 '노래하지 않는 피아노'라는 그림책을 내기도 하였는데, 두 딸의 이름을 주인공으로 하여 딸을 키우고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생각과 경험을 살려 음악의 소중함을 노래하였다. 책에서는 늘 주위에 있어 당연하게 여겼던 음악과 노래, 악기 소리들이 우리를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지 깨닫게 해준다. 2009년 세계무대 데뷔 40주년을 맞아 '40년 음악인생의 멋과 혼'이라는 제목으로 기념연주회를 가진 정명화는 원로가 드문 첼로 악기계의 든든한 기둥이며,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에 또 활발한 활동으로 후배 연주자들의 귀감이 되는 위대한 음악가이다.

**체코 프라하방송교향악단 내한공연**

역시나 명불허전. '살아있는 라흐마니노프'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웨르바코프의 열정적이고 깊이있는 피아노 선율에 마지막 한음 절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간만에 느껴보는 무대와 객석 모두 뜨거운 열기로 가득찬 공연장의 분위기는 꽤나 근사했다.

-우수민(해운대구 재송동)

**부산시립교향악단 말러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다른 말러 교향곡들과는 또다른 분위기로 너무 아름답고 낭만적인 선율들로 가득찬 곡이었던 같아요. 리 신차오 지휘자님의 멋진 지휘, 시향 단원들의 열정적인 연주, 협연자로 무대에 오르셨던 소프라노 오은경님의 아름다운 목소리, 모두가 하나되어 연주 내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전반부 연주되었던 모차르트 곡도 오랜만에 실연으로 정말 좋았구요. 앞으로 리 신차오님과 부산시향이 함께 또 연주할 말러 작품들이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오윤정(연제구 연산4동)

**뮤지컬 '광화문 연가'**

남녀간의 가슴 시린 사랑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광화문 연가'. 광화문 한 구석 라이브카페에서 옛 애인이 부르던 노래를 가슴 앓이하며 열창하던 윤도현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 추억 속의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어 더욱 행복했던 무대였습니다.

-김진호(연제구 연산동)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백작'**

동료 직원의 강추로 공연 전부터 많이 기대했던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백작'. 뮤지컬 넘버와 주연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하다는 사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더욱 감탄을 자아낸 것은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웅장한 무대배경과 스펙타클한 무대장치. 예전 배낭여행에서 만났던 유럽의 뮤지컬 무대보다도 훨씬 재미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백영선(동래구 명장동)

**연극 '칼슘의 맛'**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어 식량이 고갈된 미래시대를 배경으로 인공식품 개발 책임자와 순진한 신입조수가 펼치는 '칼슘 만들기 대작전'. 실재없이 주고받는 두 배우의 대사와 슬랩스틱 코미디, 기발한 영상화면이 웃음과 함께 '환경 파괴, 인간성 상실'이라는 주제를 풀어낸다. 끝까지 밝혀지지 않은 '칼슘의 맛', 그런데 과연 그 맛은 정말 어떠한가?

-최철호(양산시 남부동)

**나랏소**  
최고급 부추만을 고집합니다  
한우 숯불구이 곱창 전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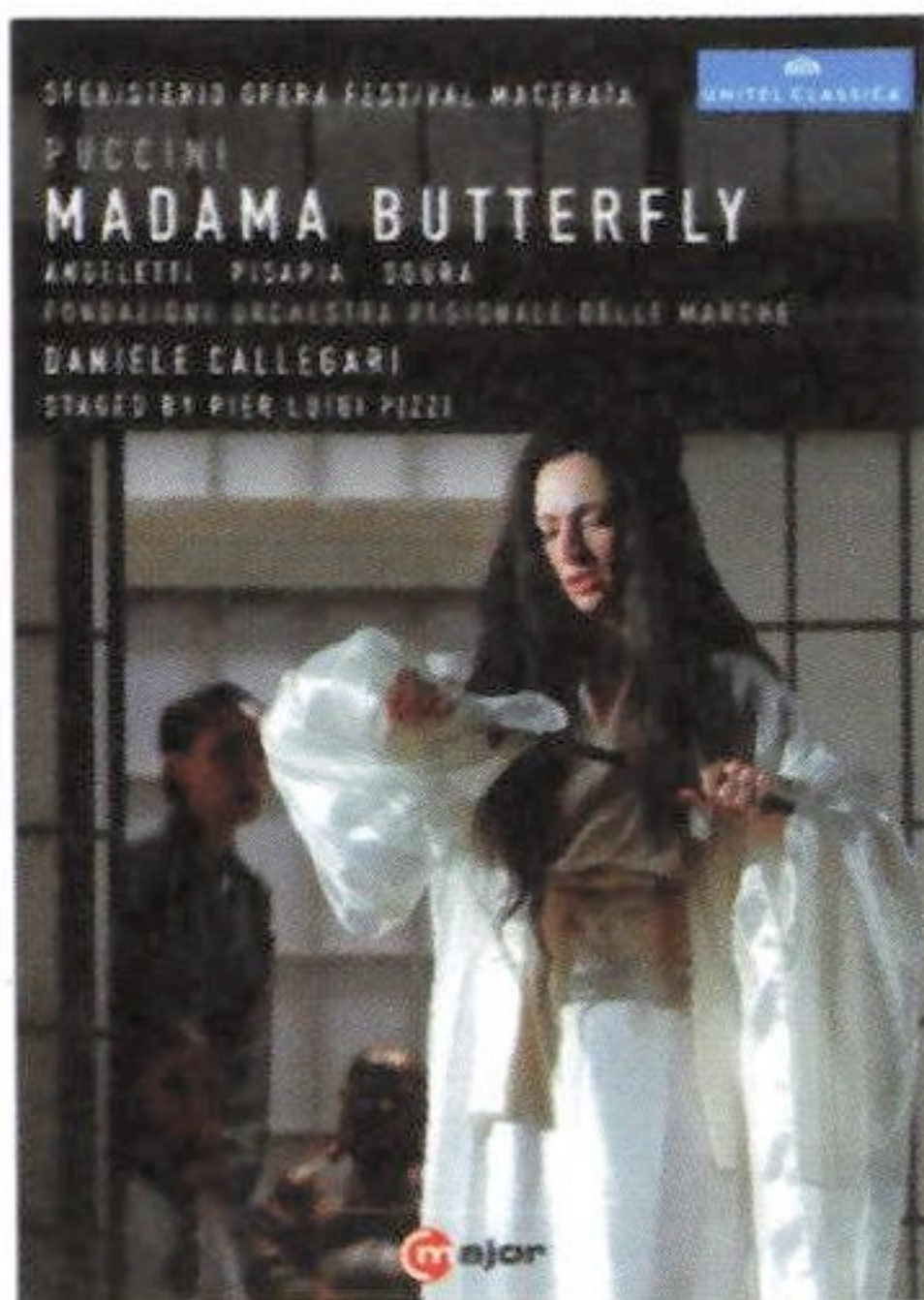
나랏소리?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모집(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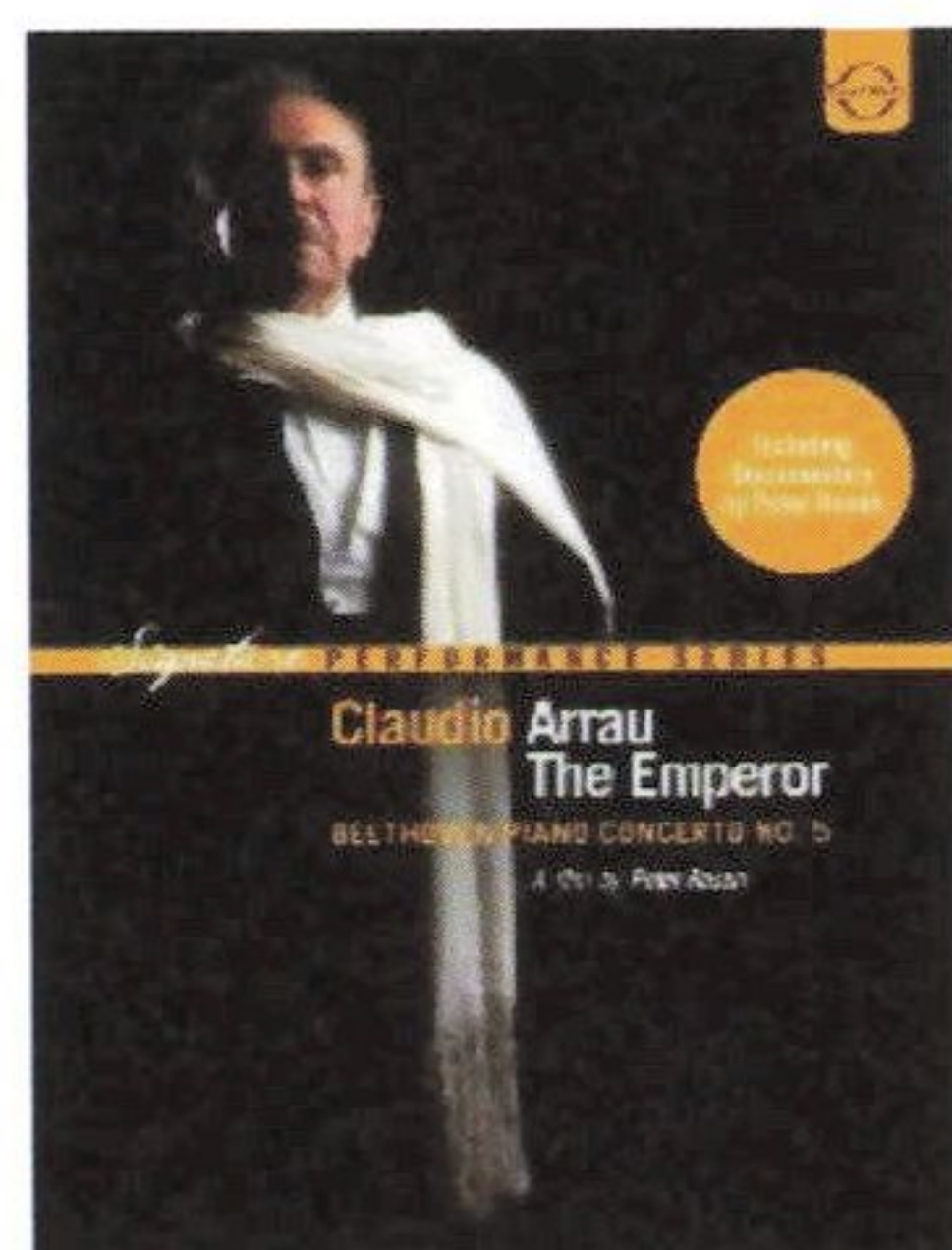


## 푸치니 - 나비부인(DVD:한글자막)

▶출연: 라파엘라 안젤레티(초초상), 마시밀리아노 피사피아(핀커펀), 아눈치아타 베스트리(스즈키), 클라우디오 스구라(샤플레스) 외, 폰다치오네 오케스트라 레지오날레 델레 마르케(지휘/다니엘레 칼레가리)

한글자막과 함께 감상하는 피에르 루이지 피치의 최신 나비부인 프로덕션

중부 이탈리아의 마체라타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성대한 오페라 축제가 펼쳐진다. 이 도시의 명물인 옥외경기장 스페리스테리오에서 펼쳐지는 이 오페라 축제는 베로나 아레나와 더불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야외 오페라 축제로 손꼽힌다. 이 오페라축제의 예술감독이자 우리에게도 낯익은 정상급 오페라 연출가 피치가 2009년에 선보였던 푸치니의 <나비부인>이 DVD로 출시됐다. 이 DVD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고 있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최신의 오페라 영상을 즐기지 못했던 많은 오페라 애호가들의 갈증을 상당부분 해소해줄 것이다. ForumOpera.com으로부터 우리시대의 가장 뛰어난 나비부인의 하나로 호평을 받은 라파엘라 안젤레티가 타이틀롤을 맡아 열연하였고, 본고장의 실력과 가수들인 마시밀리아노 피사피아와 클라우디오 스구라가 이를 든든히 뒷받침하였다. 피치의 무대는 간결하면서도 사실적이며, 3막 전주곡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인무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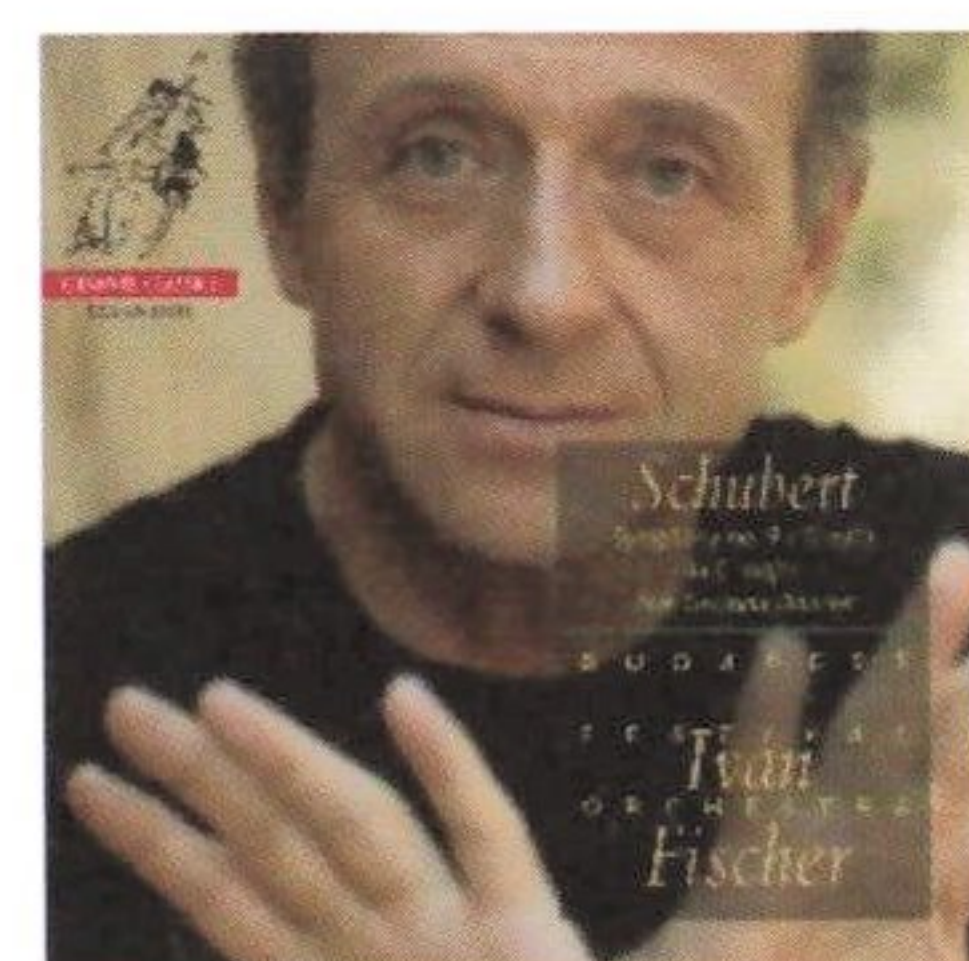


## 클라우디오 아라우 - 황제(DVD)

▶구성: 클라우디오 아라우 다큐멘터리 +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공연 실황레코딩 (1984년 5월 칠레 산티아고 메트로폴리탄 성당)

1984년 고향 칠레로 금의환향한 아라우의 파란만장한 인생사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

클라우디오 아라우는 작곡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청중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매개자로 기교가 뛰어난 피아니스트를 넘어 완벽한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이러한 능력으로 그는 피아노의 황제로 알려져 있었다. 이 DVD에는 1903년 칠레에서 태어나 오랜 타국생활 끝에 1984년 금의환향한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사와 그가 직접 코멘트한 자신의 삶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메트로폴리탄 성당에서 6,000명의 청중 앞에서 연주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가 대미를 장식한다. 이 DVD는 1984년 5월, 산티아고 메트로폴리탄 성당에서 실황 녹음한 DVD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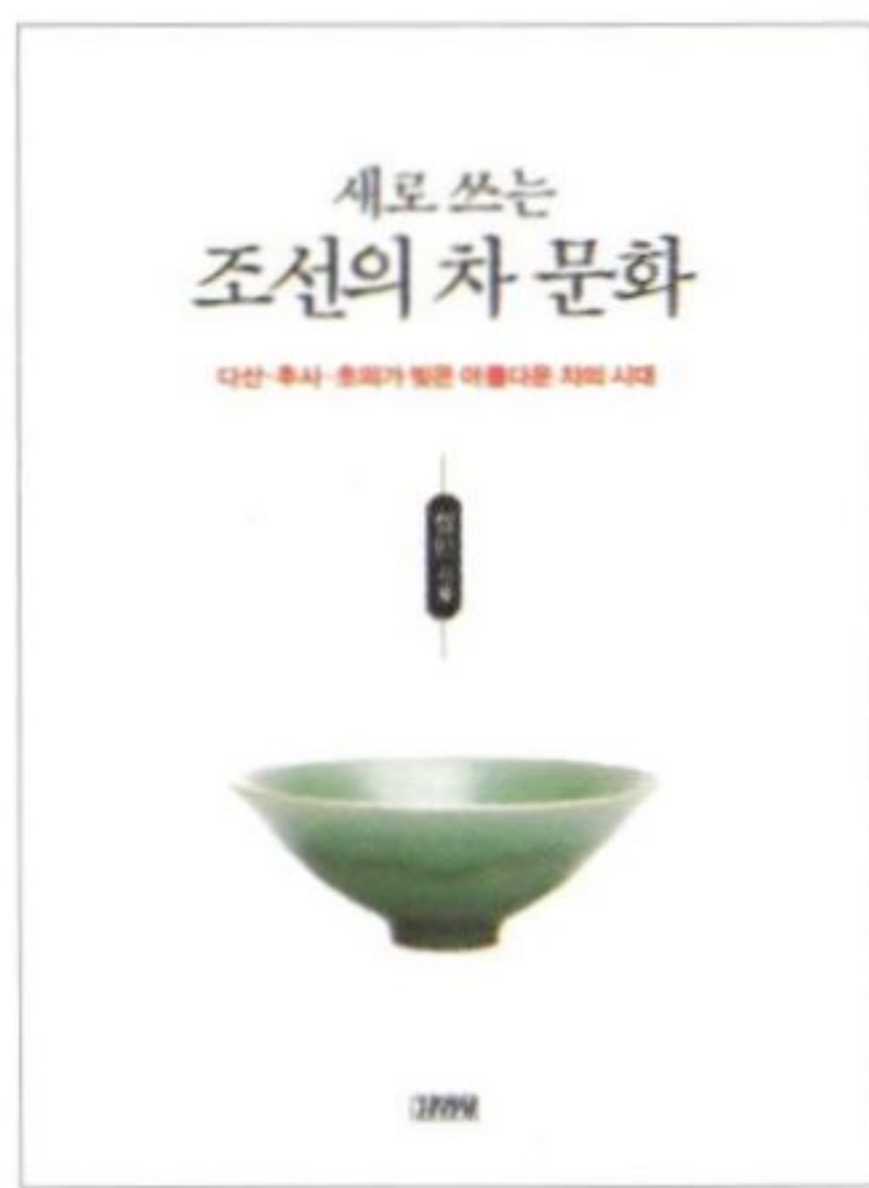


## 슈베르트 교향곡 9번 '그레이트'

▶연주: 이반 피셔(지휘),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이반 피셔와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슈베르트의 '천상적인' 교향곡 9번 <그레이트>를 들려준다. 이반 피셔는 언제나 최상의 오케스트라 조련사이지만 특히 슈베르트의 오케스트라에서 마치 가곡처럼 노래하면서 다양한 색채를 과시하는 목관 악기와 호른 앙상블을 입체적으로 다듬어내서 영원에 대한 슈베르트의 환상을 구현했다. 사반세기 동안 함께 연주하며 이제 연주력이 정점에 도달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빈틈없는 앙상블이 시종일관 빛을 발하며, 특히 16살 소년 슈베르트가 써낸 아름다운 독일 춤곡은 보너스 이상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내뿜고 있다. 탁월한 연주와 녹음이 일체를 이룬 음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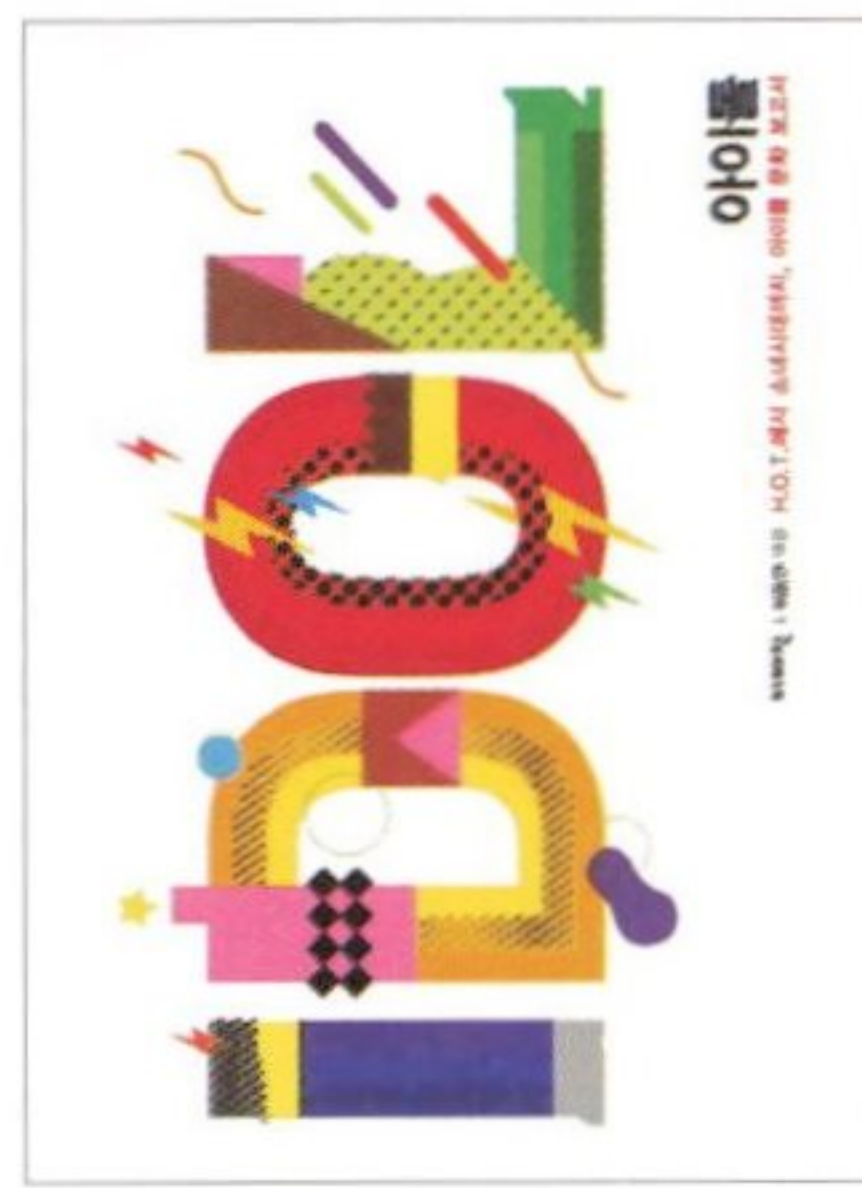


### 새로 쓰는 조선의 차 문화

다산 추사 초의가 빛은 아름다운 차의 시대

정민 지음 / 김영사  
/ 750p / 35,000원

고전과 현대의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온 우리 시대의 대표 인문학자 정민 교수가 조선 후기 차 문화의 모든 것을 담았다. 차에 관해 문외한이었던 저자는 2006년 가을, <다산선생 지식경영법>을 펴낼 당시, 자료를 보기 위해 강진을 찾았다가 초의의 <동다송>에 한 구절만 인용되었을 뿐 실물이 전하지 않던 <동다기(東茶記)>를 찾아냈다. 이를 계기로 차 문화 연구에 깊이 빠져들어 차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을 시작했다. 이후 저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서 <부풍향차보>와 각종 차 관련 저작 및 편지 등 수많은 사료들을 잇달아 발굴하여, 학계 최초로 소개하며 우리 차 문화사를 다시 썼다. 이 책은 조선 후기 차 문화사의 종합적 전망을 제시했다. 구체적 실상의 제시 없이 단순히 민족주의적 감성에 호소하던 이전 차 문화사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실제 자료에 입각하여 차 문화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수많은 1차 자료의 발굴과 소개로, 차 문화의 깊이와 너비를 획기적으로 확장했다. 저자는 더 깊은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책에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유한다. 한국과 중국의 각종 차 그림 명작들도 책을 보는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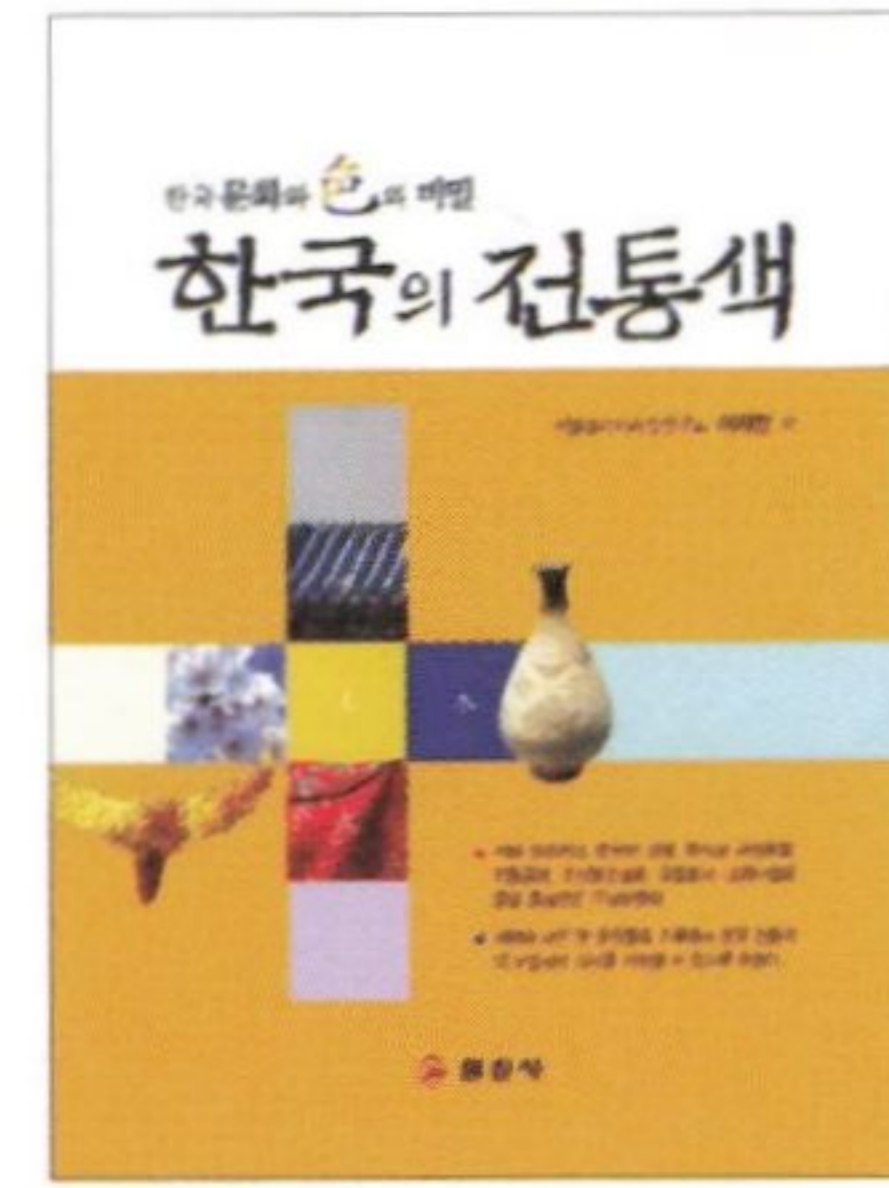


### 아이돌

HOT에서 소녀시대까지 아이돌 문화 보고서

문강형준 외 지음 / 이매진  
/ 408p / 20,000원

대한민국 대중문화가 아이돌에 점령당했다. 아이돌(idol)은 우상을 뜻하는 영어이고, 어원은 그리스어이다. 현재는 10대들에게 인기있는 이들로 그룹 및 솔로 가수 뿐만 아니라 연기자들을 포괄하는 10대 청소년 또는 20대 초반의 연예인들에 대한 개념의 단어로 쓰인다. 이 책은 아이돌에 관한 책이며, 대중문화에 관한 책이다. 이 책에서 살펴보고 있는 아이돌의 정의와 아이돌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 현상, 재범 사건과 타블로 사건의 함의, 아이돌의 노동, 걸 그룹과 삼촌팬, 아이돌 성공 신화, 그리고 아이돌의 음악은 온전히 대중문화의 영역을 포괄한다. 그동안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몫이 아주 큰데도 아이돌과 아이돌에서 파생한 문화는 가십성 연예 기사와 대중문화 비평의 수준을 넘어서 본격적인 연구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과 아이돌을 둘러싼 문화 현상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문화적 비평을 감행하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려는 이 책의 출간은 대중문화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는 셈이다.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아이돌의 '진짜 리얼리티'를 찾아 떠나는 이 책 속에 팬과 대중, 대중문화 수용자와 생산자들을 포괄하는 다양한 논의가 펼쳐진다.



### 한국의 전통색

한국문화와 색의 비밀

이재만 지음 / 일진사  
/ 209p / 25,000원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국의 전통색을 소개하는 책. 전통색 90색은 1992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연구, 발간한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제 2차 시안>에 수록된 결과물로 구성됐다. 한국 전통색은 오방정색과 간색의 구성에 따라 적색계, 황색계, 자색계, 청록색계, 무채색계의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90색의 예제 이미지는 한국의 복식과 규장문화, 전통공예 등에서 찾아 구성했고, 옛 문헌에 수록된 색채에 대한 기록을 발췌하여 한국 전통색의 쓰임새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민족의 색채 의식은 예로부터 뚜렷한 사계절의 영향과 음양오행 사상에 의한 정색과 간색, 잡색 등의 사용 관습, 사회 계급에 따른 복색 사용의 제한과 차별의 영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한국의 전통색 연구는 오랜 우리의 역사만큼이나 상당히 방대한 영역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예전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전통문화나 흩어져 있는 옛 문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피상적으로 한국의 색에 접근할 우려가 있다. 저자는 한국의 색채에 대하여 세심히 살펴보고 연구하여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표준화를 만들어 가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의 전통색에 마음껏 물들어볼 수 있는 책이다.

# 부산시립예술단 해외 활동 활발

7월 5일~9일 부산시립무용단 미국 시애틀 제 94차 라이온스 국제대회 부산홍보공연 '다이나믹 부산 판타지'

7월 17일~23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홍콩국제청소년 및 어린이합창대회 특별 초청' 단체로 참가

7월 21일~26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인도네시아 '제 7회 크로스 컬처 페스티벌 2011' 참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 94차 라이온스 국제대회 부산홍보공연 '다이나믹 부산 판타지'를 펼치게 되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천하태평지무'

부산시립예술단이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 5월 스웨덴과 독일에서 공연을 가진데 이어 7월에는 부산시립무용단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미국과 홍콩, 인도네시아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공연을 펼친다.

7월 6일과 7일 미국 시애틀 일원에서 열리는 제 94차 라이온스 국제대회 부산홍보공연 '다이나믹 부산 판타지'를 펼치게 되는 부산시립무용단은 수석안무자 흥기태를 비롯해 16명의 공연단을 구성, 7월 5일 미국 공연길에 오른다. 이번 무대에서 시립무용단은 'Korean Night'에서 해외 공연에서 인기가 높았던 전통궁중무용과 신무용인 화관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천하태평지무', 봄날 꽃 속을 노니는 나비의 아름다운 자태를 사랑의 2인무로 표현한 '춘접무', 기하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구도를 그려내며 추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부채화간접무', 박진감 있는 음악과 여인들의 청초한 몸동작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화중신선'으로 우리 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7월 17일 5박 6일의 일정으로 홍콩 연주길에 오르는 부산시립소

년소녀합창단은 세계적인 청소년 합창축제인 홍콩국제청소년 및 어린이합창대회에 특별 초청단체로 Hong Kong Cultural Centre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열린 부산국제합창제 축하공연 무대에 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을 지켜본 홍콩 관계자의 제의로 우리나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는 처음으로 경연이 아닌 특별초청단체로의 참가하게 된 것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8일 Opening Ceremony & Concert 공연을 시작으로 19일 The Best Choir of the World, 20일 Phoenix TV 출연, 21일 Finalists Night & Prize Ceremony에 참가, 우리민요와 고전성가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7월 21일부터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청 따만수라 광장에서 열리는 '제 7회 크로스컬처 페스티벌 2011'에 참가한다. 이장우를 비롯해 강영진, 전학수, 김용우, 이주헌, 박재현이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태평소와 사물놀이로 흥겨운 무대를 열어준다.



세계적인 청소년 합창축제인 홍콩국제청소년 및 어린이합창대회에 특별 초청단체로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사진은 5월 스웨덴 공연)



## 제 36기 시민무용교실, 제 25기 어린이 한국춤 교실 모집

접수 7월 11일~14일

강습 7월 25일~29일

부산시립무용단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습하는 '제 36기 시민무용교실', '제 25기 어린이한국춤교실'이 7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5일간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춤을 배울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시민무용교실, 어린이 한국춤교실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강습기간 : 2011년 7월 25일(월) ~ 7월 29일(금)(5일간)
- 접수기간 : 2011년 7월 11일(월) ~ 7월 14일(목)(평일 10:00-18:00)
- 강습장소 : 국제회의장(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층)

### 제 36기 시민무용교실

- 강습내용 : 외북가락과 춤(13:00~15:00), 장고춤(15:00~17:00)
- 대 상 : 일반 시민 및 교사(각 반 30명 내외)
- 준 비 물 : 복채 한 쌍(각자 준비)
- 수 강 료 : 2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및 팩스(FAX, 607-6049) ※전화접수 불가

일 자	시 간	내 용	강 사	장 소
7/25(월)~28(목)	13:00~15:00	외북가락과 춤	홍기태(수석안무자), 오수연(부수석)	국제회의장
	15:00~17:00	장고춤	서정숙(부수석), 박창희(부수석)	
7/29(금)	13:00~14:00	강습결과 발표회		소극장

### 제 25기 어린이한국춤교실

- 강습내용 : 어린이탈춤(10:00~11:00), 어린이태극부채춤(11:00~12:00)
- 대 상 : 초등학생 어린이(각 반 20명 내외)
- 준 비 물 : 탈, 태극부채(각자 준비)
- 수 강 료 : 10,000원
- 신청방법 : 전화접수


일 자	시 간	내 용	강 사	장 소
7/25(월)~28(목)	10:00~11:00	어린이탈춤	홍기태(수석안무자), 오수연(부수석)	국제회의장
	11:00~12:00	어린이태극부채춤	서정숙(부수석), 박창희(부수석)	
7/29(금)	13:00~14:00	강습결과 발표회		소극장

- 입금계좌 : 부산은행 036-01-036845-3(환불기간 7월 19일까지, 수수료 제외)
-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부산시립교향악단 '2012 부산연주인시리즈' 출연자 모집

- **모집부문** : 2012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특별공연에 출연할 객원 지휘자 및 협연자
  - ⊕ 지휘, 성악, 피아노, 관현악, 타악, 작곡
  - ※해당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자 격** :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에서 음악활동 및 창작활동을 하고있는 음악인 또는 부산 출신의 음악인 (나이제한 없음)
  
- **심사방법** : 1차-서류 및 자격심사, 2차-자료심사 ⊕ 1차 합격자에 한함
  - ⊕ 지휘자 및 협연자 : 서류 및 자료 심사
  - ⊕ 작곡가 : 창작곡 심사
    - 창작곡은 공고일 현재 필히 미발표작일 것
    - 10분 내외의 관현악곡(3관 편성 이내)
    - 최종합격자는 연주 3개월 전까지 악보(지휘총보 및 파트보) 제출
    - 선정된 작품 연주 시, 소정의 작품 사용료 지급
  
- **제출서류** : ⊕ 공통
  - 이력서 또는 프로필 1부(사진부착)
  - 주민등록등본 1통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재직)증명서 1부
  - 콩쿠르 입상 증명 서류 사본 ▷ 해당자
  - ⊕ 지휘자 및 협연자
    - 연주실황 CD 또는 DVD 1매 ▷ 프로그램 첨부 要
  - ⊕ 작곡가
    - 창작곡(지휘자용 총보) 1부 ▷ 데모 CD(음원) 첨부 要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기간** : ⊕ 지휘자 및 협연자 - 2011. 7. 18(월) ~ 7. 28(목) 17:00까지 도착분
  - ⊕ 작곡가(창작곡) - 2011. 9. 19(월) ~ 9. 23(금) 17:00까지 도착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장소** : 부산시립교향악단(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1층)
  
- **발 표** : 심사 후 개별통지(합격자에 한함)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67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협연자 모집








- 연주회 개요 2011. 9. 23(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모집 개요
  - 응시자격 : 원서접수시 부산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인제대 포함)에 재학중인 자  
 ※ 단, 2008년 9월(제 64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이후 협연한 자는 응시 불가
  - 모집부문 : 피아노, 현·관·타악기(협주 가능한 악기)
  - 모집인원 : 부문에 관계없이 6~8명(초등·중학교 1~6명 / 고등·대학교 1~6명)
-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1. 7. 13 (수) ~ 7. 20(수) 10:00 ~ 17:00
  - 장 소 :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1층 부산시립교향악단 사무실
  -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재학증명서(3개월 이내), 사진 2매(3×4cm 동일사진, 원서부착용)  
 ※ 응시원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culture.busan.go.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전형 개요
  - 전형일시 : 2011. 7. 22 (금) 10:00 ~ 18:00  세부일정은 접수 후 공지
  - 장 소 :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습실
  - 전형과목 : 협주곡 단악장(자유곡 / 단, 교향악단과 협연이 가능한 곡목)  
 ※ 전 파트 반주자 대동
- 기 타
  - 합격자 발표 : 2011. 7. 26 (화) 10:00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고(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전형 과정에 학부모 등의 참관이 가능함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7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여름이 아름다운 부산의 7월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찾아가는 예술단 무대가 7월 부산전역에서 펼쳐진다.

7월에는 1일 민선5기 1주년 기념공연을 비롯해 임산부를 위한 음악회, 북구 문화빙상센터 개소 기념음악회, 서구 미래아카데미 공연 등 7개 공연이 펼쳐진다.

### 일정

- |   |                |  |
|---|----------------|--|
| 7월 1일(금)   | 10:00 시청 대강당   | 내사랑부산 공연 '민선5기 1주년 기념공연' (출연/합창단)                  |
| 7월 11일(월)  | 15:30 시립박물관    | 내사랑부산 공연 '기획전시 길상 염원을 그리다 개막축하공연-맹진사댁 경사' (출연/무용단) |
| 7월 13일(수)  | 14:00 좋은문화병원   | 아기사랑콘서트 '임산부를 위한 음악회' (출연/교향악단)                    |
| 7월 13일(수)  | 19:30 북구문화빙상센터 | 내사랑부산 공연 '북구문화빙상센터 개소 기념음악회' (출연/교향악단, 합창단)        |
| 7월 16일(토)  | 20:00 광안리야외무대  | 내사랑부산 공연 '수영문화원 개원 2주년 기념공연' (출연/국악관현악단)           |
| 7월 28일(목)  | 14:00 해운대도서관   | 꿈나무소망심기 공연 '도서관 음악회' (출연/교향악단)                     |
| 7월 28일(목)  | 16:20 서구청 강당   | 내사랑부산 공연 '서구미래아카데미 공연' (출연/교향악단)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46)

## 부산시립극단 제 11기 여름연극교실 수강생 모집

연극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최하는 제 11기 여름연극교실의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강습기간 : 2011. 7. 25(월) ~ 7. 29(금) 10:00 ~ 15:00 ▶ 5일간
- 신청기간 : 2011. 7. 11(월) ~ 7. 21(목) ▶ 9일간
- 강 사 : 부산시립극단 단원
- 모집인원 : 20명 내외
- 수 강 료 : 20,000원(교재제공)
- 접 수 처 : 부산시립극단(607-3151~3)
- 강습세부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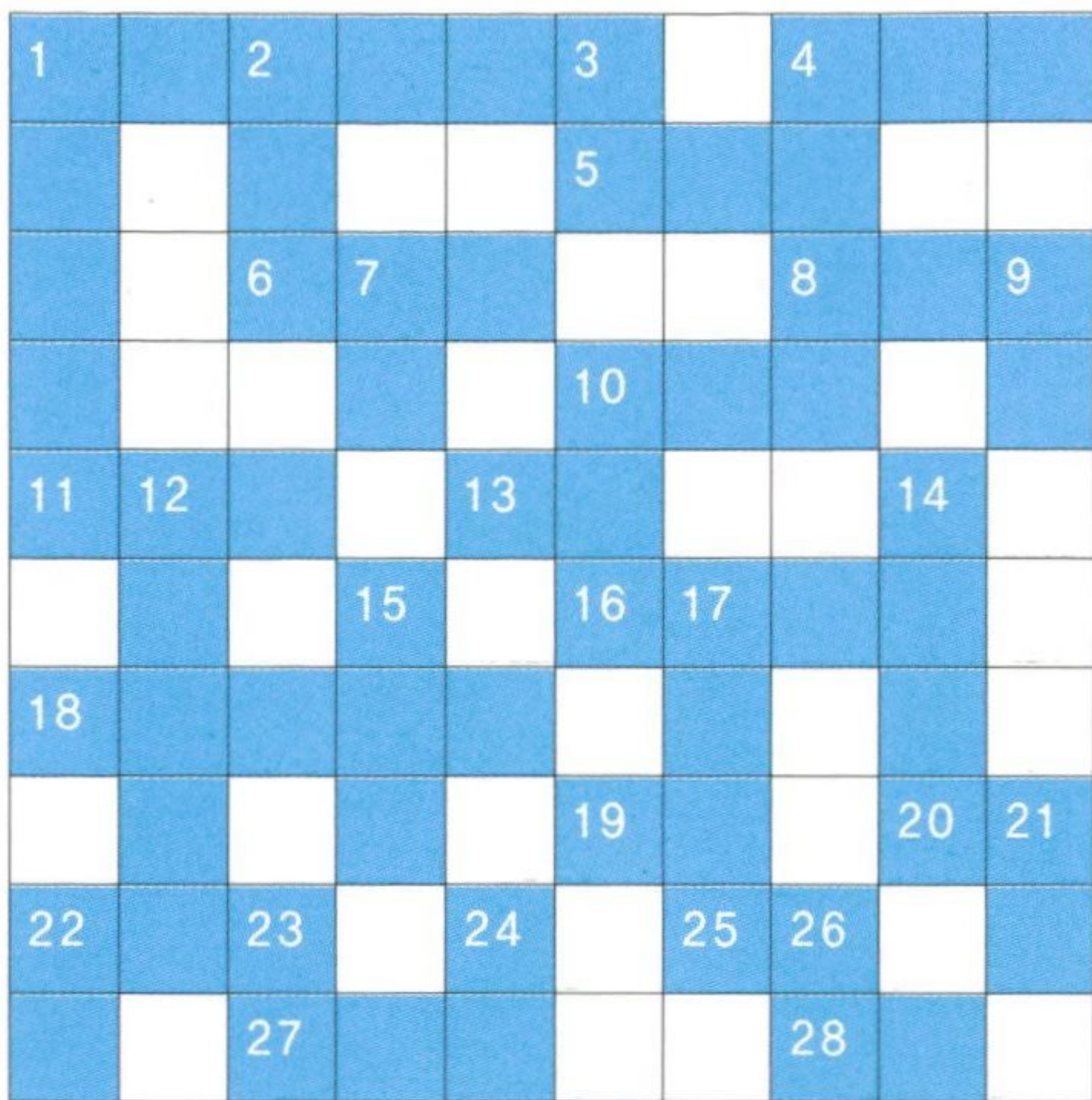
	25일(월)	26일(화)	27일(수)	28일(목)	29일(금)
1교시 10:00 ~10:50	연극의 이해 작품선정	화술	상황연기	즉흥연기	장면연기
2교시 11:00 ~11:50	작품분석	신체훈련	장면연기	화술	상황연기
점심시간 ~ 12:50					
3교시 13:00 ~13:50	작품분석	작품연습	작품연습	작품연습	작품리허설
4교시 14:00 ~14:50	장면나누기				작품발표

## 2011년 부산합창제 참가 단체 모집



부산합창음악의 발전과 합창음악의 교류를 통해서 질적인 발전은 물론 부산합창단체간의 상호유대와 발전, 부산시립합창단 고정관객의 발굴을 위한 범시민적인 합창제를 개최합니다.

- 공 연 명 : 제 24회 부산합창제
- 공연일시 : 2011. 8. 20(수) ~ 8. 21(목)(8. 20 : 대학합창단, 8. 21 : 아마추어 합창단)
- 참가단체 : 20개 단체
- 신청 및 접수 : 2011년 7. 18(월) ~ 8. 5(금)(15일간, 토·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가로열쇠**

- 1\_ 매년 8월 부산지역 6개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해양종합관광축제.
- 4\_ '동쪽 벼랑'이라는 뜻을 지닌 통영의 명소로, 마을 담벼락에 그려진形形色색의 벽화가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 5\_ 한문(漢文) 초학자를 위한 교과서 겸 습자교본.
- 6\_ 딱따구리목 딱따구리과의 조류. 1968년 천연기념물 제 197호로 지정되었다.
- 8\_ 신라의 선화공주를 아내로 얻기위해 백제의 무왕이 지었다는 향가.
- 10\_ 빗물에 의해서만 벼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논.
- 11\_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 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 7월 17일.
- 13\_ 사람이 말을 타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함. 또는 그런 경기.

- 16\_ 이탈리아 낭만파 오페라의 중심인물로 주요 작품으로 '사랑의 묘약'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등이 있다.
- 18\_ 현기영 소설 '변방에 우짖는 새'가 원작으로, 1901년 제주도에서 실제로 일어난 천주교인과 주민들간의 충돌사건을 다룬 박광수 감독, 이정재, 심은하 주연의 영화.
- 19\_ 중앙 아메리카 카리브해 서부, 서인도 제도에 있는 나라로,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공산국가. 수도는 아바나.
- 20\_ 뉴욕에 잡혀온 거대한 고릴라에 대한 이야기로, 1933년 처음 영화로 개봉된 이래 영화와 책, 게임으로도 여러 차례 제작되었다.
- 22\_ 한국의 판소리 명창.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호는 만정(晩汀).
- 25\_ 미국항공우주국. 1969년 달 착륙을 실현한 아폴로계획이 이곳에서 추진되었으며 현재 우주왕복선을 중심으로 우주 개발에 힘쓰며 대규모 우주정거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 27\_ 홍상수 감독, 김상경, 엄지원 주연의 영화. 2005년 이 영화로 홍상수 감독은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에 이어 2년 연속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다.
- 28\_ 신문, 잡지 등에서 어떤 글, 사건 따위의 내용에 대해 글을 쓰는 지면.

**세로열쇠**

- 1\_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무용제를 앞두고 부산시를 대표하는 참가팀을 선출하기 위해 열리는 무용 경연무대. 7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 2\_ 16세기 말부터 18세기 중엽에 걸쳐 유럽에서 유행한 예술 양식. 르네상스 양식에 비하여 파격적이고, 감각적 효과를 노린 동적인 표현이 특징이다.
- 3\_ 영화와 음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음악영화제가 열리는 청풍명월의 도시.

- 4\_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
- 7\_ 글씨나 그림 등에 작가가 자신의 이름이나 호(號)를 쓰고 도장을 찍는 일.
- 9\_ 알프스 지방에서 가성(假聲)을 섞어 특이한 소리를 내어 부르는 민요. 또는 그런 창법.
- 10\_ 경주시에 있는 천마총에서 나온 말다래의 뒷면에 그려진 그림.
- 12\_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
- 14\_ 미국의 작가. '쇼생크탈출' '샤이닝' '미저리' '그린마일' 등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 15\_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속한 한강 가운데 있는 섬. 마포와 영등포를 잇는 교통 요충지로 국회의사당, 한국방송공사, 63빌딩 등이 들어서 있다.
- 17\_ 불교에서 수행에 의해 진리를 체득하여 일체의 속박에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 극단 새벽의 연극 'OOOO로 가는 길'이 7월 30일까지 소극장 실천무대에서 열린다.
- 21\_ 단편소설보다도 짧은 소설. 대개 인생의 한 단면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그리는데 유머, 풍자, 기지를 담고 있다.
- 22\_ 독립운동가, 호는 백범(白凡). 중국 상하이(上海)의 임시정부 주석으로 활동하다 8·15 광복 후 신탁통치와 남한 단독 총선을 반대하다 1949년 안두희에게 암살당했다.
- 23\_ 웃음을 주제로 하여 인간과 사회의 문제점을 경쾌하고 흥미 있게 다룬 연극이나 극형식.
- 24\_ 한국 중앙부에 있는 광역시. 삼남의 관문으로서 경부선, 호남선 등의 철도와 경부, 호남고속도로, 국도가 분기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충청지역 상공업과 교육·문화의 중심도시이다.
- 26\_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힌두교도 성인여성들이 허리와 어깨를 감고 남은 부분으로 머리를 싸는 무명이나 명주 천.

**지난호 정답**



**퍼즐당첨자 명단**

공간소극장	나랏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큰집
김지은(사하구 하단동)	김혜미(수영구 망미동)	박성진(해운대구 우2동)	김진영(연제구 연산9동)
박선재(사상구 주례2동)	박선주(연제구 거제3동)	이미정(금정구 장전동)	노경희(남구 용당동)
송혜영(남구 대연3동)	이지선(남구 대연동)	이순남(연제구 연산1동)	박정은(동래구 명륜동)
유보선(부산진구 부전동)	강지나(남구 대연3동)	이호광(사하구 원양로)	정다은(연제구 연산8동)
정윤성(남구 용호1동)	임은주(부산진구 개금동)	최진주(양산시 북부동)	최미정(양산시 물금읍)

그리움이 있는 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 1588-2757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Tel 051.611.8518

cafe.daum.net/say012

최고급 부산민속 요리집

**나랏소**

만우 술집이 금방 연문됨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1년 7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향기로운 차향 속에 예술혼이 함께했던 하동 오감여행

장마 시작을 알렸던 지난 6월 10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64번째 테마여행을 떠났다.

6월의 테마여행지는 맑고 푸른 섬진강변을 따라 아름다운 꽃길이 펼쳐지는 하동. 초여름 짙어가는 수풀만큼이나 부푼 설레임을 안고 46명의 정기회원 가족들이 길을 나섰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정주아, 박순자, 하지희, 손한별, 정겨운 씨가 이번 여행에 동참하면서 테마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잔뜩 찜푸린 날씨에 가끔씩 가는 빗줄기가 떨어졌지만 오히려 초여름 내리쬐는 햇살을 피할 수 있어 더욱 좋았다.

6월 테마여행의 첫 방문지는 쌍계사 입구에 자리한 '하동차문화센터'. 삼국시대부터 차를 재배한 야생차의 본고장인 하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야생 차나무가 서식하고 있으며, 화개면 쌍계사 주변 '우리나라 차 시배지'가 지방기념물 61호로 지정되어 있다.

하동차문화센터는 이런 하동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다도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 7월 문을 열었다. 천년 명차인 하동차의 역사와 하동차의 효능, 우리나라의 시대별 차문화와 다례, 예술로 승화된 다기 전시, 세계 차 기행 등 우리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차문화전시관과 전통 수제다법에 의한 뒤음차 만들기, 다례체험을 할 수 있는 차 체험관, 하동의 전통도예를 체험할 수 있는 도자기 체험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하동녹차관과 차문화관, 차문화갤러리까지 차문화전시관을 모두 둘러본 정기회원 가족들은 다례체험을 위해 차 체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체험관에 들어서자 고운 한복자태를 뽐내는 해설사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본격적인 다례체험에 앞서 다관, 숙우, 찻잔, 퇴수기, 다건 등 행다에 쓰이는 다구의 명칭부터 익힌 회원들은 조별로 나뉘어 일행 중 한명은 주인인 팽주가 되고 나머지 일행은 손님인 팽



객이 되어 본격적인 다도체험에 나섰다.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에 열심히 따라해보지만 익숙치 않은 명칭과 손놀림에 어느새 실수연발. 서투른 손길속에서도 우려낸 향긋한 차향은 어느새 다도체험실을 가득 채운다.

다례체험을 마치자 어느새 점심식사 시간. 씹살한 차잎이 들 어간 색다른 산채비빔밥에 회원들의 수저놀림이 분주하다. 허 기진 배를 채우고 도착한 곳은 '있어야 할건 다 있고 없을건 없다' 는 바로 그 화개장터. 5일 장날이 아니라 상설장터를 돌 러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회원들은 모처럼의 장터구경 에 신이 났다.

오후 일정에 서둘러 달려간 곳은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 지'의 무대로 유명한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한옥 14개동으 로 구성된 최참판댁은 비록 드라마 촬영을 위한 세트장으로 만들어졌지만 아름다운 악양의 풍경과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킨다. 사랑채의 대청마루에 올라앉으면 평사리 의 넓은 들판이 한눈에 들어온다. 인근에 자리한 평사리문학 관에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박경리 선생의 문학세계를 느 켜볼 수 있다.

눈이 즐거웠으면 이제는 귀가 즐거울 시간. 정기회원 가족들 이 기다리던 음악회가 최참판댁 별당에서 열렸다. 작은 연못 과 정원으로 둘러싸인 별당에서 부산시립국악과현악단 단원 들이 빚어내는 흥겨운 국악양상블 무대가 펼쳐졌다. 구경왔던 일반 관람객들도 때아닌 국악선율에 발길을 멈추고 연주에 귀 를 기울인다. 모두가 연주에 숨죽인 가운데 이따금 들리는 아 름다운 새소리와 풍경소리에 잠시나마 세상사 시름을 잊는다. 아쉬움 속에 연주회가 끝나고 이번 여행의 마지막 일정인 매 실따기 체험에 나섰다. 트럭 뒷좌석에 앉아 덜컹거리는 산길 을 20여분간 달려가자 유기농 매실 농원이 펼쳐졌다. 주렁주 령 열린 매실에 어느새 회원들 망태기에는 푸른 매실이 가득 이다.

맑고 푸른 섬진강을 따라 향기로운 차향과 예술혼이 함께했던 하동 테마여행. 천년을 이어온 하동명차처럼 즐거운 추억으로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2011년 8월에는 **남해**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7월 15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 7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가입자

김미선(수영구 수미로)  
김미숙(금정구 금사동)  
김애재(영도구 동삼1동)  
박경애(연제구 거제3동)  
손인아(해운대구 우2동)  
엄지영(사하구 장림2동)  
오희숙(서구 부민동 1가)  
임상래(해운대구 좌동)  
최영미(해운대구 반여동)  
허경식(남구 대연3동)

#### 엽서당첨자

김광열(부산진구 양정1동)  
김승희(수영구 남천동)  
박정숙(부산진구 초읍동)  
신기연(금정구 구서2동)  
전정희(남구 대연4동)  
정규내(금정구 장전동)  
정인옥(기장군 기장읍)  
조순연(남구 우암1동)  
최진훈(양산시 물금읍)  
홍재구(연제구 거제1동)

“ 화학 및 IT 소재 분야의 신기술을 선도하고  
인류번영에 기여하는 기업 (주)엠피온스 입니다”



### 사업분야

#### 경화제사업(Hardner)

- 각종 수지의 고무, 실리콘의 중합반응 개시제, 가교제, 개질제, 경화제 등에 사용

#### 수지사업(Resins)

- 인조대리석 공정에 적합한 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체도료용 수지분야도 있음

#### 첨가제사업(Additives)

- 고기능성 첨가제는 분체도료나 고분자성형물딩, 나노향균코팅첨가제에 사용

#### 기타상품(Others)

- 고온경화제 및 각종 모노머의 중합개시제, 점도조절제, 가교제 등

### 본사 & 울산공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753-19번지  
TEL : 052-239-0970~2 FAX : 052-239-3796

### 남원공장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산 118-1번지

#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5: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7월 2일 토요일 오후 5:30 소극장



### 프로그램

:: 관악영산회상 중 '상령산'  
(집박/유경조 · 대금/채수만,  
이만형, 황두호 · 소금/손한별  
· 피리/박춘석, 최성교, 권  
미정 · 해금/최윤정, 이은주,  
박은희 · 아쟁/홍영혜, 박일 ·

장구/송강수 · 좌고/박재현)

:: 거문고 산조 '한갑득류' (거문고/박하혜 · 장구/전학수)

:: 판소리(판소리/박성희 · 고수/송강수)

:: 기악합주 '남도굿거리' '금강산타령' '동백타령' (대금/강은주 · 피리/박순자 ·  
해금/김민정 · 아쟁/최영훈 · 가야금/윤경선 · 거문고/오상훈 · 장구/송강수)

:: 시나위(대금/엄익준 · 피리/김용우 · 해금/방병원 · 아쟁/최영훈 · 가야금/정  
미자 · 거문고/강상호 · 장구/최오성 · 징/김명진)

※ 해설/전현진

## 일파가야금합주단 연주회

7월 16일 토요일 오후 5:30 소극장



### 프로그램

:: 김선/25현 가야금을 위한 변  
주곡 '한오백년' (25현/김명선,  
김지우, 채미경)

:: 최승준(편곡)/베사메무초 · 키  
사스 키사스 키사스(가야금/  
장경미, 박은영, 김수현, 채미

경, 김경현, 이정은)

:: 백규진(편곡)/25현 가야금 3중주 '옹헤야' (1부/박은영, 최수정 · 2부/김수  
현, 김소라 · 3부/김경현, 이정은)

:: 공영송/25현 가야금 5중주 '초소의 불' (25현/김지우, 채미경, 김소라, 김  
경현, 이정은)

:: 객재영(편곡)/영화음악 '노팅힐', '미션임파서블' (플루트/이승은 · 타악/김명  
진 · 가야금/장경미, 박은영, 최수정, 김명선, 김지우)

:: 장명화(편곡)/부산의 가요 '부산갈매기', '돌아와요 부산항에' (플루트/이승  
은 · 타악/김명진 · 가야금/장경미, 박은영, 최수정, 김명선, 김지우)

##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7월 9일 토요일 오후 5:30 소극장



### 프로그램

:: 처용무(춤/김병주, 허태성, 류  
권홍, 장영진, 신명관)

:: 천생연분(춤/오수연, 황동하)

:: 무천의 춤(춤/서현미, 김동숙,  
오숙례)

:: 산조춤(춤/이정인)

:: 태평무(춤/정진희, 이성원)

:: 흥타령(춤/장래훈, 이현숙, 강미향)

:: 부채춤(솔로/김도은 · 군무/이상민, 박은혜, 김시현, 박미나, 김주현, 최효선)

※ 안무, 구성/홍기태(수석안무자)

※ 해설/이현숙

## 버سم새예술단 연주회

7월 23일 토요일 오후 5:30 소극장



### 프로그램

:: 처용무(춤/최의욱, 장영진, 강  
모세, 김대원, 최정민)

:: 三道 설장구(설장구/이주현,  
김한동, 박정원, 최정민)

:: 사물놀이(상쇠/최정민 · 장구/  
이주현, 박정원 · 북/김한동, 김대원 · 징/정은희)

:: 즉흥무(춤/김호정, 현선화, 이남정, 조은미, 김미란)

:: 판굿놀이(상쇠/최정민 · 장구/이주현 · 북/김한동 · 징/정은희 · 버나놀이/박  
정원 · 열두발놀이/김대원)

■ 관람료 : 무료(선착순)

■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2011년 8월 12일 금요일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남해 유배문학관

쪽빛 바다와 초록빛 들녘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여름 여행.  
바닷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듯한 돌멩이 하나도 바다와 어우러져 시로 다시 태어나는 남해. 국내 최대, 최초의 남해 유배문학관을 시작으로 보물섬 남해의 상징 마늘나라 전시관에서 남해의 여름을 즐긴다.

- ☞ 07: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 10:00 유배문학관, 보물섬 마늘나라 전시관 관람
- ☞ 12:00 두모마을 이동, 개매기 체험
- ☞ 13:00 중식 및 자유시간
- ☞ 15: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6:30 부산으로 출발

## 2011년 9월 2일 금요일 별의 도시 영천 여행



시안미술관

아름다운 '별의 수도' '별의 도시' 영천으로 떠나는 늦여름 여행.  
영천의 정신적인 지주인 포은 정몽주의 유폐를 모신 임고서원, 폐교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한 시안미술관, 별빛 포도 수확 체험으로 여름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 10:00 영천 농업기술센터 도착, 포도수확 및 와인담기체험
- ☞ 12:30 중식
- ☞ 13: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4:00 영천 문화탐방(임고서원, 시안미술관)
- ☞ 16:30 부산으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

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옐로우몬스터즈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21'

2011. 7.15(금)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입장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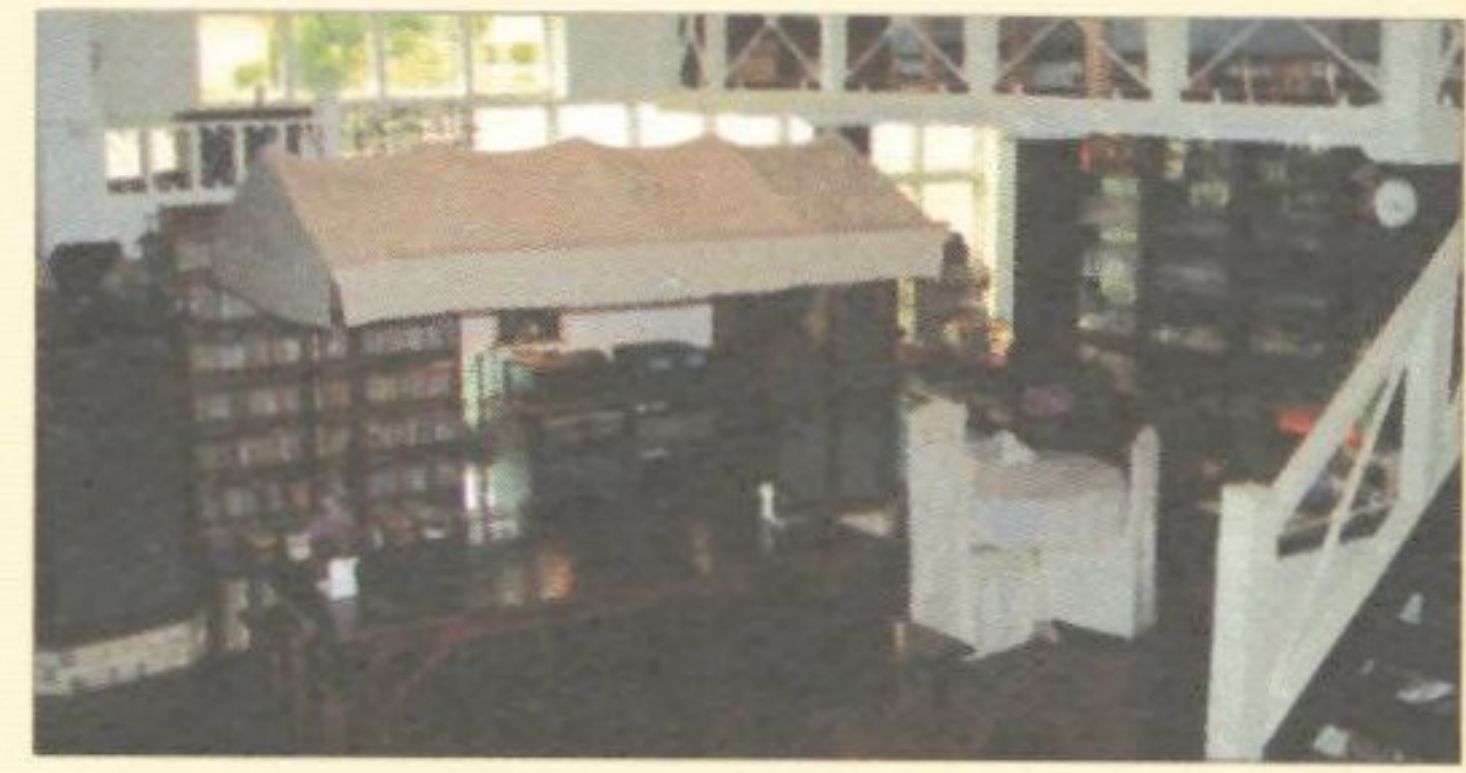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051-607-6058)

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싸이클럽 하늘아래 그 콘서트 club.cyworld.com//0911.concert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Wine Beer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 628-2592

## 뮤지컬 '락시터' 20% 할인



2011.6.3(금) ~ 7.31(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6:30(월요일 휴관)

▶ 입장권: 균일 30,000원

▶ 장 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 문의 및 예매: 1588-2757

-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 날짜: 2011.1.1(토) ~ 2011.12.31(토)

▶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무료 체험권

※ 방문 시간 사전 예약제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0

## 공포연극 '다락' 20% 할인



2011.7.15(금) ~ 8.7(일)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7:30, 9: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 (월요일 휴관)

▶ 입장권: 균일 30,000원

▶ 장 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 문의 및 예매: 1588-2757

-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퍼즐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갚는다  
?!

# 광고 하나로 천냥 빛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 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 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 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NO



PROGRAM

- ▷▷ Opening  
- Let me be there
- ▷▷ 씨시봉 그리고 트윈 폴리오처럼...  
Cotton fields / Don't forget to remember / Green green grass of home  
하얀 손수건 / 웨딩케익
- ▷▷ 영화 속의 Pop 1.  
James Bond Theme / Summer nights / Jai Ho
- ▷▷ 하모니카로 듣는 POP
- ▷▷ 비틀즈 1. 앙상블 에피소드  
Michelle / Obladi Oblada
- ▷▷ 비틀즈 2. 합창  
Eleanor Rigby / Here, There and Everywhere
- ▷▷ 영화 속의 Pop 2.  
April come She will / The Way You Look Tonight / Smile Again
- ▷▷ 팝 명곡 모음  
Soldier of Fortune / Somebody to Love(Queen) / Hotel California

DJ 도병찬

영원한 DJ 도병찬 과 함께하는  
2011 POP 합창낭

지휘자\_ 김강규  
드럼\_ 김진훈  
기타\_ 홍광현  
기타\_ 김정태

2011 | 7 | 15 (금)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_ 부산광역시    주관\_ 부산시립합창단  
문의\_ 부산시립예술단홍보마케팅부 607-3100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4  
예매\_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입장권\_ 균일 10,000원

전세계를 감동으로 열광시킨 주옥같은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Nessun Dorma)

# 투란도트

## TURANDOT

2011년, 위대한 사랑의 울림이 시작된다.  
그대의 이름은 사랑!!



2011. 7.28(목) ~ 7.30(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주 관 부산문화회관    온누리오페라단    부산문화    특별후원 부산일보사

협 찬 노블리아 라이프    대한웰니스병원    마이비카드    성형외과/피부과    으뜸24 정형외과 /내과    최창수치과    정외당인의원

평 일    오후 7:30    토    오후 3:00, 7:30 [총 4회, 공연시간 : 2시간]    입장권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예 매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팝부산 www.popbusan.com    부산은행 전지점



| 무료 셔틀버스 운행 |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 있는 날에 한함)

공연문의 및 단체예매문의    예매가 빠르면 좌석이 앞섭니다.

# 1600-1803

"VIP석 구매 고객에게는 마이비카드를 증정합니다"